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연구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조 방 방
(趙芳芳, ZHAO FANGFANG)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연구

지도교수 구 본 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조방방

조방방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국 문 초 록

한국어에는 '안', '못', '못하다', '않다', '아니다' 등 부정소와 잘 어울리고 주로 부정문에 쓰이는 어휘 유형이 있는데 그 중 '결코, 절대로, 전혀, 도저히'와 같이 소위 '부정극어'에 속하는 것들이 의미적 인접성을 보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에게 많은 혼란을 느끼게 한다. 부정극어는 모두 '부정'이라는 의미 범주에 속해 있으나 어휘마다 미묘한 의미 차이를 보이며 통사적, 화용적 측면의 제약도 달라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므로 가장 익숙한 부정극어만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회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맥락과 발화 의도에 맞게 다양한 어휘 사용 능력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정극어들의 변별적 특성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정극어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 부정극어들이 유의관계를 보인다고 언급하는 데 그쳐, 나아가 부정극어 유의어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교육 방안을 제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로 남았다. 본고는 이러한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의 빈틈을 채우기 위하여 어휘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유의관계를 보인 부사 부정극어를 사용할 때 모어 화자의 직관에 가까운 변별 및 사용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효과적인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부정극어의 개념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에 논란이 되는 부정문과 부정소의 범위를 규명한 후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정극어의 개념, 유형 및 특성에 대해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그 다음 부정극어의 개념 및 특성에 근거하여 부정극어의 판단 기준을 규명한 후 선행 연구 및 코퍼스 자료를 바탕으로 부사 부정극어의 범주 및 교육용 부사 부정극어 목록을 추출하였다. 그 뒤 유의어 사전 및 대규모 한국어 사전, 한·중 사전 등 자료에 의해 본고의 연구 대상 유의어인 '도저히-도무지-전혀', '결코-절대로', '별로-그다지-그리'를 확정한 후 유의어 변별 방법의 논의와 같이 선정된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찾아보았다. 본고

에서는 SJ-RIKS 코퍼스 확장판을 활용하여 각 부정극어의 의미성분, 다양한 부정표현과의 결합 양상 및 빈도, 실제 상황 맥락에서의 화용적 기능을 다루며 의미, 통사, 화용적 측면에서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에 대한 이해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사후 점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조집단은 모어 화자이다. 모어 화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학습자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앞에서 추출된 변별 기제를 검증하고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정극어 유의어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변별 기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모어 화자와 다른 이해 양상을 보여주며 개별 부정극어의 사용을 회피하거나 의미 규칙을 단순화하여 적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의 부재로 인해 부정극어 간의 변별적 특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Ⅱ장의 코퍼스 분석 결과와 Ⅲ장의 학습자 및 모어 화자의 이해 양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교육 내용 구성 원리 및 교육 목표를 밝히고, 더불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제시 순서를 위계화하였다. 그 다음 제시 순서에 따라 각각의 부사 부정극어를 교육할 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구축된 바와 같이 부정극어 유의어의 개별 교육 단계와 변별 교육 단계의 교수 내용을 정리하고 기술하였다.

* **주요어:** 한국어교육, 중국인 학습자,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부정문, 부정표현, 유의관계, 변별 기제, 결합 관계, 의미성분 분석

* **학 번:** 2019-27020

차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4
2.1. 부정극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 5
2.2. 부정극어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 ····· 8
2.3. 부정극어에 대한 한국어교육학적 연구 ····· 9
3. 연구 방법 및 절차 ····· 13

Ⅱ.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논의를 위한 전제 ····· 15
1. 부정극어의 정의 및 범주 ····· 15
1.1. 한국어 부정문과 부정표현 ····· 15
1.2. 부정극어의 정의 및 분류 ····· 20
1.2.1. 한국어 부정극어의 개념 ····· 20
1.2.2. 한국어 부정극어의 분류 ····· 25
1.2.3. 한국어 부정극어의 특성 ····· 28
2.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선정 ····· 36
2.1.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목록 ····· 36
2.2. 교육용 부사 부정극어의 제시 ····· 43
2.3.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선정 과정 ····· 46
3.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 55
3.1.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방법 ····· 55
3.2. 유의어 변별 절차 및 자료 ····· 59
3.3.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 ····· 62
3.3.1. '도저히-도무지-전혀'의 변별 기제 ····· 62
3.3.1.1. '도저히-도무지-전혀'의 의미적 변별 기제 ····· 62
3.3.1.2. '도저히-도무지-전혀'의 통사적 변별 기제 ····· 71

3.3.1.3. '도저히-도무지-전혀'의 화용적 변별 기제 ····· 79
3.3.2. '결코-절대로'의 변별 기제 ····· 85
3.3.2.1. '결코-절대로'의 의미적 변별 기제 ····· 85
3.3.2.2. '결코-절대로'의 통사적 변별 기제 ····· 90
3.3.2.3. '결코-절대로'의 화용적 변별 기제 ····· 95
3.3.3. '별로-그다지-그리'의 변별 기제 ····· 98
3.3.3.1. '별로-그다지-그리'의 의미적 변별 기제 ····· 98
3.3.3.2. '별로-그다지-그리'의 통사적 변별 기제 ····· 105
3.3.3.3. '별로-그다지-그리'의 화용적 변별 기제 ····· 111

Ⅲ.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이해 양상 ····· 117
1. 조사 방법 및 절차 ····· 118
1.1 조사 참여자 선정 ····· 118
1.2. 조사 도구 개발 ····· 119
1.3. 조사 절차 ····· 126
2. 조사 결과 분석 ····· 127
2.1. 의미적 변별 기제에 따른 이해 양상 ····· 127
2.2. 통사적 변별 기제에 따른 이해 양상 ····· 140
2.3. 화용적 변별 기제에 따른 이해 양상 ····· 147
2.4. 학습 정보에 따른 이해 양상 ····· 163
3. 이해 양상 차이의 원인 분석 ····· 167
3.1. 언어 간 전이 ····· 168
3.2. 언어 내 전이 ····· 171
3.2.1. 변별 기제에 대한 지식 부족 ····· 171
3.2.2. 의미 규칙의 단순화와 과잉 적용 ····· 175
3.3. 교육의 부재 ····· 177

Ⅳ.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내용의 설계 ····· 181
1.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목표 ····· 181

2.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내용의 체계화 ·····183
2.1. 교육 내용의 구성 원리 ·····183
2.2. 제시 순서의 위계화 ·····187
3. 변별 기제 중심의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내용의 실제 ·····189
3.1. '도저히-도무지-전혀'의 변별적 교육 내용 ·····189
3.2. '결코-절대로'의 변별적 교육 내용 ·····195
3.3. '별로-그다지-그리'의 변별적 교육 내용 ·····200

Ⅴ. 결론 ·····206

참고문헌 ·····209
부 록 ·····217
Abstract ·····227

표 차례

<표Ⅰ-01> 연구 방법 및 절차 ····· 13
<표II-01> 선행 연구에어 제시된 한국어 부정소의 분류 및 범위 ····· 16
<표II-02> 선행 연구에서 부정극어에 대한 정의 ····· 21
<표II-03> 한국어 부정극어의 형태적 분류 ····· 25
<표II-04> 한국어 부정극어의 품사별 분류(하지경, 2009) ····· 27
<표Ⅱ-05> 선행 연구에 제시된 부사 부정극어 목록 ····· 36
<표Ⅱ-06> 한국어 부정 부사 목록(55개) ····· 38
<표Ⅱ-07> SJ-RIKS 코퍼스에서 부정 부사들의 부정문에서의 사용 비율 ····· 40
<표Ⅱ-08> 한국어 전체 부사 부정극어 (22개) ····· 42
<표Ⅱ-09>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작성된 교육·학습용 어휘 목록 ····· 43
<표Ⅱ-10> 교육·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제시된 부사 부정극어 ····· 44
<표Ⅱ-11> 한국어 교육용 부사 부정극어(13개) ····· 46
<표Ⅱ-12>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선정의 참고 문헌 자료 ····· 47
<표Ⅱ-13> 유의어 사전에서 제시된 부사 부정극어의 유의어 ····· 48
<표Ⅱ-14> 유의어 사전에 의한 1차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선정 ····· 50
<표Ⅱ-15> 한국어 사전에서 부정극어의 의미 기술 ····· 51
<표Ⅱ-16> 한국어 사전에 의한 2차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선정 ····· 53
<표Ⅱ-17> 한·중 사건과 한·중 부정극어 대조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 ····· 54
<표Ⅱ-18> 분석 대상 말뭉치 구성 ····· 62
<표Ⅱ-19> '도저히', '도무지', '전혀'의 사전 의미 기술 ····· 62
<표Ⅱ-20> '도무지', '도저히', '전혀'의 의미성분 분석 ····· 71
<표Ⅱ-21> SJ-RIKS 코퍼스 확장판에서 '도저히', '도무지', '전혀'와 와 부정표현의 결합 양상 ····· 71
<표Ⅱ-22> '도저히', '도무지', '전혀'가 말뭉치에서의 빈도수 ····· 80
<표Ⅱ-23> '도저히'의 화용적 쓰임 ····· 82
<표Ⅱ-24> '도무지'의 화용적 쓰임 ····· 83
<표Ⅱ-25> '전혀'의 화용적 쓰임 ····· 84
<표Ⅱ-26> '결코-절대로' 사전에서의 의미 기술 ····· 85
<표Ⅱ-27> '결코-절대로'의 의미성분 분석 ····· 89

<표Ⅱ-28> SJ-RIKS 코퍼스 확장판에서 '결코', '절대로'와 부정표현의 결합 양상 ··90
<표Ⅱ-29> 『고려대사전』에서 '절대로'의 의미 기술 ····92
<표Ⅱ-30> '결코', '절대로', '절대'의 말뭉치에서의 빈도수 비교 ····95
<표Ⅱ-31> '결코'의 화용적 쓰임 ····97
<표Ⅱ-32> '절대로'의 화용적 쓰임 ····98
<표Ⅱ-33> '별로','그다지','그리'의 사전 의미 기술 ····99
<표Ⅱ-34> '별로', '그다지', '그리'의 의미성분 분석 ····105
<표Ⅱ-35> SJ-RIKS 코퍼스 확장판에서 '별로', '그다지', '그리'와 부정표현의 결합 양상 ····105
<표Ⅱ-36> '별로', '그다지', '그리'의 말뭉치에서의 빈도수 비교 ····111
<표Ⅱ-37> '별로'의 화용적 쓰임 ····113
<표Ⅱ-38> '그다지'의 화용적 쓰임 ····114
<표Ⅱ-39> '그리'의 화용적 쓰임 ····115
<표Ⅲ-01>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에 대한 이해 및 사용 양상 ····119
<표Ⅲ-02> 조사 도구의 구성 ····119
<표Ⅲ-03> 이해 양상 조사의 테스트 유형 ····120
<표Ⅲ-04>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의 출제 기준 및 문항 예시 ····121
<표Ⅲ-05>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출제 기준 및 문항 예시 ····122
<표Ⅲ-06>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의 출제 기준 및 문항 예시 ····123
<표Ⅲ-07> 사후 점검 인터뷰의 구성 ····125
<표Ⅲ-08> 조사 절차 ····126
<표Ⅲ-09> 중국인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의 문항별 정확 검정 통계 결과 ····127
<표Ⅲ-10> '도저히', '도무지', '전혀'에 관한 7개의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의 집단별 선택 양상 비교 ····128
<표Ⅲ-11> '결코', '절대로'에 관한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의 집단별 선택 양상 비교 ····133
<표Ⅲ-12> '별로', '그다지', '그리'에 관한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의 집단별 선택 양상 비교 ····136
<표Ⅲ-13> 중국인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부정극어 유의어 사용의 문항별 정확 검정 통계 결과 ····148
<표Ⅲ-14> 부정극어 학습 여부 및 학습 시기 ····164
<표Ⅳ-01>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의 목적 및 목표 ····183

<표Ⅳ-02>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빈도수 및 등급화 ·····187
<표Ⅳ-03>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위계화 결과 ·····189
<표Ⅳ-04> '전혀'의 교수·학습 내용 ·····190
<표Ⅳ-05> '도저히'의 교수·학습 내용 ·····192
<표Ⅳ-06> '도무지'의 교수·학습 내용 ·····193
<표Ⅳ-07> '결코'의 교수·학습 내용 ·····196
<표Ⅳ-08> '절대로'의 교수·학습 내용 ·····197
<표Ⅳ-09> '별로'의 교수·학습 내용 ·····200
<표Ⅳ-10> '그리'의 교수·학습 내용 ·····201
<표Ⅳ-11> '그다지'의 교수·학습 내용 ·····203

그림 차례

[그림Ⅱ-01] '별로-그다지-그리'의 정도 척도 비교 ·····101
[그림Ⅲ-01] '도저히', '도무지', '전혀'에 관한 9개의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집단별 정확도 ·····140
[그림Ⅲ-02] '결코','절대로'에 관한 8개의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집단별 정확도 ··141
[그림Ⅲ-03] '별로', '그다지', '그리'에 관한 8개의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집단별 정확도 ·····141
[그림Ⅲ-04] 상황3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148
[그림Ⅲ-05] 상황4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149
[그림Ⅲ-06] 상황2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151
[그림Ⅲ-07] 상황9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152
[그림Ⅲ-08] 상황8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154
[그림Ⅲ-09] 상황10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155
[그림Ⅲ-10] 상황6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157
[그림Ⅲ-11] 상황7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158
[그림Ⅲ-12] 상황1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160
[그림Ⅲ-13] 상황5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16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도저히-도무지-전혀', '결코-절대로', '별로-그다지-그리' 간의 변별 기제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부정극어 사용에 있어서 정확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교육 내용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대규모 코퍼스 자료를 분석하여 의미·통사·화용 층위의 변별 기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핀다.

부정극어는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언어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국어 부정극어들은 부정이라는 의미 범주에 속해 있으나 각각의 사용 빈도와 사용 영역별 분산도가 다르고 다양한 부정표현와의 공기 양상이 복잡해서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부정극어들의 의미 차이 및 사용 제약에 대해를 이해하고 실제 담화 맥락에서 모어 화자처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한국어 부정극어들은 서로 간의 의미 차이가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단어별로 부정표현와의 결합 양상 다양하며(이기종, 1989:179), 또한 다양한 발화 맥락에서 드러나는 화용적 효과도 다르다(이한규,2001:110)는 특성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부정극어는 그 통시적 의미 변화와 관련하여 긍정문에서 사용되거나 주어, 시제, 서법, 서술어 제약을 비롯한 각기 다른 통사적 특성을 갖기도 한다. 서정수(1994); 이지애(2002)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 부정극어가 반드시 부정문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부정극어의 경우 부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긍정문[1)]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 이후 임유종(2007), 오상언(2015), 배미연(2018) 등은 말뭉치 용례 분석을 통해 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따라서 부정문에만 나타난다고 제시되어 온 부정극어들이 긍정문에 나타날 때 학습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

1) 부정극어의 긍정문에서의 쓰임에 대해서는 2장에서 살펴보겠다.

지금까지 국어학 및 교육 분야에서 부정극어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지만, 그 관심사는 대체로 부정극어의 분포상의 현상을 통사적 또는 의미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는 이들 허가자의 유형에 따른 부정극어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부정극어들이 갖고 있는 미묘한 의미 차이 또한 다른 통사, 화용 측면의 변별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하지 않고서는 부정극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기대할 수 없다. 예컨대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1) 가. 나는 그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 나는 그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다. 나는 그의 생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2) 가. 그는 친구의 배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 그는 친구의 배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예문(1)에서, '도무지, 도저히, 전혀'는 모두 '화자가 제 3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정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각각 의미와 어감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맥락에서 완벽하게 대치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2)에서의 '결코, 절대로'도 높은 의미적 유사성을 보여 학습자들은 이 유의어 쌍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러한 유의어를 교육할 때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사전이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 기술에만 의하면 위와 같은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의미 차이를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 교사가 부정극어에 달려 있는 의미성분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부정극어의 변별적 특성을 이해시키도록 하면 학습자 어휘 사용의 정확성 및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부사 부정극어는 서술어를 수식하면서 부정소와 밀접하게 호응하여, 다른 유형의 부사에 비해 그 의미나 용법에 있어서 부정소와의 호응에 현격히 의존한다. 부사 부정극어는 부정극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부정소와 필수적

호응을 보이면서 다양한 문법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문장 성분으로서 생략하거나 수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화자가 사태에 대한 인식 및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거나 청자에 대한 공손성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완화 장치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인관계의 유지에 유익하므로 교육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단지 부사 부정극어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또는 단편적인 통사적 결합 양상만 학습하고 있으며 부정극어에 내포된 의미에 따른 통사적, 화용적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들은 교재에 의해 부정극어의 의미와 호응 정보를 한두 개의 예문만을 통해 학습하고 있고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부정극어들을 부정을 나타내는 유사 어휘로만 이해하고 있어서 위에서 제시된 예문(1),(2)과 같은 문장들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강현화(2001)에서 어휘 교육에 있어서 모국어의 간섭과 공기관계에 대한 용법 및 용례 제공이 충분하지 못함은 학습자들의 유사 의미에 의한 오류의 빈도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오상언(2015:191)에서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는 중국어보다 수가 많고 일대일의 대응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부사 부정극어라도 대응하는 중국어에서는 수행하는 의미 영역이 다르거나 통사적으로 부정소와의 공기 양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을 밝혔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같은 부정극어 유의어들을 만나게 될 때 의미 변별을 매우 어려워하여 어떤 경우에 '전혀'를 쓰는지, 어떤 경우에 '도무지, 도저히','절대로' 또는 '결코'를 쓰는지와 같은 선택에 있어서 혼란을 겪곤 한다. 또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황 맥락에 맞지 않거나 자신의 의도와 어긋나게 부정극어를 골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의미 기능이 동일한 부정극어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화된 지점에 대한 정보가 학습자들에게 제공되어야 정확하고 적절한 사용이 도모될 것이다.

본 연구는 코퍼스 분석과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부정극어 유의어의 통사·의미·화용적 변별 기제를 도출하여 중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부정극어들의 변

별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후에 학습하는 다른 부정극어와 변별하여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부정극어가 갖는 변별 기제를 기반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부정극어들이 유의관계를 보인다고 언급하는 데 그쳐 이들이 변별되는 지점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부족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육 내용 연구 역시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이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은 부정극어 유의어들이 변별되는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근간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정극어 유의어를 변별하여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부정극어의 개념, 유형, 특성, 성립조건과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선정 과정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연구 대상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코퍼스 분석을 통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변별 기제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에 대한 이해 양상을 비교·분석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코퍼스 분석 결과와 학습자 이해 양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극어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는 그 연구 내용에 따라 국어학적 연구, 대조언어학적 연구, 그리고 한국어교육학적 연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1. 부정극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생성문법이론이 적용되면서 부정극어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오늘날까지 상당수의 연구 성과가 구축되어 있다. 국어 부정극어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부정극어와 부정문의 관계, 부정극어의 허가 조건 및 범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환묵(1977), 임홍빈(1987), 시정곤(1997), 김영희(1998) 등이 있다.

이환묵(1977), 시정곤(1997)에서는 부정극어의 전반적인 분포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이환묵(1977)은 처음으로 한국어에서 '극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극어'는 긍정문이나 부정문 둘 중 한가지에만 나타나는 어구이다. 시정곤(1997)에서는 한국어 부정어와 부정극어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부정극어가 부정어에 의해 허가되는 형태 및 통사적 허가 조건을 논의하였다.

임홍빈(1987)에서는 부정극어의 허용 여부를 통사적 부정문의 성립 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홍빈(1987)은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를 다루면서 부정문은 형식적인 조건에 의하여 정의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며 '모르-, 없-'등은 부정 극성을 띤 성분으로, 즉 부정극어와 통사론적으로 공기관계[2)]를 보인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형식적인 관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부정문의 통사적인 정립조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영희(1998)에서는 부정극어를 '부정 극성어'라고 하며 기존의 논의는 부정극성어와 부정소가 보여주는 전반적인 현상이나 부정극어의 통사적 분류를 간과하고 있으며 부정 극성어에 관한 단편적인 사실만을 거론하거나 통사론적으로 개별 부정 극성어의 허가 조건을 규명해 보려는 데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더 세부적으로 부정 극성어들의 이질적 문법 특성을 분석하여 하위 부류로 가르고 생성 문법론의 입장에서 부정 극성어를 허가하는 부정소

2) 공기 관계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 요소가 한 문장 내에서 반드시 혹은 대개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공기 관계를 가지는 두 요소가 함께 나타나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전반에 대한 체계나 유형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부정 극성어 현상을 적합하게 기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정 극성어의 허가자는 의미론적 허가자와 화용론적 허가자로 대별되어야 하고 통사론적으로 부정극어의 허가자를 기술, 설명하려는 형식적 접근은 자의적이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부정극어의 논의 범위를 화용론적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부정극어에 관한 연구는 통사론적 측면에서 화용론적 측면으로 확장되었고 부사의 범위에서 점차 벗어나 구형 부정극어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부정극어의 분류에 대한 연구(하지경, 2009; 구종남, 2012 등)는 지속되면서도 특정 유형이나 개별 부정극어를 중심으로 부정극어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을 다룬 연구들이(채상진, 2000; 유옥순, 2005; 이영, 2013) 많이 등장하였다.

채상진(2000)에서는 한국어 개별 부정 극성 부사의 의미적·통사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에 염두를 두고 사전에 충 10개의 부정 극성 부사[3]를 대상으로 하여 사전적 의미 고찰과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미론적으로 이들 부정 극성 부사의 의미 자질을 다루었을 뿐 연구 대상인 부정 극성 부사의 환경 자질, 즉 부정 요소나 특정 어휘 호응 여부 등을 통사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유옥순(2005)에서는 부정극어의 유형을 정리하는 데 부정극어의 의미론적 특성을 극성의 일반적인 절대기준이 아닌 화자의 기대지점이라는 상대기준을 적용했다. 화자가 기대하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기대치에 가깝거나 일부분을 갖고 있어서 부정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절대기준과 상대기준의 사이에 속하는 '소극적 부정극어'와 화자의 기대를 제거하고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여 확대시키는 '적극적 부정극어'로 부정극어를 구분하여 각 유형에 해당된 부정극어의 사전에서의 정의 및 용례를 살펴보면서 부정소 '안'과의 호응 여부를 형용사, 수여동사, 피동사, 사동문, 종속접속문, 등위접속문, 명사구보문, 계사문 등 문형별로 나누어서 부정극어의 공기관계에 따른 통사적 제약을 정리해보았다.

---

3) 채상진(2000)에서는 '부사 부정극어'를 '부정 극성 부사'라 한다.

이영(2013)은 기존 논의에서 부정문과 부정소의 범주, 부정극어의 개념 및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도출된 부정극어 목록에 무리하게 부정극어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 있다고 지적하며 부정어와 부정문의 개념 및 범위를 다시 정립하는 데 염두를 두고 통사적, 의미론적의 부정문의 성립 조건을 제기하였고 부정문과 공기하는 부정극어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통사론적으로 부정극어와 부정 요소와의 공기관계를 다룬 논의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들 연구들은 주로 부정극어의 의미적인 부정 정도나 형태에 근거하여 부정극어를 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부정극어의 의미 자질, 부정요소와의 호응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런 작업은 개별 부정극어나 특정 유형의 부정극어들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부정극어의 화용적 쓰임을 다룬 연구도 있었으나 부정극어의 형태적·통사적·의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만큼 많지 않다. 실제 부정극어가 사용되는 발화 맥락에서 나타나는 양태 의미를 분석해 본 연구는 이한규(2001), 김선희(2002)뿐이었다.

김선희(2002)에서는 '도저히, 도무지, 좀처럼, 통, 별로, 영' 등을 부정 양태 부사라 하며 이들이 부정소 '안, 못'와 호응하여 용언의 어미에 대한 통사적 제약이 없으므로 어미가 나타내는 서법이나 양태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양태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이한규(2001)에서는 부정의 내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한국어 부정 극어 중 '도무지, 도저히, 전혀, 결코'가 보여주는 화용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네 부정극어의 쓰임과 차이점, 의문문에 나타나는 분포상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화용적인 측면에서 이 네 부정극어의 의미 차이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의관계를 보이는 부정극어들의 변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국어학 분야에서 부정극어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있어왔지만 유의관계를 보인 부사 부정극어들을 비교해서 문맥에서 교체될 수 없는 차별적인 의미, 부정표현과의 결합 관계에 따른 통사적 호응 정보 및 주어, 서술어 등 통사적 특성의 차이점 및 그리고 화용적 쓰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2. 부정극어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

국어학 분야에서 부정극어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반면에 대조언어학 및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부정극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극어 통사·의미적 대조·비교 연구에 집중하였고 교육 방안까지 탐색하는 연구들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향우우(2011), 황흥영(2012), 송국경(2013), 오상언(2015)등이 있다.

최초로 한·중 부정극어의 비교 연구를 시도한 연구는 향우우(2011)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극어를 일반적 부정극어와 특수적 부정극어로 구분하여 총 8개의 부정극어를 대상으로 그 의미·통사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이어서 황흥영(2013)에서는 향우우(2011)가 비교 대상을 선정할 때 번역의 차이로 인해 부정극어들이 서로 의미가 완전히 대응하지 않았고 부정극어들의 다른 통사적 특징을 다루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형태·통사·의미적 특성에 의해 한·중 부정극어를 분류하고 대조 분석을 하였다.

송국경(2014)에서는 국립국어원(2002,2005,2011)에서 도출된 빈도수가 가장 높은 14개의 한국어 부정극어를 소극적 부정극어와 적극적 부정극어로 나누고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는 한국어 부정극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의미적으로나 문맥적으로 부정극어가 아닌 경우가 많음을 밝혔고 사전적 의미에만 의해 한·중 부정극어의 대응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부분 한·중 부정극어 대조 연구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부정극어 목록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출처 및 추출 방법을 밝히지 않았으며 특정한 몇 개의 단어형 부정극어의 의미 대조를 위주로 하여 양국 부정극어 전반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하였고 오상언(2015)에서는 사전 및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부사 부정극어 목록을 정리한 다음 코퍼스에서 이들 부정극어들의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비율 및 출현 빈도를 조사하였고 총 31개의 한

국어 부사 부정극어 및 18개의 중국어 부정극어를 선정하여 이들 부정극어들의 기본 의미 기능, 부정요소와의 호응 양상, 서술어 선택 제약, 통사적인 위치 등 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그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 한·중 '하나'류 수량사구+도형 부정극어의 특징도 대조 분석을 하였다. 한·중 부정극어 대조 연구의 사각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중 부정극어의 대조 연구는 통사적·의미적 대조에 집중되어 왔는데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화용 기능은 중국어와 모두가 대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한국어 부정극어의 유의어군의 경우, 같은 중국어 표현과 대응하거나 여러 개의 차별된 의미로 설명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한국어 부정극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그 자체가 부정극어가 아닌 것도 많다. 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 간섭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순히 한·중 부정극어의 의미 대조 작업 외에,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군의 의미·화용적 차이를 대량의 용례 분석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 교체하여 사용되는지, 어떠한 맥락에서 의미가 달라지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3. 부정극어에 대한 한국어교육학적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 부정극어에 관한 연구는 국어학 분야에서 누적된 연구 결과를 수용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전달 기술에 대해 주로 교수법 차원에만 몰두해 있었다. 교육학적 측면에서는 주로 개별 부정극어들의 부정소와의 호응 양상에 대한 교육적 활용과 교재 분석, 오류 분석, 사전적 의미 고찰 등 면에서 연구를 시도하였다.

임유종(2007)에서는 부정표현과 어울리는 부사의 경우, 어휘마다 다양한 부정표현과의 결합 양상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매우 요긴한 정보이므로 이러한 부정성 부사 전체를 대상으로 각 어휘별 결합 관계와 실제 사용 양상을 살피고 이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총 37개의 부사를 선정하여 코퍼스 용례 분석을 통해 부사 어휘별로 결합하는 부정 표현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각 부정 표현과의 결합 빈도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코퍼스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부정극어의 결합 양상과 사용 빈도를 확인하고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 자료 및 방안을 제시하는 점에서 기존의 양상 분석에서 벗어나 한 단계가 진전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강림(2013)에서는 한국어 부정극어가 부정소 '안, 못', 중국어 부정극어가 부정소 '不, 와 没(有)'와 결합할 때의 양상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다음 중국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 30명을 대상으로 부정극어의 결합 관계에 대한 오류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부정소 '못'과 대응하는 중국어 부정소가 없어서 중국인 중급 학습자들이 부정극어와 부정소 '못'의 결합에 대해 쉽게 오류를 범했고 모국어 간섭의 영향 때문에 부정서술어와의 호응 관계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쩡리엔치(2014)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기출 문제에서의 부사 부정극어의 출제 빈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사 부정극어는 한국어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정극어의 교재에서의 제시 양상 및 사전에서의 기술 양상을 살펴보며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부정극어 번역에서의 오류 양상을 살피기 위해 중국어 자막으로 번역하는 드라마 대본을 분석하였는데, 기존의 문어 코퍼스 기반의 선행 연구에 비해 구어 코퍼스 자료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으나, 연구 대상을 단지 소극적 부사 부정극어에 한정하여 부정극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과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경선(2020)에서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부정극어가 긍정문에서 실현되는 양상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부정문이 아닌 비부정적 문맥에 쓰일 수 있는 부사 부정극어 '전혀, 도무지, 도저히, 절대로'등의 말뭉치에서의 용례를 추출하여 부정과 관련이 없는 문맥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주면서 교육 차원에서 문제 중심 학습(PBL)[4]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부사 부

4) 이종은(2005)에서는 문제 중심 학습은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학습 모형이며 실제적인 문제

정극어 교육의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한다.

이어 사범범(2018)에서는 한국어 부정극어를 '단어형', '구형', '절형'으로 분류하였고 부정극어의 화용적인 기능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화행에서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부정극어의 강화 의미 기능과 약화 의미 기능이 화자의 심리적인 감정, 태도에 기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또한 오류 분석 및 교재 분석을 통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부정극어의 화용적인 사용 양상 및 제시 양상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 연구는 더 넓은 범주 안에서 '절형' 부정극어까지 포함한 부정극어의 화용적인 측면에서의 사용 양상 및 교재에서 부정극어의 화용 정보 제시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기존 논의에서는 부정극어들의 유의관계를 활용하여 교육 내용을 조직하려 시도한 바 있었다. 이선경(2020)에서는 부정극어들의 실제 사용 빈도와 학습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습용 부사 부정극어 목록을 추출한 후, 부정극어의 특성에 근거하여 유의관계 및 호응관계를 활용하는 부정극어 교육 방안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용 부사 부정극어를 위계화하고 교육 내용으로 부정극어의 유의관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부정극어 유의어를 확정하는 데 한계를 나타내며 사전적 의미와 부정소와의 결합 형태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제시하였을 뿐,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화용적 층위의 차이점을 밝히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어 부정극어에 관한 연구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부정극어는 주목받아 온 영역으로서 다양한 문법 이론에 의해 연구를 진행해 와 논의가 풍성하다. 그러나 부정극어를 교육적 차원에서 해석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국어학적 연구는 주로 부정극어의 허가 조건, 화용상의 가정, 특정 부정극어의 형태, 통사론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연구 업적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대조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주로 한·중

와 관련된 지식을 조직하려는 전략으로, 교사의 제시나 강의하는 시간을 줄이고 학습자의 사고를 위주로 과제 발표와 토의 등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과 협동력을 신장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스스로 개념이나 해결책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는 수업 모형이라고 하였다.

'단어형' 부정극어의 의미, 형태, 통사적 결합 양상에 대해서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는 부정극어에 대한 연구가 늦게 시작되었고 부정극어 교육의 실태, 한국어 교육용 부정극어의 선정 및 분류, 부정극어의 교육 원리, 부정극어와 부정요소의 통사 관계를 이용하여 교육적 활용과 오류 분석 등 면에서 연구를 시도하였다.

둘째, 부정극어가 부정문, 부정소와의 관계를 통해 개념을 정립한다는 주장에 따라 부정극어의 통사적 결합 관계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부정극어가 통사적으로 부정표현과 맺는 공기관계와 사전 의미를 제시하는 데 그쳐 부정극어들이 서로 간의 의미 차이, 화용적 기능, 그리고 서술어 제약, 부정 제약, 서법 제약과 같은 다른 통사적 특성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셋째, 부정극어들 사이에 나타나는 의미적 유사성을 확정하고 서로 변별되는 지점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정극어 유의어들이 부정의 의미를 공통으로 가짐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되지 않는 지점 및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고유한 특성은 부정극어 유의를 변별할 수 있는 자질로 기능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살핀 결과 사전의 의미 기술에 의해서만 부정극어들의 유의관계를 언급하고 있었으나 실제 말뭉치 분석을 통해 부정극어들의 미묘한 의미 차이나 의미에서 확장되어 나타나는 통사적, 화용적 특성에 대한 변별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학습자들이 부정극어들을 변별하여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개별 부정극어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 내용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앞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학습자에게 변별이 어려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를 대상으로 하되 모어 화자의 말뭉치 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의미·통사·화용적 변별 기제를 도출한 후 그에 대한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이해 양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 및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Ⅰ-01> 연구 방법 및 절차

목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자료
Ⅱ장	・부정문과 부정표현의 개념 및 범위 설정 ・부정극어의 개념, 유형, 특성 밝힘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선정	・문헌 연구 -부정극어 관련 선행 연구 -유의어 관련 선행 연구 -한·중 부정극어 대조 연구 -문헌 및 유의어 사전 고찰
	・유의어 변별 방법 고찰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의미적·통사적·화용적 변별 기제를 밝힘	・교체 검증법, 의미성분 분석법, 결합제약 검증법 등 ・사전적 정의와 용례 분석 ・코퍼스분석(SJ-RIKS 코퍼스 확장판, 21세기 세종 구어 형태부석 말뭉치)
Ⅲ장	・중국인 고급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부정극어 유의어 이해 양상 확인 및 차이 원인 분석 ・부정극어 유의어 학습 정보	・조사 연구 -설문 조사 및 사후 점검 인터뷰 ・양적 통계 분석
Ⅳ장	・부정극어 유의어의 교육 내용 제안	-코퍼스 분석 결과 및 이해 양상 조사 결과

Ⅱ장에서는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어 부정문, 부정표현의 범위에 대해 확정하고 부정극어의 개념, 유형, 특성을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는 확장된 부정극어의 개념을 적용하여 그 판단 기준을 설정한 후 부사 부정극어의 범위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다룸으로써 부사 부정극어 목록을 추출한다. 또한 기존의 교육・학습용 어휘 목

록을 참고하여 교육용 부사 부정극어를 선별해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의어 사전과 대규모 한국어사전, 그리고 한·중 부정극어 대조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될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를 선정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을 확정한 다음에는 실제 한국어 모어 화자가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의미·통사·화용 층위의 변별 기제의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SJ-RIKS 코퍼스 확장판과 21세기 세종 구어 형태부석 말뭉치를 대상으로 코퍼스 분석을 실시한다. SJ-RIKS 코퍼스 확장판은 모어 화자들의 실제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말뭉치의 대부분이 문어 중심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순구어, 준구어, 그리고 21세기 세종계획 구어 형태분석 말뭉치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이상의 자료를 기반으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의미·통사·화용적 특성에 대해 살피고 그 변별 기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밝혀낸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핀다. 이를 위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 56명과 대조 집단인 한국어 모어 화자 45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해 양상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이해 양상 조사는 진위 판단형 테스트,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조사를 통해 코퍼스 분석을 통해 도출한 변별 기제에 대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이해 양상이 모어 화자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 6명과 모어 화자 5명을 대상으로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여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해 양상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 구성 원리를 제시하고 의미·통사·화용적 변별 기제를 담고 있는 효과적인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교육 내용을 제안하도록 한다.

II.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논의를 위한 전제

1. 부정극어의 정의 및 범주

1.1. 한국어 부정문과 부정표현

국어학 및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부정문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 관심 대상 가운데 하나는 부정문과 잘 어울리지만 긍정문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단어들을 '부정극어'라 한다. 단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부정극어가 수반하는 부정문이 문장 구조상은 부정문이 아니지만 의미상 부정문으로 볼 수 있는 문장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1) 가. 민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나. 비양심적인 짓을 하면 언젠가는 죄의 대가를 받는다.
다. 오래된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

(2) 가. 왜 안 먹니? (어서 먹어라.)
나. 너 아직 안 갔냐? (빨리 가라.)
다. 한번 안 놀러 오냐? (한번 놀러 와라.)

만약 부정과 관련이 있는 요소가 들어간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한다면 위의 예문(1)의 경우 부정문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긍정문이라 해야 할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2)의 수사의문문과 같은 형식적인 부정소가 나타나더라도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부정문으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부정문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것을 부정문으로 보고 어떤 것을 보지 않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통사론에서 '아니(안), 못' 같은 부정 의미를 가지는 부사 또는 '아니하다(않다), 못하다, 아니다, 말다' 등 부정적 보조 용언을 부정소로 간주하고 이러한 명시적 부정소

를 가진 문장을 부정문으로 보는 것은 큰 논란이 없지만 부정문과 관한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종종 어휘적 부정 또는 특수 부정으로 제시된 것들을 부정문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해당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는 '모르다, 없다'의 서술어가 쓰인 문장, 둘째로는 부정접두사 '부-, 비-, 미-, 무-' 등에 의해 파생된 어휘가 쓰인 문장, 셋째로는 '싫다, 어렵다, 거절하다, 반대하다' 등과 같이 부정 의미를 함축하는 용언이 쓰인 문장이다.

부정문의 범위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부정소에 관한 논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결국 부정소의 범위 규정도 엄격히 밝히지 않은 채 '부정소', '부정어', '부정요소' 등의 용어를 사용해 왔으며 범위 규정에 있어서 한국어의 모든 부정 현상을 포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표II-01> 선행 연구에어 제시된 한국어 부정소의 분류 및 범위

연구자	부정소의 분류 및 범위
김석득 (1971)	1. 접두사: 선-, 날-, 무-, 부-..... 2. 없다, 모르다 3. 아니, 못, 말-
김민수 (1973)	1. 거부의 뜻을 나타내는 자의부정 '아니' 2. 불능의 뜻을 나타내는 타의부정 '못' 3. 명령문에서의 '말다' 4. 반의어 개념의 '없다', '모르다' 등
김영근 (1983)	1. 완전부정요소(Complete negative) ① 문장부정요소: '안', '못', '말' ② 성분부정요소 - '非', '不', '未'… 2. 잠재적 부정요소(Covert negative) ① 부정함의동사: 거절하다, 떨어지다. ② 부정반함의동사: 방해하다, 피하다. ③ 부정부분함의동사: 체하다, 의심하다.
배주채 (2020)	부정부사: 안, 못 부정 보조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 부정 본용언: 없다, 모르다, 안하다, 못하다, 말다, 아니다

<표II-01>에서 보듯이 대부분 연구자들이 '안, 못, 아니하다(않다), 못하다,

말다, 아니다' 등을 부정소로 간주하고 있었다. 부정문의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것과 같이 부정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어휘와 상대·반의어인 '없다, 모르다', 그리고 '거절하다, 반대하다, 어렵다' 등 명시적이지 않은 이른바 잠재적 부정소를 과연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소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았다. 왜냐하면 의미적 관점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어휘도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소에 포함할 때, 부정문에 포함될 수 있는 어휘적 부정소를 제한하는 것에서 관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 부정문 여부를 검증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것이 바로 '부정극어'이다. 부정문과 부정극성을 띤 성분, 즉 부정극어[5]와의 공기 여부를 부정문의 성립 조건으로 제기한 것은 임홍빈(1987:552~56)에서이다. 그는 부정문의 정의를 우선적으로 형태적으로 부정소가 삽입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면서도 부정극어와의 공기 현상에 주목하여 '아무도', '한 사람도' 같은 부정극성을 띤 성분과의 공기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통사적으로 부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즉 부정극어와 공기 여부라는 기준에 따르면 '없다, 모르다'가 쓰인 문장을 부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부정접두사나 '반대하다, 거절하다, 싫다' 등이 서술어로 쓰인 문장을 부정문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오숙화(1994)에서도 그간의 부정문에 대한 논의를 참고삼아 통사적 관점과 의미적 관점에서 부정극어의 성립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통사적 조건]

(AⅠ). 두 문장 S와 S'가 있을 때, S'문장이 VP에 부정소를 가지고 있으면 S'문장은 S문장의 통사적 부정문이다.

(AⅡ).'결코', '한 사람도', '아무도' 등과 같은 부정극어와 공기할 수 있으면, 그 문장은 부정문이다.

[의미적 조건]

(B)두 문장 S와 S'가 있을 때, S'문장이 S문장과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놓여 있으

5) '부정극어'라는 용어는 임홍빈(1987)에서 부정문의 형성 조건을 밝혔을 때 사용한 술어인데, 정확히는 '부정 극성을 띤 성분'이라고 서술하였다.

면 S'문장은 S문장의 의미적 부정문이다.

부정문의 성립 조건과 관련하여, 오숙화(1994)에서는 위의 통사적 조건(AⅠ),(AⅡ)와 의미적 조건(B)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통사적 부정문'로 보고, 통사적 조건인 (AⅠ)은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AⅡ)와 의미적 조건(B)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어휘적 부정문'으로 보았다.

(3) 가. 그는 전혀 눈치가 없다.
나. 세상에 전지전능한 사람은 결코 없다.
다. 나는 그를 비난해 본 적이 절대 없다.
라. 그는 영어를 배우는데 도무지 흥미가 없다.
마. 빈자리가 별로 없다.

(4) 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도무지 속셈을 모르겠다.
나. 민호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 이 아이는 철드는 게 늦어서 별로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른다.

(3),(4)은 모두 명시적인 부정소를 갖지 않은 문장이지만 '없다, 모르다'가 의미적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이므로 부정극어를 허가하는데, 이들이 부정극어임을 판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들 부정어가 쓰인 문장을 부정문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없다, 모르다'는 부정극어와 통사론적으로 공기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소에 포함할 수 있다.

(5) 가. 여기는 아무도 없다.
나.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그 제안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한다.
라. *민호는 아무것도 거절했다.

(6) 가. 나는 할 말이 별로 없다.

나. 민호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다. *그 제안은 별로 비현실적이다.
라. *민호는 그 제안을 전혀 거절했다.

(5가, 나)에서 보듯이 부정극성을 띤 '아무도, 아무것도'는 '없다, 모르다'와 자연스러운 공기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5다, 라)에서 '반대하다, 거절하다'와 부정극성을 띤 성분의 호응이 어색하게 느껴져서 비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 의미를 함축하는 어휘들은 '없다, 모르다'와 다른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6)의 사정도 대체로 유사하다. (6가, 나)와 같이 '없다, 모르다'가 '별로, 전혀'와의 호응에는 아무런 이상을 가지지 않는 데에 반해 (6다, 라)의 문장은 올바른 문장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정극어와의 호응 여부를 부정문의 검증 기준으로 삼은 임홍빈(1987), 오숙화(1994)에 따르면 '반대하다, 거절하다'등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어휘와 '불가능하다, 무의미하다'처럼 부정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어휘들을 부정문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구종남(2003)에서 부정극어가 단순히 외형적인 부정소를 요구하지 않고, 즉 형식적인 것이 아닌 의미적으로 부정문을 만드는 요소에 의해 허용됨을 확인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임홍빈(1987), 오숙화(1994)에 따라 의미적으로 긍정문과 양립할 수 있는 문장이면서 동시에 통사적으로 부정소나 부정극어를 필요로 하는 것을 부정문의 성립 조건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부정극어를 허가할 수 있는 '없다, 모르다'를 부정문을 만드는 부정소로 인정하는 데 반해 어휘적, 의미적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어휘(비현실적이다, 불완전하다, 불가능하다, 무관심하다, 다르다, 싫다, 어렵다, 반대한다, 거절하다, 뜻밖이다 등)가 쓰인 문장은 비록 의미적으로 부정을 나타내지만 통사적인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6] 부정문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

6) 김영희(1998)에서는 '불가능하다, 무관심하다' 같은 부정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어휘가 극히 소수의 부정극어만 허가한다는 점에서 부정극어의 진정한 허가자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표면상 이들 어휘가 부정극어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들 어휘들을 부정표현으로 이해하는 원리에 의해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수현(2003)에서도 '반대하다, 거절하다'등 어휘가 표면상 부정의 형태를 드러내 보인다 하더라도, 이들이

(7) 가. 그는 민호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다.
나. 이 일은 저녁까지 다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8) 가. 아이들이 치킨을 여간 좋아합니까?
나. 엄마가 동생을 차마 혼내겠습니까?

(9) 가. 우리 입장에서는 한 치도 양보하기가 어렵다.
나. 민호는 더 이상 먹기를 거절했다.

단 위의 예문(7),(8),(9)에서와 같이 부정극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개별 부정극어가 이러한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는 어휘를 가지는 문장 또는 부정을 나타내는 수사의문문에서 쓰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이처럼 특수하게 개별 부정극어를 허가하는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통사 구조 및 어휘를 통틀어서 부정표현이라 하겠다.

1.2. 부정극어의 정의 및 분류

1.2.1. 한국어 부정극어의 개념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는 부정이나 긍정과 특히 잘 어울리는 성질을 가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때 그 성질을 '극성'라고 하며 극성을 가지는 단어들을 '극어(極語, polarity item)[7]' 라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언어

완벽히 부정의 의미를 수행한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부정문을 구성하는 부정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7) 이환묵(1977)은 처음으로 한국어에서 '극어'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에 의하면 극어는 긍정 문맥이나 부정 문맥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나타나는 어구로서 하나의 관점이나 원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통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어에서 극어가 갖는 몇 가지 통어적 특성을 부정 상승 변형(否定上昇變形) 및 의문 변형(疑問變形)과 관련하여 어떤 공통적 특성을 얻고자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어가 대부분 정도를 나타내는 어구라는 결론을 이끌었으며, 극어가 갖는 분포상의 특성 또한 문장과 관련된 화자의 전제나 화용상의 함의

중의 극어 현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그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II-02> 선행 연구에서 부정극어에 대한 정의

전병쾌 (1984:99)	한국어에서 '아니, 못, 없, 말' 등과 같은 부정소를 반드시 동반하는 어휘나 구가 있으니 이를 부정 극성어(negative polarity item)라고 한다.
박정규 (1996:116)	부정 극성어(negative polarity item)란 용어 그대로 의미적 성격상 부정문과 공기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일련의 부사어이다.
서정수 (1996:983)	부정의 극어란 주로 부정요소하고만 어울려서 부정의 정도를 강화하거나 극대화하는 부사어들을 가리킨다.
김영희 (1998:264)	부정 극성어란 부정 요소가 나타나는 문장에서 부정 요소에 의한 부정의 정도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어휘나 구를 말한다.
이지애 (2002:35)	부정극어란 긍정표현과는 공기하지 못하고 부정문과만 공기하는 극성을 지닌 단어 또는 구를 말한다.
유옥순 (2004:25)	부정극어란 부정적 의미자질[+부정성]을 함의하고 부정소나 부정서술어와 공기관계를 이루어 부정의미를 약화시키거나 강조하여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어휘로 정의한다.

지금까지 부정극어의 정의와 범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으며 용어도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8] 있기는 하지만 연구자들은 대개 분포와 정도성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극어를 규정하고 있었다.

분포 면에서 부정극어는 부정문에서 부정소와 공기관계를 이루며, 정도성 면에서 부정극어는 부정 정도를 극대화하게 표현한다. 하지만 <표II-02>에서 살펴보듯이 연구자들이 부정극어의 정의에 대해 관점의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부정극어의 분포 문제에 대해 김지은(1999)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한국어 부정극어가 반드시 부정문에만 사용되고 긍정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

(conversational implicature)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8) 이환묵(1977)에서는 처음으로 '부정극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 전병쾌(1983)에서는 '부정 극성어'라 하였으며, 또 국어 부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정극어를 '부정 서법 부사' 혹은 '부정요소 호응 부사'로 연구해 왔으며, 장영희(1994)에서 '화식 부사', 이재현(1997)에서 '부정 상황 강조 부사', 채상진(2001)에서 '부정극성 부사'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부정극어'라는 용어와 '부정극성어, 부정 부사'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로 함께 쓰인다고 본다.

하였다. 이지애(2002)에서도 부정극어를 긍정표현과 공기하지 못하고 부정문이나 부정표현과만 공기하는 극성을 지닌 것으로 한정하며 '절대로, 전혀' 등이 긍정문과 공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정극어로 제시되었던 항목들이 실제 출현 양상을 살펴보면 부정문으로 보기가 어려운 긍정 의미를 가진 문장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확실히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전혀' 등 부정극어들이 과연 부정극어인가라는 문제가 쟁점이 된다.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10) 가. 오늘따라 발걸음이 별로 가볍게 느껴진다.
나. 포유류 이전에 있어서 생명은 전혀 자연에 속해 있었다. (SJ-RIKS 코퍼스)
다.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겐 절대로 비밀을 지켜 주십시오.
라. 자네가 그리 생각해 주니 고맙네. (표준국어대사전)

예문(10)은 SJ-RIKS 코퍼스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추출한 용례인데, '별로, 절대로, 전혀, 그리'의 이러한 용법은 개인이나, 연령, 지역 등에 따라 긍정문에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어휘들이 부정극어인지 의문시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부정문 뿐 아니라 긍정문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과연 이들을 부정극어라고 해야 할 것인지는 문제가 된다.

임홍빈(1987:77)에서는 '전혀'가 과연 온전한 의미로 부정극어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전혀'가 어느 정도 부정극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그 일에 전혀 손방이다'와 같은 문장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전혀'의 부정 극성은 어떤 경우 약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서정수(1994)에서는 부정극어가 반드시 부정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일부 부정극어의 경우 부정문이 아닌 긍정문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종남(2003:18)에서도 모든 부정극어의 극성 정도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긍정 문맥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는 부정극어의 극성 정도는 부정문에만 쓰이는 부정극어에 비해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한국어 부정극어들은 그 의미와 관련하여 부정극성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부정극어는 긍정문에서의 사용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그 부정극성이 약해진다.

부정극어들이 긍정문에서 나타나는 쟁점에 대해 배미연(2018)에서는 10개의 부정극어를 중심으로 말뭉치에서 구축된 용례를 활용하여 부정문의 유형에 따라 이들 부정극어의 공기 양상과 긍정문에서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10개 부정극어에는 '결코, 아무도, 별로, 하나도, 조금도' 등이 긍정문과의 공기하는 비율이 0%이므로 가장 전형적인 부정극어로 보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데 반해 '전혀, 도무지, 도저히, 절대로'등이 '부정'과 의미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문맥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므로 배미연(2018)에서 이들 어휘가 통사적 층위에서 부정문을 판정하는 준거로서의 부정극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본고는 한국어 부정극어들이 부정극성이 차이가 있다는 임홍빈(1987), 구종남(2003)에서의 관점에 입각하여 긍정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휘는 엄격히 말해 부정극어가 될 수 없다고 해도 이들 어휘들이 도대체 왜 긍정문에서 나타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게다가 이들 어휘들의 부정극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부정극어들이 꼭 부정문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부정극어는 그 의미의 통사적 변화 혹은 부정극성 정도의 차이와 관련하여 긍정문에서의 사용도 가능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극어의 '극'은 해당 극어가 부정문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긍정문에서 나타나는지의 분포 문제만을 가리키는 상대적 개념으로 보겠다. 만약 '극'이 부정의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극소'나 '극대' 중 하나일 텐데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부정극어의 정의를 참조하면 여기서 부정극어의 '극'은 '극대'를 말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에 따라 부정극어가 모두 부정 정도를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연구에서 '별로'를 부정극어로 인정하였는데 그렇다면 '별로'도 부정문에서 부정의 의미 및 정도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의 상식적 인식 및 사전적 의미와 모순이 된다는 점에서 부정극어가 부정의 정도를 극대화시킨다는 설명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극'이라는 개념을 부정극어의 분포 특성으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논의하였듯이 모든 부정극어가 100% 부정문에만 나타

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정극어는 부정극성이 약함으로 긍정문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부정극어는 주로 부정문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문법적인 어휘 항목이 되었지만, 그것이 부정극어가 반드시 부정문에서만 사용된다는 말은 아니다.

한편, 이재현(1997)에서는 부정극어를 '부정 상황 강조부사'라고 부르며 의미와 강조의 정도에 따라 크게 문장의 부정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진술 내용을 더욱 강조하는 '전혀, 결코, 절대로, 도무지, 도저히, 통, 손톱만큼도, 눈썹하나도'와 같은 '적극적 부정 상황 강조 부사'와 문장이 가지는 부정 의미를 유지시키지만, 부정 진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소극적으로 강조하거나 때로는 약화시키도록 수식하는 '별로, 과히, 좀처럼, 그다지, 여간해서는'와 같은 '소극적 부정 상황 강조부사'로 구분하였다. 유옥순(2004)에서도 한국어 부정극어는 의미 특성에 의하여 부정 서술어와 호응하며 부정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소극적 부정극어'와 반대로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극대화시키는 '적극적 부정극어'로 나눌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11) 가. 동생은 {전혀, 결코, 조금도} 똑똑하지 않다.
나. 김 선생님은 {별로, 좀처럼, 그다지} 화를 내지 않는다.

(11가)에서의 '전혀, 결코, 조금도'는 부정 서술 내용의 정도를 극대적으로 표현하는 데 반해 (11나)에서의 '별로, 좀처럼, 그다지'는 서술 내용의 부정 정도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수식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이것은 한국어 부정극어의 의미적 특성과 관련한 것이다.[9]

이상의 검토와 함께 본고에서는 부정극어의 의미와 특성을 감안하여 분포와 정도성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극어의 개념을 밝히고자 했다. 분포 면에서 부정극어는 주로 부정문에서 부정요소나 부정표현과 공기하며 긍정문에서의 출현이 극히 드문 단어나 구로 한정된다. 정도성 면에서 부정극어는 구문의 부정 정도

9) 한국어 부정극어는 의미적 특성에 따라 부정의 정도를 극대화시키는 '적극적 부정극어'와 부정의 정도를 약화하는 '소극적 부정극어'로 나눌 수 있다.

에 일정한 영향(강화 또는 약화)을 미쳐야 한다고 본다. 부정극어의 분포와 정도성 특성에 대해여 제시한 바와 같이 부정극어의 개념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 의미 자질을 함축하고 부정표현과 공기관계를 이루어 부정의 수식범위 내 나타나는 표현으로서 부정 의미를 강조하여 극대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어휘나 구'

1.2.2. 한국어 부정극어의 분류

기존의 논의에서 연구자들이 형태, 의미, 품사, 생산성 등 여러 측면에서의 특징에 근거하여 부정극어를 유형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1) 형태적 분류

먼저 형태적인 특징에 근거하여 부정극어를 분류한 연구는 시정곤(1997), 이지애(2002), 이수현(2003)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한국어 부정극어를 크게 특수조사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단어형 부정극어'와 특수조사가 결합되는 '구형 부정극어'로 나누었다. 단어형 부정극어는 자체의 의미에 의해 부정극어로 기능하는 반면, 구형 부정극어는 '더 이상, 다시는'을 제외하면 자체의 의미에 의해 부정극어가 되는 대신 화용론적 가정에 의해 부정극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부 구형 부정극어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될 때 긍정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 구종남(2003)에서는 '구형 부정극어'를 다시 아래의 <표II-03>에서처럼 7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부정극어의 형태적 분류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표II-03>와 같다.

<표II-03> 한국어 부정극어의 형태적 분류

단어형 부정극어	품사별로 세분할 수 있음.	전혀, 통, 여간, 도무지, 미처, 이/그다지, 별반, 과히, 별로, 좀처럼, 도저히, 결코, 결단코, 아무도, 당

		최, 차마, 절대로, 별달리 등...
구형 부정극어 (구종남, 2003)	①(제시어)+ 한+(최소)단위어+(도)	동전 한 잎(도), 땡전 한 잎(도), 한 치(도), 한 순간(도), 한 푼(도) 등...
	②(제시어)+하나+도	하나(도), 눈 하나(도), 손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등...
	③(최소)수량어+만큼+도	눈곱만큼도, 손톱만큼도, 티끌만큼도, 털끝만큼도, 조금도 등...
	④최소가치어+만큼+도	발가락의 티눈만큼도, 똥친 막대만큼도 등...
	⑤최소양태어+(도)	꿈쩍(도), 꼼짝달싹(도) 등...
	⑥아무+N+도	아무 데도, 아무 것도
	⑦V+잘+것/데	먹잘 것, 보잘 것, 쓰잘 것 등...
	⑧기타	더 이상, 다시는

2) 의미적 분류

앞에서 부정극어의 정의를 밝혔듯이 한국어 부정극어는 의미 특성에 따라 부정의 정도를 극대화하는 적극적 부정극어와 부정의 정도를 약화하는 소극적 부정극어로 나눌 수 있다. 이재현(1997), 유옥순(2004)은 의미론적 특징에 의해 부정극어의 유형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이다.

(12) 가. 우리 집은 너희 집보다 별로 크지 않다.
나.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그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다.
라. 철수를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다.

(13) 가. 그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뜻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다. 나는 그의 무례한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마.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마라. (표준국어대사전)

위에서 보듯이 (12)에서의 '별로, 그다지, 좀처럼, 그리'와 같은 소극적 부정

극어는 문장 내에서 부정의 의미는 그대로 진술하지만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서술 내용의 부정 정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식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13)에서의 '결코, 도무지, 전혀, 도저히, 절대로' 등 적극적 부정 극어는 서술 내용을 더욱 강조하여 부정 정도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품사적 분류

하기경(2009)에서 품사적 속성에 따라 한국어 부정극어를 품사별로 목록화하였다.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한국어 부정극어의 품사를 정리하여 제시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표II-04> 한국어 부정극어의 품사별 분류(하지경, 2009)

체언형	명사(39)	낯, 대수, 대중, 두말, 두서, 등쌀, 따위, 리, 별수, 별일 등...
	대명사(3)	아무, 아무것, 아무데
	수사(1)	하나도
용언형	동사(39)	개수작하다, 개의하다, 거들떠보다, 거리끼다 등...
	형용사(26)	가당하다, 남부럽다, 녹록하다, 달갑다, 당하다 등...
수식언형	관형사(5)	그까짓, 별, 아무, 아무런, 이만
	부사(59)	결코, 과히, 그다지, 그리, 도대체, 도무지, 도저히, 별로, 아무래도, 아무리, 아예, 여간, 영, 전혀, 절대, 절대로, 조금도, 차마, 통 등...
독립언형	감탄사(2)	아무려면, 아무리
관계언형	조사(5)	-도, -라고는(라곤), -밖에, -치고, -커녕

본고는 형태적 특성(구형/단어형), 품사(부사/명사/관형사/조사), 의미적 특성(적극적 부정 극성/소극적 부정 극성)에 따라 부정극어를 분류하여 부정극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실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형 부정극어 중 문장에서 부사어로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 부정극어'에 주안점을 두며 특히 유의관계를 보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혼동하기가 쉬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를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자 했다.

1.2.3. 한국어 부정극어의 특성

1) 부정극성의 차이

부정극어로 제시되어 온 어휘들의 실제 사용 양상을 보면 긍정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4) 가. 그 일은 전혀 네 소관이다.
나. 물과 공기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별로 가볍게 느껴진다.
라. 자네가 그리 생각해 주니 고맙네.
마. 나는 결코 그 일을 해 내고야 말 거야.

(14)의 예문은 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것인데, 이들 문장들의 수용성에 개인차가 있을지 모르나, 그 안에 쓰인 부정극어들은 위에서처럼 긍정문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에서 부정극어의 개념을 밝혔을 때 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부정극어는 그 분포에 있어서 긍정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부정문에만 나타나는 부정극어에 비해 긍정문에 쓰이는 부정극어의 부정극성이 약한 것으로 본다.[10]

2) 서술어 제약

부정극어라고 해도 모든 부정문맥에서 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사적인 조건을 갖추어도 부정극어가 그 의미적 속성과 관련하여 문장에서 사용될 때 서술어의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부 부정극어는 부정소 '아니다'와 잘 공기하지 못한다.

(15) 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전혀 힘든 일이 아니다.

---

10) 영어의 경우, until, in weeks는 적극적 부정극어, any는 소극적 부정극어인데, 소극적 부정극어는 더 넓은 범위에서 허용된다(Linebarger,1987: 329).

나. 그의 솜씨가 여간 아니다.
다. 이 말은 절대/절대로 헛소문이 아니다.
라.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마. 영어를 능통하게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15)는 '아니다'를 취할 수 있는 부정극어들이다. 부정극어들이 '아니다'와 공기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구별되는 것은 그 의미적 속성에서 기인한다. (15)에서 쓰인 부정극어들은 모두 양태, 빈도 혹은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형용사 수식 제약을 받는 부정극어들은 다음과 같다.

(16) 미처, 차마, 도저히, 아무+N+도, V+잘+것/데 구성, '(제시어)+한+(최소)단위어+(도)'형, (제시어)+하나+(도)'형, '최소가치어+만큼+도'형

(16)에서의 부정극성을 띤 성분들이 형용사 구문에 잘 쓰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동작성에 관여되어 쓰이는 부사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들은 '아니다'와의 공기도 잘 보이지 않는다. 반면, 동사 수식 제약을 나타내는 부정극어도 있다.

(17) 가.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다. 어린 아기가 꼼지락꼼지락 손을 움직이는 모양이 여간 귀엽지 않다.

(18) 가. 오늘은 날씨가 그다지 춥지는 않다.
나. 이 문제는 그다지 간단하지 않다.

부정극어 '여간, 그다지' 등은 동작동사의 수식 제약을 보인다. 범주적으로 이들이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동작동사 서술어를 잘 수식하지 않고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또한 한국어 부정극어별로 그 의미에 따라 서법 제약, 서술어 제약, 주어 제약 등 다른 통사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뒤에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통사적 변별 기제를 밝힐 때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 체면 위협/지킴

한편 앞에서 부정극어의 개념 및 분류를 다루었을 때 밝힌 것처럼 한국어 부정극어는 부정의 정도를 강화하는 적극적 부정극어와 부정의 의미와 정도를 약화하는 소극적 부정극어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부정극어는 화용적으로 사용되는 담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반박, 부인, 반론' 같은 발화 의도와 함께 적극적 부정극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체면을 강하게 손상할 수 있으나 소극적 부정극어를 사용하면 덜 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칭찬, 감사, 축하, 위로'같은 화행에서 적극적 부정극어의 사용은 화자가 사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감정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지킴으로써 더 좋은 발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부정극어는 체면지킴이나 체면 위협을 유발함으로써 인간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정극어를 교육할 때 화용적 특성의 제시도 매우 중요하다.

부정극어는 부정의 정도를 극대화시키거나 약화함으로써 발화수반행위에 따라 화자가 사태에 대한 인식 및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거나 부정 의미를 약화하여 비교적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화용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부정극어의 화용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부정극어가 쓰이는 발화수반행위, 즉 '화행 이론', 그리고 인간관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체면 위협 이론'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부정극어가 사용될 수 있는 맥락 및 발화 상황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화행 분류를 근거로 분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간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정극어는 발화에서 공손을 드러낼 수 있는 장치로서 다른 장치들과 대등하게 다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썰(Searle, 1969: 30)은 말로써 하는 행위, 즉 화행을 의사소통의 최소 단위로 보고 '화행 이론'을 정립하였다. 화행의 분류에 대해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연구를 시작하였고 대표적인 연구로는 오스틴(Austin, 1962), 썰(Searle, 1969), 리치(Leech, 1983) 등이[11] 있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화행의 범주를 살펴보

면 먼저 오스틴(Austin, 1962)에서는 1인칭단수 현재직설법 능동태로 발화수반동사를 판정행위(verdictives), 언약행위(commissives), 행사행위(exercitives), 평서행위(expositives), 행태행위(behabitives)으로 분류하였다. 썰(Searle, 1969)에서는 오스틴의 발화수반동사에 따른 분류는 '동사'와 '행위' 두 가지 개념의 혼동, 범주간의 중복, 분류 기준의 결여, 범주 내의 이질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미흡점을 지적하며 12가지[12]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단언화행(Assertives), 지시화행(Directives), 언약화행(Commissives), 정표화행(Expressives), 선언화행(Declarations)이라는 다섯 가지의 기본 화행 유형을 제시하였다.[13]

썰(Searle, 1969)에서 제시된 5개의 상위 화행 유형을 바탕으로 그 하위 유형들의 행위 조건과 그러한 행위들을 지칭하는 낱말들을 다루는 다른 연구 성과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화행의 분류를 정리한 연구는 박용익(2010)이다.[14]

---

11) 이 밖에도 화행 분류에 관한 연구에는 Fraser(1974), Katz(1977), Vendler(1981)등이 있다. 본 연구는 화행의 분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서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다.

12) 박용익(2010:47)에서는 썰(Searle, 1969)에서 제기한 12가지의 화행 분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하였다.

① 의사소통의 목적의 차이, ② 말과 대상 세계의 지향성의 차이, ③ 발화 수반력이 수행되는 강도 내지는 집중도의 차이, ④ 표현된 심리 상태의 차이, ⑤ 발화와 말할이 그리고 들을이의 이해와 관련된 것 사이의 관계의 차이, ⑥ 말할이와 들을이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 ⑦ 대화에서 다른 화행과 맺고 있는 관계의 차이, ⑧ 발화력 표지에 의한 명제 내용의 차이, ⑨ 사회적 제도가 필요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와의 차이, ⑩ 언제나 화행이어야 하는 행위와 화행일 수는 있지만 다른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 행위 사이의 차이, ⑪ 명시적 이행동사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화행과 그렇지 않은 화행의 차이⑫ 화행이 수행되는 스타일(양식)의 차이

13) 오스틴(Austin, 1962)이 제기한 화행론을 받아들이고 더욱 체계화시킨 썰(Searle, 1969)의 화행론은 언어학을 체계언어학에서 화용언어학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이른바 언어학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므로 정통 화행론으로 여겨져 왔다.

14)

<표> 박용익(2010)에서 정리된 화행의 범주

확언화행	제시적	주장적	주장, 예측, 예언
		전언적	전언, 통보
	반응적	수용적	확인, 긍정, 찬성, 동의, 인정, 시인
		이론적	의의, 이론, 반론, 의혹, 의심
		거부적	부정, 부인, 반박, 반증
	재시자적	고수적	증거, 증명, 단언, 확언

본 연구는 화행의 분류 체계를 다루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기에 박용익(2010)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확언화행, 지시화행, 언약화행, 정표화행을 단순화시켜 발화 의도를 분석 기준으로 삼고 부정극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볼 때 다양한 화행에서 부정극어들이 수행하는 화용적 특성 및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구현정(2004)에서는 한국어에서 공손을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언어 표현이 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말뭉치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부정표현은 공손을 드러내기 위한 언어 장치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것이다. 그에 의하면 부정을 통해 공손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을 칭찬하는 말에 대해 부정함으로써 겸양을 하는 것 혹은 화자 자신에게 유리한 명제를 부정하거나 청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정하는 표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부정표현을 수반하는 부정극어는 공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어 부정극어는 부정소와 호응하여 부정 정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적극적 부정극어는 서술 내용의 부정 정도를 더 강화하고 소극적 부정극

		포기적	철회, 취소
지시화행	구속적 지시	정당한	지시, 주문, 엄명, 규정, 요청, 명령
		부당한	명령, 협박, 강요, 전제 군주적
	비구속적 지시	청자 선호	지도, 충고(힌트, 조언, 권고)
		화자선호	평등적 부탁, 불평등적 부탁
		쌍방선호	요망, 발의, 제안
약속화행	단순언약	화자선호	계획발표, 의지표명
		청자선호	의사표명, 준비표명, 약속, 수락, 선서, 선언, 승낙, 허락, 허용, 양보, 확약
	복합언약	상호이해 합치	약정
		상호이해 불일치	보장, 보증
정표화행	선호감	화자선호	환호, 경탄, 희망, 조롱, 우쭐대기, 비웃음
		쌍방선호	감사, 칭찬, 축하, 호감, 환영, 기원
	혐오감	화자혐오	한탄, 성내기, 불안, 불만토로, 화내기, 빈정대기
		쌍방혐오	사과, 동정, 조문, 걱정

어는 부정의 정도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수식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혀두었다. 다양한 맥락에서 부정극어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명제 내용을 부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손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화용론 층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어서 이를 위해 화용론에서의 체면 및 공손 이론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손 이론은 언어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공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기된 개념으로 체면 원리(Face Theory), 체면 보존 작업(Face-work)[15]과 같은 고프먼(Goffman, 1967)의 체면 이론과 함께 등장하여 레이코프(Lakoff, 1973), 리치(Leech, 1983), 브라운&레빈슨(Brown&Levinson, 1987) 등에 의해 정립되고 체계화되었다.

브라운&레빈슨(1987)에 따르면 체면(face)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개인적 바람을 표현하는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 등을 가리키는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으로 나눌 수 있다. 공손성 전략 중 적극적 공손성과 소극적 공손성이 있다. 적극적 공손성 전략에서는 화자가 청자와의 '공통 토대'와 유대감을 강조하게 된다. 반면에 소극적 공손성은 타인의 소극적 체면을 세워주는 전략이다. 소극적 공손성 책략은 레이코프의 '강요하지 마라'와 '선택권을 주라'에 상응한다. 적극적 공손성이 친밀한 행동이나 농담의 기저에 있다면, 소극적 공손성은 존중과 배려가 그 중심에 있다(사범범, 2018 재인용).

공손은 대인관계의 유지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극어의 실제 사용을 생각해 보면 그 내포적 의미와 관련하여 부정극어는 청자에 대한 존중이나 겸손을 표현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 쓰일 뿐 아니라 대화 상대자 간에 발생하는 체면 위협 행위를 유발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화행 이론' 및 '체면 및 공손

15) 대화 참여자는 자신의 체면을 보존하려는 욕구나 기대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의 체면까지 배려해 줄 의무도 있다. 이렇듯 대화 참여자가 상호간의 체면을 배려하게 되는 것을 '체면 보존 작업(face-work)'이라 한다.

이론'을 바탕으로 부정극어의 화용적 기능을 적극적 체면 지킴/위협, 소극적 체면 지킴/위협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했다.

여기서 일단 예시를 통해 적극적 부정극어와 소극적 부정극어의 화용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9) A: 영희야, 오랜만이다. 지금 이렇게 예뻐진 줄 전혀 몰랐네.
B: 어머, 오늘 언니도 올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너무 보고 싶어.

'전혀'는 대표적인 적극적 부정극어로서 (19)에서 화자A는 '전혀'를 사용하여 자신의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화자 B를 칭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 화자 B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화자A가 온 것에 대해 자신의 '반가움, 기쁨'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능동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적극적 부정극어는 화자가 사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청자의 체면을 지킴으로써 공손을 나타낼 수 있다.

(20) 가. A: 제2언어 학습자들이 문학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B: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학은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전혀 쓸데가 없어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나. A: 왜 남의 제의를 전혀 안 받아들여요?
B: 너무 비현실적이라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19)와 달리, (20)에서처럼 '반박, 지적, 거절' 같은 발화 의도에 따라 '전혀'의 사용은 체면 위협을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으로 손상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극적 부정극어는 발화에서 화자가 사태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 및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함으로써 청자의 체면을 지키거나 손상할 수 있다.

다음은 전형적인 소극적 부정극어인 '별로'의 화용적 특성 및 기능을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21) 가. A: 이 김치 맛이 괜찮으세요?
B: 별로예요.

(21)에서 보인 바와 같이 소극적 부정극어인 '별로'는 발화에서 부정소를 수반하지 않고 직접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별로'는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 및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뻔하다.

(22) 가. A: 나한테 할 말이 있나?
B: 아니,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나. A: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B: 전 영화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잘 안 봐요.

(22)에서와 같이 화자가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정을 드러낼 때 소극적 부정극어의 사용도 청자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으나 적극적 부정극어에 비해 덜 손상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발화 상황에서 적극적 부정극어의 사용은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으로 위협하는 데에 비해 소극적 부정극어는 더 완곡하게 덜 손상하는 방향으로 수식하도록 한다. 즉 청자의 체면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화자는 '별로'와 같은 소극적 부정극어를 사용하여 공손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23) 가. 주인A: 오늘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손님B: 아니에요. 차리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나. A: 많이 힘들겠죠? 도와 주셔서 나무 감사합니다.
B: 어려운 일이 아니라 별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별로'를 사용하여 예문(23가)에서 손님을 초대한 상황에서 차린 것이 많음에도 거짓을 말하여 공손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23나)에서 화자 B는 자신의 노력을 축소하여 겸손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서술 대상의 가치를 축소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줄 때도 소극적 부정극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소극적 부정극어는 공손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완화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한국어 부정극어는 다양한 의미·통사·화요적 특성을 드러내므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들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유의어의 변별이 가능케 한다. 뒤에서 본고의 연구 대상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도출하기 위해 개별 부정극어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선정

2.1.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목록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를 선정하기 전에 일단 어떤 것이 부사 부정극어가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목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한국어에서 어떤 어휘를 부사 부정극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휘의 부정극성에 대한 차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즉 한 어휘가 [+부정성], [+극성]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만으로는 부사 부정극어를 추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부사 부정극어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

부사 부정극어 범주에 관한 연구물이 어느 정도 확보된 시점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부사 부정극어의 범주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유의미하므로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부사 부정극어 목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Ⅱ-05> 선행 연구에 제시된 부사 부정극어 목록

연구자	부사 부정극어	함께
이재현 (1997)	결코, 조금도, 전혀, 하등, 도무지, 도저히, 절대로, 통, 털끝만큼도, 눈썹하나도, 눈곱만큼도, 손톱만큼도, 별로, 좀처럼,	18

	과히, 여간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이지애 (2002)	결코, 결단코, 통, 도통, 차마, 과히, 별로, 숫제, 별반, 그다지, 도무지, 여간, 아예	13
이수현 (2003)	결단코, 결코, 과히, 그다지, 도무지, 도시, 도저히, 도통, 미처, 바이, 별로, 별반, 별양, 비단, 비록, 숫제, 아무리, 아예, 여간, 영, 이루, 이만저만, 일절, 전연, 전혀, 절대, 절대로, 좀처럼, 좀체, 좀체로, 지지리, 차마, 통	33
구종남 (2003)	통, 전혀, 여간, 도무지, 이다지, 그다지, 미처, 별반, -커녕, 차마, -밖에, 도무지, 도통, 절대, 당최, 아무, 아무런, 웬만해서(는), 여간해서(는), 아무도, 결단코, 결코, 좀처럼 도저히, 좀체, 좀체로, 별로, 과히, 별달리, 절대로, 고사하고, 여간내기	32
유옥순 (2004)	별로, 좀처럼, 과히, 그다지, 결코, 조금도, 전혀, 도무지, 도저히, 절대로, 통	11
임유종 (2005)	결코, 과히, 구태여, 그다지, 그리, 당최, 딱히, 도대체, 도무지, 도시(都是), 도저히, 도통, 미처, 바이, 별달리, 별로, 별반, 별양(別樣), 비단, 영, 여간, 이루, 이만저만, 일절, 전연, 전혀, 절대, 절대로, 좀처럼, 좀체, 지지리, 차마, 채, 통	34
하지경 2009	감히, 결코, 과히, 고사하고, 구태여, 그나마, 그다지, 그렇게, 그리, 꼼짝, 끝내, 달리, 당최, 또, 더 이상, 대체, 도대체, 도무지, 도시, 도저히, 도통, 딱히, 무리로, 미처, 바이, 변변히, 별달리, 별로, 별반, 별양, 비단, 숫제, 아무래도, 아무리[16], 안절부절, 아예, 얼씬, 영영, 영, 여간, 옴싹달싹, 옴짝달싹, 이다지, 이렇게, 이만저만, 이루, 일절, 전혀, 전연. 절대로, 절대, 조금도, 좀처럼, 지지리, 좀체, 채, 차마, 통, 천만	59
이원아 (2012)	전혀, 결코, 별로, 그리, 도대체, 아예, 절대로, 도저히, 그다지, 절대, 도무지, 감히, 미처, 채, 좀처럼, 여간, 차마, 영, 영영, 꼼짝, 구태여, 통, 전연, 이루, 도통, 별반, 딱히, 과히, 일절, 좀체, 안절부절, 이만저만, 당최, 변변히, 결단코, 지지리, 별달리, 옴짝달싹	38

16) 하지경(2009)에서는 '아무리'가 부정극어로 사용될 때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의 복문 구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표Ⅱ-0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선행 연구에서 추출된 부사 부정극어 목록에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부정극어를 분류하는 기준, 또는 연구 초점과 연구 방법이 다름에 따라 어떤 어휘가 부정극어가 되는지에 대해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다는 사정 때문이다. 많은 연구에서 명시적인 부사 부정극어의 판단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서 결국 부사 부정극어의 범주를 밝힐 때 부사 부정극어로 볼 수 없는 어휘 항목이 들어 있게 되었고, 부정극어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목록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표Ⅱ-05>에서 제시된 어휘들을 '부사 부정극어'로 봐야 한지, 아니면 단지 부정문에 사용될 수 있는 '부정 부사'로 봐야 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Ⅱ-05>에서 제시된 부정 부사들을 합치면 총 71개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일정한 외적 기준[17]을 적용하여 부정문에 쓰일 수 있는 부정 부사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표Ⅱ-06> 한국어 부정 부사 목록(55개)

감히, 결코, 과히, 구태여, 그나마, 그다지, 그렇게, 그리, 꼼짝, 끝내, 달리, 당최, 또, 대체, 도대체, 도무지, 도시, 도저히, 도통, 딱히, 무리로, 미처, 바이, 변변히, 별달리, 별로, 별반, 별양, 비단, 숫제, 아무래도, 안절부절, 아예, 얼씬, 영영, 영, 여간, 옴짝달싹, 이다지, 이렇게, 이만저만, 이루, 일절, 전혀, 전연. 절대로, 절대, 좀처럼, 지지리, 좀체, 채, 차

17) 부정 부사의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의 연구 대상은 부사 부정극어로 한정하기 때문에 부사인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는 『표준국대사전』 및『부사사전』(손남익,2014)에서 부사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을 부정 부사 목록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털끝만큼도, 웬만해서(는), 여간해서, 여간내기, 하나도, -밖에, -커녕, 아무, 아무런, 아무도, 조금도'와 같이 부사로 보기가 어려운 것들을 배제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아무리, '고사하고'와 같은 경우, 주로 '아무리 N이라도, 아무리 A/V도', 'N은 고사하고' 혹은 'A/V기는 고사하고'의 고정적 형태로 쓰이므로 부정요소와의 결합보다는 고정적 표현을 더 우선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단어로 보기보다는 덩어리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 따라서 이들도 본고의 부정 부사의 목록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또한 '옴싹달싹, 좀체로'의 경우, 전자가 '옴짝달싹'의 잘못이고, 후자는 '좀처럼'의 잘못이기 때문에 목록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마, 통, 천만, 결단코

부사 부정극어의 본질은 부사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엄격히 말하면 부정과 관련이 있는 부사이다. 만약 부정문에만 나타나는 어휘를 부정극어라고 본다면, 부정극어를 명확하게 선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앞에서 다뤘듯이 부정극어이라도 그 다의성 혹은 의미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긍정문에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극어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정극성에 대한 객관적, 명시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어 부정극어 현상은 보다 복잡한 언어 현상임을 감안하면서 오상언(2015:56)에서는 일부 부정극어는 부정문에 쓰이며 긍정문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식논리학의 이분법 대신 다치논리학[18]에 의해서 부정극어 현상에 접근해야 한다고 하며, 부정 부사들의 부정문과 긍정문에서의 사용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해당 부사의 [+부정성]라는 의미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오상언(2015)을 참고하여 부정문에 쓰일 수 있는 부사들의 부정극성을 검증하고 부정극어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18) 형식논리학(Formal Logic)은 사고의 올바른 형식 또는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형식논리학에는 사고의 근본원리로 동일률, 배중률, 그리고 모순률이 있다. 이 3대원리 중 하나인 '배중률'은 어떤 명제가 '참'이 아니었으면 반드시 '거짓'이어야 하는 중간이 없는 관점이다. 즉 모든 언어 현상을 분류할 때 중간의 가능성을 배제시키며 확실한 진리판단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칙으로 언어 현상을 분석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획득한 결론도 실제 언어 현상과 상이하거나 상반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식논리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L.A.Zadeh(1965)라는 학자가 퍼지집합(Fuzzy se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퍼지집합은 이분법적 개념 대신 애매함을 기반으로 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매우 예쁜', '상당히 큰', '두어 개'과 같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값을 원소로 하여 '집합에 속한다',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집합에 거의 속한다'와 '집합에 약간 속한다'의 표현도 가능하다. 이러한 퍼지집합을 바탕으로 퍼지이론이 제기되었는데 퍼지이론은 어떤 현상이 반드시 어떤 집단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2치논리학이 아닌 집단에 속하는 정도를 소속함수(Membership function)로 나타내는 다치논리학을 뒷받침하고 전통의 형식 논리학의 배중률을 진리유사추리로 대체시켰다. 퍼지이론의 출현이 예전에 그 2치 진위(참이거나 거짓)에 의해 판단할 수 없었던 명제들을 참인지 거짓인지가 아닌 종속정도에 근거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언어 현상에 대한 연구가 더욱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다.

다음은 어휘의 실제 사용 양상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 도구인 대규모 코퍼스 분석을 통해 <표Ⅱ-06>에서의 부정 부사들의 부정문과 비부정문에서의 출현 비율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SJ-RIKS 코퍼스에서 수집한 부정 부사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Ⅱ-07> SJ-RIKS 코퍼스에서 부정 부사들의 부정문에서의 사용 비율

부정 부사	부정 빈도수	총 빈도수[19]	부정문 사용 비율	부정 부사	부정 빈도수	총 빈도수	부정문 사용비율
이루	101	104	97.1%	이만저만	15	18	83.3%
감히	192	572	33.6%	이렇게	1523	9693	15.7%
영	109	262	41.6%	그렇게	2012	8046	25.0%
통	115	137	83.9%	달리	213	2105	10.2%
그나마	20	373	5.4%	대체	11	574	1.9%
그리	1063	1297	81.9%	옴짝달싹	5	5	100.0%
끝내	204	618	33.0%	여간	314	329	95.4%
또	1354	17919	7.6%	이다지	1	15	6.6%
도대체	56	987	5.6%	일절	38	53	71.7%
천만	5	23	21.7%	전연	103	159	64.8%
숫제	12	91	13.2%	전혀	2452	2823	86.9%
아예	137	741	18.5%	절대	487	590	82.5%
딱히	47	60	78.3%	절대로	622	674	92.3%
별로	1462	1507	97.0%	지지리	5	9	55.5%
결코	2212	2223	99.5%	좀처럼	268	300	89.3%
과히	65	80	81.3%	좀체	54	62	87.1%
그다지	416	421	98.8%	결단코	81	98	82.7%
구태여	75	172	43.6%	영영	75	137	54.7%
꼼짝	121	123	98.4%	얼씬	8	11	72.7%
도통	72	81	88.8%	안절부절	22	32	68.8%
차마	302	340	88.8%	아무래도	149	675	22.1%
미처	296	349	84.8%	비단	285	320	89.1%
무리로	0	6	0.0%	별양	0	1	0.0%
바이	13	16	81.2%	채	513	589	87.1%
변변히	22	24	91.7%	도무지	477	552	86.4%
별달리	6	6	100.0%	별반	70	76	92.1%
당최	27	47	57.4%	도저히	614	622	98.7%
도시	10	17	58.8%	-	-	-	-

19) 여기서 총 빈도수는 해당 부정 부사가 나타난 모든 용례에서 문장이 불완전 형태이므로 부정

<표Ⅱ-07>은 코퍼스에서 앞서 추출된 55개 부정 부사들의 부정문에서의 사용 횟수와 총 출현 횟수의 비율을 환산한 결과이다. 총 빈도수는 해당 부사가 나타난 모든 문장 유형(부정문, 긍정문, 의문문 등)을 포함해서 수집한 결과이고 부정 빈도수는 해당 부사가 부정문에서 사용된 용례를 추출하여 통계한 것이다. <표Ⅱ-07>에서 보듯이 많은 부정 부사가 부정문에서의 사용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들을 모두 부사 부정극어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부정극어의 범주를 밝히기 위해 부정극어의 개념과 특성에 근거하여 두 가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부정문에서의 사용 빈도가 긍정문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즉 부정문에서의 사용이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판단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기준을 해당 부정 부사가 부정문에서의 사용 빈도 비율이 총 출현 빈도수의 80% 이상을 넘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했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위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혀'의 부정문에서의 사용 횟수(2452회)가 총 출현 횟수(2823회)의 86.9%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부정극어에 관한 모든 선행 연구에서 '전혀'를 부정극어로 보았다는 것을 감안하고, 더불어 부정문의 범위, 부정극어의 부정극성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이 기준을 80%로 정하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따라 '감히, 도대체. 천만, 아예'와 같은 긍정문에서 활발한 사용 양상을 보인 것들을 본고의 부사 부정극어 목록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제기한 부사 부정극어의 두 번째 판단 기준은 부정의 정도에 일정한 영향(강화하거나 약화)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부정극어의 개념과 특성을 밝혔듯이 부정극어는 부정소와 호응하여 부정의 정도를 극대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특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기준을 적용하여 위의 코퍼스 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문에서의 사용 비율이 총 출현 빈도수의 80%를 넘는 부정 부사들은 총29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미처, 채, 변변히, 비단, 꼼짝, 이루, 옴짝달싹'과 같은 7개의 부정

문맥인지 긍정 문맥이지 판단이 어려운 용례, 중복된 용례, 그리고 해당 부사가 문장에서 부사가 아닌 다른 성분으로서 기능하는 용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용례의 총수량을 가리킨다.

부사가 나머지 부사와 다른 문법적 특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이 7개 부정 부사들은 문장에서 쓰일 때 부정의 정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부정의 정도를 그대로 유지시키며 문장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자.

(24) 가. 이 일은 바빠서 미처 의논하지 못했다.
나. 옥수수가 채 익지 않았다.
다. 변변히 인사도 못하고 급히 떠나다.
라. 환경오염은 비단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 그는 한 시간이 넘도록 꼼짝 않고 책만 읽었다.
바. 선생님의 은혜는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렵다.
사. 사상 검열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억압했다.

(24)에서 보듯이 부정문에서의 사용이 활발한 모습을 보여준 부정 부사들 중에서 부정의 정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기보다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어 문장의 의미를 바꾸는 것들이 있다. (24가, 나)에서의 '미처, 채'는 '아직'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데 문장의 부정 정도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을 부정극어로 본다면 사용 빈도와 의미 영역이 더 넓은 '아직'도 부정극어에 포함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부정극어라는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하게 되며 단독적인 문법 항목으로서의 자격도 잃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4다-사)에서의 '변변히, 비단, 꼼짝, 이루, 옴짝달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고의 둘째 부정극어 판단 기준에 맞지 않아서 부정극어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고에서는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Ⅱ-08> 한국어 전체 부사 부정극어 (22개)

그리, 별로, 결코, 과히, 그다지, 도통, 차마, 바이, 별달리, 도저히, 별반, 도무지, 전혀, 절대, 절대로, 좀처럼, 좀체, 결단코, 이만저만, 여간, 영, 통

<표Ⅱ-08>와 같이 본고에서는 부정극어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총 22개의 부사 부정극어를 추출하였다. 이들 부사 부정극어들은 모두 부정문에서의 사용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문맥에서 서술 내용의 부정 정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2.2. 교육용 부사 부정극어의 제시

부사 부정극어를 연구하고 교육할 때의 또 다른 문제는 수많은 부정극어 중에서 어디까지를 교육할지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신력과 신뢰성이 있는 4가지 교육·학습용 어휘 목록을 참고하여 교육용 부사 부정극어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교육·학습용 어휘 목록 추출과 관하여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표Ⅱ-09>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작성된 교육·학습용 어휘 목록[21)]

연구자	단어수	활용 자료	작성 방법
조남호 (2003)	982(1단계) 2,111(2단계) 2,872(3단계)	말뭉치(150만 어절)	빈도+중복도+내성
김광해 (2003)	1,845(1단계) 총 66,771	사전(4)+목록(13)	중복도
김중섭 외(2011)	1,682(초급) 3,007(중급) 6,428(고급)	빈도표(1)+사전(1)+어휘목록(1)+교재+TOPIK	빈도+중복도+내성
강현화 (2014a, 2014b, 2015)[20)]	1,836(초급) 3,855(중급) 4,950(고급)	말뭉치+빈도표2+목록+교재분석+ TOPIK	빈도+중복도+친숙도+범주+내성

20) 강현화(2014a,2014b, 2015)에서는 말뭉치 빈도 조사, 구축한 한국어 교재 및 TOPIK 말뭉치 등 계량적 정보를 적극적 활용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동시 어휘 교육의 전문가와 한국어 교사의 직관, 교사와 학습자의 친숙도 조사와 같이 보다 주관적인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통제

위의 연구들에서는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의 명과 암, 그리고 구성 체계 등을 고스란히 분석하는 동시 어휘 목록 작성의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었다. <표Ⅱ-09>에서 보듯이, 연구자들이 교육 어휘 목록을 작성할 때 대규모 말뭉치, 말뭉치 기반 빈도 표, 한국어 교재 및 TOPIK, 기초 어휘 목록, 기타(사전 표제어 목록)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었다. 비록 이들 연구에서 어휘 목록의 작성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어휘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 순환적이고 재생산적으로 여러 차례의 점증을 거쳐서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참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는 부사 부정극어의 교육 가치 및 교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교육·학습용 어휘 목록을 참고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추출된 부사 부정극어 중 어떤 것이 교육·학습용 어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표Ⅱ-10> 교육·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제시된 부사 부정극어

부정극어	조남호 (2003)[22]			김광해 (2003)		김중섭 외 (2011)[23]			강현화 (2014a,2014b, 2015)	
정보	유무	등급	빈도 순위	유무	등급별	유무	등급	교육 점수	유무	등급별
그리02	O	B	1388	O	1등급	O	중급	97.35	O	고급
별로	O	B	801	O	1등급	O	초급	96.47	O	초급
결코	O	C	752	O	1등급	O	중급	97.52	O	중급
결단코	X	-	-	O	4등급	X	-	-	X	-
과히	X	-	-	O	4등급	X	-	-	X	-
그다지	O	B	2463	O	3등급	O	중급	91.03	O	중급
도통	X	-	-	X	-	X	-	-	X	-
차마	O	C	-	O	2등급	O	중급	84.5	O	중급

하여 숙달도 단계별로 어휘 목록을 확정하였으며, 교재의 주제별 어휘 목록을 추가적으로 정리하여 최종 어휘 목록의 균형성과 실제 교육 현장 적용성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 연구 성과이라고 할 수 있다(김창구, 2021).

21) 더 광범위하게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을 검토한 것은 이희자(2003), 유현경(2009), 서상규(201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표Ⅱ-11>에는 본고의 논의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만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일부 어휘가 누락되었을 수 있음을 미리 지적해 둔다.

바이	X	-	-	X	-	X	-	-	X	-
별달리	X	-	-	X	-	X	-	-	X	-
도저히	O	C	-	O	2등급	O	중급	92.16	O	중급
별반	X	-	-	O	4등급	X	-	-	X	-
도무지02	X	-	-	O	2등급	O	중급	75.25	O	중급
전혀01	O	B	496	O	1급	O	초급	83.32	O	초급
절대05	O	B	3434	O	2등급	O	중급	87.68	O	중급
절대로	O	B	2477	O	2등급	O	중급	76.74	O	중급
좀처럼	X	-	-	O	2등급	O	중급	72.06	O	중급
좀체	X	-	-	X	-	X	-	-	X	중급
이만저만	X	-	-	O	4등급	X	-	-	X	-
여간	O	C	4086	O	4등급	O	중급	81.72	O	중급
영03	O	C	6844	X	-	O	중급	79.16	O	중급
통07	X	-	-	X	-	O	고급	56.49	O	중급

<표Ⅱ-10>에서 보듯이 위의 4 가지 교육·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제시된 부사 부정극어의 범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어휘 목록을 추출할 때 연구자가 활용하는 자료, 범위, 접근법 및 연구 목표 등이 다소 다르다는 사정과 관련이 있기 마련이다. 본고는 빈도, 난이도, 교육 가치를 감안하여 한

22) 조남호(2003)에서는 외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잘 익히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어휘를 선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을 추출하였다.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은 체계적으로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 및 전문가의 판단을 종합하여 총 5965개의 단어로 구성된다. 먼저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에게 어휘 선정을 의뢰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사용할 한국어 학습용 기본 어휘는 5965개로 확정되었다. 학습자의 학습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982개, 2단계는 2111개, 3단계는 2872이다. 전체 5965개가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1단계는 A, 2단계는 B, 3단계는 C로 표시되어 있다.

23) 김중섭 외(2011)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 2단계 개발 보고서>에서는 여러 요소를 중합하여 한국어 어휘 점수를 환산하며 학습용 어휘 목록을 산출하였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자료(강범모·김흥규,2009)의 빈도 조사를 참고하여 40점을 배분하였고, 그 다음은 2차 자료인 학습용 어휘 목록, 학습자 사전(서상규 외, 2004), 구축된 교재 말뭉치, TOPIK 이 네 개의 자료에 출현 여부에 따라 각각 15점과 0점을 부여하였다. 빈도를 중심으로 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매긴 후 이를 척도화하였다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주관적인 방법론으로 객관적 통계방법론의 미비점 보완하여 어휘 등급을 일부 조정하고 최중 한국어 학습용 기본 어휘를 정리하였다.

국어교육을 위한 부사 부정극어를 추출하기 위해 이 4 가지 교육·학습용 어휘 목록 중 3회 이상 출현한 것들을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부사 부정극어로 보겠다. 이는 교육 어휘의 선정 작업과 같이 일종의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 하겠다. 그 결과, '결단코, 과히, 도통, 바이, 별달리, 별반, 좀체, 통, 이만저만'을 제외한 13개의 부사 부정극어가 교육용 부사 부정극어로 확정되었다.

<표Ⅱ-11> 한국어 교육용 부사 부정극어(13개)

그리, 별로, 결코, 그다지, 차마, 도저히, 영도무지, 전혀, 절대, 절대로, 좀처럼, 여간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고는 다섯 가지 기존 교육용 어휘 목록에서 3회 이상 제시된 것을 추출하여 최종 13개의 교육용 부사 부정극어를 도출하였다. 특히 김중섭 외(2011)의 <2011년 국제 통용 한국어 모형 2단계 개발 보고서>에서는 형태, 품사, 의미, 빈도 순위, 학습용 기본 어휘 출현 여부, 교재 말뭉치 출현 여부, 학습자 사전 등재 여부, 토픽 출현 여부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어휘의 교육 점수를 매겼는데, 거기서 얻은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부사 부정극어의 어휘 점수는 배제된 것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부정극어의 판단 기준에 따른 부사 부정극어의 범주를 제시하였고 교육·학습용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교육용 부사 부정극어의 확정을 검토해 보았다. 다음은 상술 논의를 바탕으로 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선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3.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선정 과정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기에 연구 대상 유의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유의 관계를 추출하는 것과 유의어 간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은

유의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어교육에서 유의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논의가 있어 왔다. [24]이어지는 연구인 본고에서는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를 느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를 어떻게 선정하고 변별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 및 교육 정보를 구축하여 부정극어를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에 기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본고의 연구 대상 유의어의 선정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유의어를 선정할 때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문헌 자료의 선택은 아주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부사 부정극어들의 유의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 자료로 일반 한국어 사전과 특수 한국어 사전을 활용할 것이다. 일반 한국어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대규모 사전이므로 양적으로 많은 표제어의 뜻풀이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할 뿐만 아니라 단어의 품사 정보, 의미 관계 정도, 용례, 그리고 일부 유의어 정보들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를 변별하는 데에 유용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특수 한국어 사전의 경우, 한국어의 전체 유의어·반의어가 수록되어 있는 공신력이 있는『비슷한 말 반대말』(김광해, 2000),『(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 2010)을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은 단어마다 유의 관계를 보이는 관련어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한국어 사전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선정의 근거 자료로 잡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를 선정하기 위해서 참고할 문헌 자료는 아래와 같다.

<표Ⅱ-12>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선정의 참고 문헌 자료

24) 선행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어의 동사 유의어(김중섭, 2010; 마릉연, 2016, 2018), 형용사 유의어(윤소영, 2011; 고은정, 2011), 부사 유의어(정도 부사, 시간 부사(최경아,2007; 이혜영, 2012) 등)를 추출하고 변별 기제를 찾아보고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단 전반의 한국어 유의어 교육 방향 문제는 본 연구의 주된 목적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필요한 선에서만 간단히 언급하고 깊이 다루지 않겠다. 유의어 교육의 연구 동향 및 관련 논의는 마릉연(2016:3-7)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전 성질	사전	저자/소속기관
	표준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
일반 한국어 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특수 사전	비슷한 말 · 반대말 사전	김광해 편(2000)
	(넓은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

본 연구의 연구 대상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선정은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하였다. 우선 유의어 사전에서 앞서 추출된 13개의 교육용 부사 부정극어의 유의어로 제시된 것들을 모두 찾아보았다.

<표Ⅱ-13> 유의어 사전에서 제시된 부사 부정극어의 유의어

사전	『비슷한말 반대말 사전』	『(넓은 풀이)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결코	해당 단어가 없음[25]	절대로, 결단코
그리	해당 단어가 없음	그다지
별로	해당 단어가 없음	그다지, 과히, 별반
아예	애당초, 애초부터, 처음부터; 절대로, 절대	아주, 절대, 절대로, 당초, 숫제, 애초
도저히	끝내, 끝끝내, 도대체, 도통, 통, 아무리 해도	도대체, 통, 끝내, 끝끝내, 암만, 도통
그다지	그토록,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 그렇게도, 그렇게; 별로, 그리, 과히	그리, 별로, 그렇게, 그토록, 과히, 그리도
절대	해당 단어가 없음	아예, 절대로, 절대, 맹세코
여간	조금, 보통, 보통으로, 어지간히, 어지간하게; 여북, 오죽	좀, 보통
차마	해당 단어가 없음	해당 단어가 없음 [26]
전혀	조금도, 꿈에도, 도무지, 아주, 온전히, 전연, 생판	아주, 통, 도무지, 전연, 천만, 사뭇, 생판, 온전히, 일절

영	해당 단어가 없음	아주, 사뭇, 당최
절대로	절대, 결단코, 결코, 도무지, 아주, 조금도	결코, 아주, 도무지, 아예, 절대, 결단코, 맹세코
도무지	아주, 전혀; 도대체, 도시	도대체, 세상, 아주, 전혀, 통, 절대로, 좀처럼, 일절, 당최, 도시, 도통
좀처럼	여간해서, 무척, 도무지, 좀체, 좀체로	도무지, 좀체

<표Ⅱ-13>에서 보듯이 유의어 사전에서 '전혀'의 유의어를 찾아보면 1차적으로 '조금도, 꿈에도, 아주, 통, 도무지, 전연, 천만, 사뭇, 생판, 온전히, 일절'을 추출할 수 있다. 이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전혀'의 유의어로 보고, 어디까지 교육하기에 유의미할지 판단하는 것은 한국어 교사와 연구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위의 13개의 부사 부정극어의 모든 유의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들 부정극어 간 서로 유의 관계를 보이며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변별이 어려운 것을 추출하고 그 변별 기제를 밝힌 후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대상 유의어를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먼저, 사전에서 부사 부정극어의 유의어로 제시되는 표현 중 부정극어가 아닌 것들을 배제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부정극어의 개념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할 때 밝혔듯이 부정극어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부정문에서 사용된다는 것이므로 부정극어가 아닌 유의어의 경우, 부정문에서의 쓰임은 부정극어처럼 그리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 의해 보다 쉽게 변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의어 사전에서 '아주, 완전히'등이 '전혀'의 유의어로 제시되어 있는데, '전혀'와 이 두 단어의 변별은 이들 단어들이 쓰이는 문장 유형 및 결합 정보에만 의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전에서 제시된 유의어 중 실제 사용 빈도가 낮은 것 혹은 난도가 높은

25)『비슷한말 반대말 사전』에서 '결코, 그리, 별로, 절대, 차마, 영'의 유의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6)『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에서도 '차마'의 유의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것들을 분석 대상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고는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을 위한 연구로서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그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유의어 사전에 의해 1차적으로 추출한 유의어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하였다.

<표Ⅱ-14> 유의어 사전에 의한 1차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선정

결코-절대로-절대-아예
별로-그다지-그리
도무지-좀처럼-절대로-전혀

유의어 사전에서 의미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사 부정극어들 중 서로 유의관계를 보이며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것들을 추출하면 <표Ⅱ-14>와 같다. 여기서 하나의 예로 추출 과정을 살펴보자면『넓은 풀이』에서 '도무지'의 유의어를 찾으면 '도대체, 세상, 아주, 전혀, 통, 절대로, 좀처럼, 일절, 당최, 도시, 도통'이 나온다. 본고의 부사 부정극어 판단 기준과 유의어 선정 기준에 따르면 '도대체, 세상, 아주'는 부정극어로 볼 수 없는 것들이고 '통, 일절, 당최, 도시, 도통'은 사용 빈도가 낮으므로 꼭 명시적인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단순히 유의어 사전에 의한 것으로는 유의어 선정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본고에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이들 부정극어의 사전 뜻풀이를 살펴봄으로써 2차적으로 부정극어들의 유의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이효정(2016)에서 언급했듯이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은 대규모 한국어 사전에서 하나의 단어를 주석할 때 다른 단어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순환적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유의어의 추출 및 검증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연구로서 선정한 유의어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확인하고 학습자들이 구별이 어려운지 아닌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사전의 뜻풀이에 의해 의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또는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매우 달라서 변별이 쉬운 것으로 판단하면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객관적인 검증 도구로 대규모 한국

어 사전, 한·중대사전, 한·중 부정극어 대조에 관한 선행 연구 등을 활용할 것이다.

<표Ⅱ-15> 한국어 사전에서 부정극어의 의미 기술

부정극어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도무지 02[27]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①아무리 해도 ≒도시, 도통. ②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도시, 도통	①조금도. 전적으로. ②아무리 해 보아도 전혀 ③아무리 하여도. 비슷한 말: 도시02/도통 관련어: 전혀/전연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①아무리 하여도. ②이러하고 저러하고 할 것 없이.
전혀[28]	①(주로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낱말과 함께 쓰여)'도무지', '아주', '완전히'의 뜻을 나타낸다. ≒만만, 전연. ②오직 한 곬으로.=오로지.	①[주로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이어]전적으로. 도무지. 조금도. ②오직. 오로지.	①부정어와 함께 쓰여,'절대로','완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②오직 한 곬으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절대.	[부정의 서술어와 함께 쓰이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비슷한 말: 절대02	①(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2(絶對)'를 좀더 분명하게 이르는 말이다. ②(일부 단어와 함께 쓰여)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좀처럼	①(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와 호응하여)여간하여서는	(주로 '않다, 못하다'와 같은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어)여간해서는.	①'않다', '없다' 따위의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여, 웬만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

	≒좀체	비슷한 말: 좀체/좀처럼	또는 쉽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 ②'어렵다', '힘들다', '드물다'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어지간해서는 어떤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
도저히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여) 아무리 하여도.	아무리 하여도 전혀. 비슷한 말: 차마 관련어: 도무지	(부정어와 함께 쓰여) 아무리 하여도 끝내.

<표Ⅱ-15>에서 보듯이 한국어 사전은 유의어 사전처럼 넓은 범위에서 이들 부사 부정극어들의 유의 관계를 다루지 않았으나 그 의미를 기술할 때 직접 유의어를 활용하거나 따로 제시하고 있다. 부정극어들의 사전에서의 의미 풀이를 살펴보는 것은 1차적으로 유의어 사전에 의해 추출된 유의어들이 어떤 의미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유의어 확정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준국어대사전』같은 대규모 한국어 사전에서 표제어를 주석할 때 유의어를 사용하여 기술하는 순환적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정보도 유의어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김광해(1998)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기술 방식은 순환론적 폐단이 있으므로 단순히 사전의 정의만으로 유의어를 변별하기는 힘들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대규모 한국어 사전을 사용하는 것은 유의어 사전에서 추출된 1차 유의어들이 적당한지를 확인하는 의도에서이다.

사전의 뜻풀이와 용례를 살펴보면 '도무지'의 의미장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27) 앞으로는 '도무지02'가 부사로서의 의미 및 기능을 분석할 때 '도무지'로 표시하겠다.

28) '전혀'는 부사로서 쓰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전혀01(全혀)'의 쓰임으로 '도무지', '아주', '완전히'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02(專혀)'의 쓰임으로 '오직 한 곬으로'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이처럼 부사일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부사 부정극어들을 다의어로 보고 그 유의어와의 차이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있는데, 먼저 '아무리 해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도저히'의 의미 기술과 거의 같아서 의미적 인접성을 보이며, 더불어 '전혀'의 뜻풀이를 보면 '도무지'는 '도저히'에 없는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의 뜻도 포함하고 있고 단순 부정을 나타낼 때 '전혀'의 의미 영역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오히려 유의어 사전에 의해 1차적으로 추출된 '절대로'와 '좀처럼'는 '도무지'와 유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의미 차이가 아주 명확하고 변별이 쉬운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유의어 사전의 유의어 선정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넓은 풀이』에서 제시된 유의어들에는 좁은 의미의 '유의 관계'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유의 관계로 보기가 어려운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 『넓은 풀이』의 유의어 추출은 유현경·강현화(2002)에서 제기하였던 '유사 관계'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29]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전의 뜻풀이에 의해 '도저히, 전혀'는 '도무지'와 유의관계를 보이며 의미 차이를 알 수 없는 데 반해 '좀처럼, 절대로'는 '도무지'와 현저한 의미 차이를 나타내므로 구별이 잘 된다고 판단해서 연구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 이와 같은 절차로 나머지 부정극어들의 사전적 의미 기술을 살펴보았는데, 유의어 사전과 대규모 한국어 사전에 의해 2차적으로 추출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는 다음과 같다.

<표Ⅱ-16> 한국어 사전에 의한 2차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선정

도저히-도무지-전혀
결코-절대로
별로-그다지-그리

한편 송국경(2014)에서는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정

29) 유현경·강현화(2002)에서는 어휘의 유사 관계를 음운적, 형태적, 의미적, 문법적, 화용적 유사 관계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결국 '유사 관계 어휘'란 의미적으로뿐만 아니라 음운적, 통사적, 형태적, 화용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걱정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어휘들의 집합을 말한다.

리하였고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가 중국어와 일대일 대응관계를 이루지 못하며 중국어 대응 표현들이 항상 부정극어로 쓰이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오상언(2015)에서는 한국어 부정극어들이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비슷한 형태와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변별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들 한·중 부정극어 대조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제시하였는데 본고에서 이에 근거하여 2차적으로 추출된 부정극어 유의어들이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는 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선정된 유의어들의 변별이 어려운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표Ⅱ-17> 한·중 사건과 한·중 부정극어 대조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

부정극어	중국어 대응 표현
도무지	怎么也…/一点儿也…; 完全 / 全然 / 根本
전혀	全然 / 完全 / 殊 / 干脆 / 漠然 /总 / 一点儿 / 根本··
좀처럼	十分费劲儿 / 不容易
도저히	无论如何 / 怎么也……
그다지	并不怎么 / 并不 / 并不那么 / 不大 / 不太 / 那样 / 那么
그리	不怎么/ 不那么/ 不大 / 不太 / 那样 / 那么
별로	不怎么 / 不那么 / 不大 / 不太 / 不很
결코	决(不) / 绝对 / 一切
절대	绝 /决 / 绝对 / 千万/ 管保
절대로	绝对 / 管保 / 千万 / 决 / 一定 / 一切

<표Ⅱ-1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무지'의 중국어 대응 표현은 '도저히, 전혀'와 모두 겹치는 의미가 있다. '절대로'는 '도무지'와 의미의 인접성을 보이지 않고 '절대, 결코'와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별로, 그다지, 그리'의 중국어 대응 표현도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은 사전과 모국어에 의해 이들 부정극어의 차이를 구별해 내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상술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최종적으로 '도저히-도무지-전혀', '결코-절대로', '별로-그다지-그리'를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 유의어군의 변별 기제를 찾아보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을 구안하도록 한다.

3.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3.1.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방법

유의어 변별에 앞서 먼저 일관된 변별 기준 및 이론적 접근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가장 전형적인 유의어 변별 방법으로는 교체 검증법(substitution test), 반의 검증법(opposite test), 배열 검증법(arrangement test)[30], 의미성분 분석법(componential analysis method), 결합제약 검증법(selectional restriction & collocation)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울만(Ullmann, 1962), 임지룡(1992:141-143), 봉미경(2005)[31]등이 있다.

교체 검증법(substitution test)은 다양한 문맥에서 유의어를 서로 바꾸어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지 또는 자연스럽게 교체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유의어 간의 공통 의미와 차별 의미를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변별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다(임지룡,1992:142).

(25) 가: 그는 도무지/도저히/전혀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나: 이 음식은 도무지/*도저히/전혀 맛이 없다.

예문(25)에서 '도저히', '도무지', '전혀'를 서로 치환해 봄으로써 어떤 문맥에서 유의관계를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5가)에서 '도저히'를 '도무지, 전혀'로 치환할 수 있으나 (25나)에서 '도저히 맛이 없다'는 비문이 되므로 '도무지, 전혀'와 교체할 수 없다. 이러한 교체 검증을 통해 이 세 부정극어의 유의관계를 검증하는 동시 (25나)처럼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체 검증법은 같은 문맥에서 유의어들의 대치 가능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유의어의 공통 의미와 변별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과의 결합 제약까지 확인할

30) 일부 연구에서는 '치환 검증법', '대립 검증법', '나열 검증법'으로 번역한다.
31) 교체 검증법, 반의 검증법, 배열 검증법은 Ullmann(1962:143-145)과 임지룡(1992:141-143)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이며, 의미성분 분석법과 결합제약검증은 봉미경(2005)에서 제시한 것이다.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거의 모든 유형의 유의어 변별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예문을 하나하나씩 분석하는 일은 비현실적이기에 교체 검증법에만 의존하면 유의어의 변별 및 교수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의어 검증법(opposite test)은 유의어들의 반의어를 이용하여 더 명확하게 유의어의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따뜻하다-온화하다'의 의미 차이는 대응하는 반의어인 '차다-냉랭하다'를 통해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반의관계를 통한 방법에는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뚜렷이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방법은 특히 동사 유의어와 형용사 유의어의 변별에 효과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단어들이 명확한 반의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박재남, 2002:61), 유의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외국인 학습자들이 반의어까지 찾아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배열 검증법(arrangement test)은 의미적 유사성이 모호한 어휘들을 하나의 계열로 배열하여 변별하는 방법이다. 개념적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정도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유의어들을 같은 정도 비교선 위에 나열하게 되면 유의어군 내에서의 위치와 어휘간의 미세한 의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Ullmann, 1962:143; 임지룡, 1992:142). 이 방법은 주로 빈도 부사와 같은 정도성을 지닌 부사나 형용사 유의어 변별에 사용된다.[32]

의미성분 분석법(componential analysis method)도 유의어의 변별에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에서는 주어진 어휘를 여러 가지 의미성분들의 구성체로 보고 이들 의미 성분을 추출해냄으로써 그 차이를 찾아본다.

(26) 가. 버스가 도무지 떠나지 않는다.
　　나. *버스가 도저히 떠나지 않는다.

예문(26가)의 '도무지'는 자연스럽지만 (26나)의 '도저히'는 어색하게 느껴

32) 강현화(2000)에서는 빈도를 나타내는 시간부사들을 '때로< 가끔 < 더러< 이따금 < 때때로 < 간혹 < 간간이 <틈틈이 < 드문드문 <띄엄띄엄 <왕왕 <사이사이 <시시로'의 순서로 배열해 놓은 바가 있다.

지는 이유는 '도저히'가 [+불능부정]을 나타내는 부정극어로서 이 문장의 주어인 '버스'의 [-animate]의 성질과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도무지'는 [+불능부정]뿐만 아니라 [+단순부정]도 나타내므로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의미성분 분석을 통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이 가능하다.

의미성분은 일반적으로 대괄호 [ ]속에 성분을 넣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원적 자질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임지용(1992)과 민현식 외(2019:99)에서 밝혔듯이 성분분석은 어휘 자체의 의미는 물론, 다양한 의미관계를 기술하고 해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33] 유의관계의 경우, 유의어들의 공통된 의미 성분과 변별된 의미성분을 규명하면 유의어의 변별이 더 쉬울 것이다.

결합제약 검증법(selectional restriction & collocation)은 유의어들이 다른 어휘나 문법 요소와 결합하여 문장을 이룰 때 주어진 위치에서 제약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결합하는 어휘의 의미 자질을 드러내는 선택 제약(selectional restriction)과 어휘 항목들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연어 관계(collocation)를 살펴보는 두 가지 세부 기준이 있다

결합제약 검증법은 모든 품사의 유의어 변별에 적용할 수 있으나 품사별로 결합 검증에서 보이는 특성은 다르다. 한국어 부정극어의 경우, 다양한 부정표현과 공기관계를 이루어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에 있어서 부정극어의 결합제약을 살펴보는 것은 효과적일 것이다.

(27) 가. 실내에서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마.
나. ?실내에서 결코 담배를 피우지마.

33) 임지룡(1992:69)에서 의미의 성분분석 방법은 어휘소 자체의 의미 자질 분석뿐 아니라, 다양한 의미관계의 기술과 해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성분분석의 원리를 확장하여 유의관계를 비롯한 여러 의미관계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유의관계, 상하관계, 대립관계, 다의관계, 모순관계, 함진관계, 잉여관계, 변칙관계 등의 의미관계에 있는 어휘소들을 성분분석으로 어떻게 기술하는지를 예로 설명하였다. 특히 유의관계의 경우, 명사 유의어, 동사 유의어, 형용사 유의어, 부사 유의어의 의미 기술 및 변별에 있어 성분분석이라는 방법이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27)에서 보듯이 강한 부정 명령을 나타낼 때 '결코'보다 '절대로'의 사용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절대로'는 '말다'와 호응하여 명령문에 자주 쓰이나 '결코'는 '말다'와의 결합제약을 보인다.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는 다양한 부정표현과 결합할 수 있으나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통사적 변별 기제를 도출할 때 결합제약 검증법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강현화(2001, 2005)에서는 사전을 활용한 방법은 유의어 변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통사적 결합관계 정보의 활용이 유의어 변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같은 유의어군에 속해도 공기하여 쓰이는 어휘는 각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의어를 변별할 때 이러한 통합적 관계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유의어를 통사적 사용 제약으로 변별할 때는 '굳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학습자에게 한국인 화자들이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고정적인 표현들을 제시해주면 모어 화자와 같은 한국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어휘마다 다른 굳은 표현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의어의 변별 기제가 될 수 있다. 문금현(2004)에서도 결합 구성에 따른 의미 변별은 유의어 학습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강현화(2001, 2005), 문금현(2004), 봉미경(2005)과 같은 기존 연구들에서 '결합 구성(결합 양상)', 통합 관계(통합적 정보), '공기 관계'와 같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유의어와 다른 문장 성분의 결합관계를 변별 기제로 제시한다는 본질적인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사적 측면에서 결합관계에 의한 변별 기제 구축은 파팅턴(Partington, 1998)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퍼스를 기반으로 용례색인(concordance) 분석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대규모 코퍼스를 활용하여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통사적 결합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유의어 변별에 있어서 화용적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부정극어의 경우, 구어체인지 문어체인지[34], 격식성이 높은지 낮은지, 화자의 사태에 대한

34) 봉미경(2005:122)에서는 글말과 입말체는 구별하되, 글말체와 격식적 문체, 입말체와 비격식적 문체는 비슷한 정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식 및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중립적인지, 발화에서 쓰일 때 청자의 체면을 손상하는지 아니면 지키는지 등 화용적 정보가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와 같이 유의어를 변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들 방법들은 각기 다른 한계점을 안고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유의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유의어 변별 방법마다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 대상 유의어의 품사 및 특성을 잘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선정된 각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특성에 근거하여 여러 방법을 혼합하여 변별 기제를 추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 절에서 코퍼스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유의어 변별 방법을 활용하여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의미성분, 부정표현과의 결합 양상, 입말, 글말, 장르와 같은 사용역 정보 그리고 발화 상황에서의 화용적 기능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3.2. 유의어 변별 절차 및 자료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는 '도저히-도무지-전혀', '결코-절대로', '별로-그다지-그리'이다. 선정된 유의어군의 변별 기제의 도출은 크게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측면에서 진행하였는데, 의미적 변별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먼저, 어휘의 기본 의미를 알아보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료인 한국어 사전에 의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사전적 의미 풀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 다음 의미성분 분석법을 활용하여 각 부정극어에 내포된 의미성분을 분석함으로써 부정극어의 내포적 의미를 밝히며 유의어의 의미적 변별 기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유의어 교육에 있어서 사전은 가장 기본적인 도구임에 틀림없다. Nation(2018:461)에서 사전은 정보원인 동시에 외국어 학습의 조력자이라고 하며, 사전의 활용은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특히 문맥 추론에 서툰 학습자에게 유용하

다고 강조하였다. 본고에서는 앞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군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이라 함),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라 함,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라 함), 『우리말 큰 사전』(이하 『큰사전』이라 함)과 같이 현재 한국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규모 사전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 유의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어휘의 의미를 밝히는 데 사전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의미성분 분석법이다. 성분분석 접근법은 한 어휘를 여러 의미 성분, 즉 의미 자질의 결합체로 간주하며 어휘의 의미를 더 작은 단위로 분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의미성분의 유형[35]을 다루면서 임지룡(1992)에서는 의미성분 분석은 의미상으로 관련된 어휘소의 의미를 구분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며 어떤 의미 분야의 모든 어휘소가 공유하고 있는 성분을 공통적 성분(common component)이라 하고, 한 분야 안에서 서로 다른 어휘소를 구별해 주는 성분을 시차적 성분(diagnostic component)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선정된 유의어군의 공통적 성분과 시차적 성분을 찾아보기 위해 한국어 부사의 일부 의미 자질을 제시하고 있는 『부사 사전』(손남익, 2014) 및 부정극어의 의미 자질을 분석해보려고 시도한 선행 연구, 그리고 한국어 사전과 코퍼스에서의 용례를 참고할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의어를 변별하는 데에는 의미적 차이뿐만 아니라, 결합관계 제약을 비롯한 다른 통사적 제약을 제시하는 방법도 들 수 있다. 부정소와 호응하여 부정문에 쓰인다는 것은 한국어 부정극어의 가장 큰 특징이므로 연구 대상 부정극어들이 어떤 부정소와 자주 결합하는지 또는 어떤 부정소와 공기할 수 없는지, 혹은 긍정문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및 교육 정보의 구축에 유의미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 유의어의 결합정보 및 사용 맥락을 보여주는 기초자료가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35) 임지룡(1992:60-64)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의미성분의 유형을 공통적 성분(common component)과 시차적 성분(diagnostic component), 분류적 성분(classified component)과 관계적 성분(relational component), 보조적 성분(supplementary component)과 잉여적 성분(redundant component)으로 나누었다.

크고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36]인 SJ-RIKS 코퍼스 확장판[37]을 활용하겠다.

코퍼스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부정극어의 결합 양상을 비롯한 많은 통사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을 교육 자료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코퍼스를 통해 부정극어의 사용 빈도, 부정표현과의 호응 정보, 사용 영역별 분산도, 각 부정극어의 의미항목별 빈도, 긍정문에서 사용 여부 그리고 화용적 정보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부정극어의 교육 내용 및 교육 순서를 정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유의어 변별에는 화용적 정보의 제시도 중요하다. 본고는 위에서 논의하였던 화행 이론, B&L(1987)의 공손 및 체면 이론을 부정극어의 화용 기능의 분석 틀로 수용하고 부정극어의 사용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화용적 교육 정보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러한 정보가 연구 대상 유의어의 변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부정극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코퍼스에서 수집한 용례와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예시를 모아서 부정극어의 화용 정보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한편 SJ-RIKS 코퍼스 확장판은 주로 문어 중심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에 포함되어 있는 국어 구어 형태 분석 말뭉치 또한 수집하였다. 세종 구어 형태 분석 말뭉치는 80만 어절 규모로 일상 대화, 학술 강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38] 본고에서는 이러한 코퍼스 자

---

36) 유의어 변별에 관한 선행 연구들(강현화, 2000; 문금현,2004; 봉미경; 2005)에서 유의어 변별의 정교한 분석에 있어서 말뭉치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 한 바가 있었다.

37) SJ-RIKS 코퍼스 확장판(SJ-RIKS Extension)은 민족문화연구원이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를 바탕으로 구축한 전체 현대 국어 코퍼스를 형태 분석한 주석 코퍼스(annotated corpus)이다. 문어와 구어 테스트 비율은 94:6로 문어 중심이며, 총 116,065,151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김일환, 2015:75, 77 재인용).

38) 21세기 구어 형태 분석 말뭉치에서는 구어를 화면이 있는 방송(TV) 녹화> 전사’, ‘화면이 없는 방송(라디오) 녹음> 전사’, 기타 녹음> 전사, 전자출판물(CD-ROM 등)’과 같이 사용역을 나누었다. 그리고 ‘SJ-RIKS 코퍼스 확장판’에서는 구어를 ‘순구어(전사), 준구어(대본)’으로 사용역을 나누어 있었다(이연주·한정한, 2016: 9).

료에 근거하여 부정극어의 화용적 정보를 구축하고자 한다.

<표Ⅱ-18> 분석 대상 말뭉치 구성

코퍼스	내용		어절 수
SJ-RIKS 코퍼스	문어	소설, 신문, 교양서	116,065,151(문어)/ 10,066,722(구어)
	순구어	전사	
	준구어	대본	
세종 구어 형태 분석 말뭉치	일상대화, 학술 강연		805,646

3.3.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

3.3.1. '도저히-도무지-전혀'의 변별 기제

3.3.1.1. '도저히-도무지-전혀'의 의미적 변별 기제

1) '도저히-도무지-전혀'의 사전 의미 기술

위에서 마련된 분석의 틀에 따라 부정극어 유의어의 의미적 변별 기제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표준』, 『연세』, 『고려』, 『우리말』에서의 '도무지', '도저히', '전혀'의 의미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Ⅱ-19> '도저히', '도무지', '전혀'의 사전 의미 기술

사전	도저히	도무지	전혀
표준 국어 대사전	①(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여)아무리 하여도.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①아무리 해도. ②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1」[全혀](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도무지', '아주', '완전히'의 뜻을 나타낸다. 「2」[專혀]오직 한 곬으로.
연세 한국어	①아무리 하여도 전혀.	①조금도. 전적으로. ②아무리 해 보아도 전	「1」[全혀](주로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이어) 전적으로. 도무지.

사전	관련어:도무지	혀. ③아무리 하여도.	조금도. 2」[專혀]오직. 오로지.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①(부정어와 함께 쓰여) 아무리 하여도 끝내.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①아무리 하여도. ②(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이러하고 저러하고 할 것 없이.	「1」[全혀]부정어와 함께 쓰여, '절대로', '완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 「2」[專혀]오직 한 곬으로.
우리 말샘	①(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여)아무리 하여도.	(주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①아무리 해도. ②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1」[全혀](주로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낱말과 함께 쓰여) '도무지', '아주', '완전히'의 뜻을 나타낸다. 「2」[專혀]오직 한 곬으로.≒오로지

<표Ⅱ-19>의 사전적 의미 기술을 보면 '도무지'의 의미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무리 해도'의 의미는 '도저히'의 의미 기술과 거의 같다는 점에서 의미적 인접성을 보이며, 또 '전혀'의 의미 기술과 유사하게 '도무지'에는 '도저히'에 없는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의 뜻도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 부정을 나타낼 때 '전혀'와 유의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도무지'의 의미장을 중심으로 '도저히-도무지-전혀' 이렇게 세 부정극어를 하나의 유의어군으로 보고 서로 간의 의미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최종적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28) 가. 어제 본 영화는 너무 복잡해서 도무지/도저히 줄거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 그의 무례한 행동을 도무지/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29) 가. 그는 살림에는 도무지/*도저히/전혀 관심이 없으니 무사태평한 사람이야.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한중사전)

나. 그의 얼굴에는 도무지/*도저히/전혀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고려대 한한중사전)

위의 사전의 의미 기술에 따르면 '도무지'와 '도저히'는 모두 부정소와 함께 쓰이어 '아무리 해도'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28)와 같은 문장에서 서로 치환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29)에서 '도무지'를 '도저히'로 치환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 유의관계를 보이더라도 모든 문맥에서 완벽하게 교체하지 않는다.

(30) 가. 그 사실은 소문과 *도무지/전혀 달랐다.
나. *도무지/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31) 가. 이제 배가 ?도무지/?도저히/전혀 아프지 않다.
나. 자유로운 성격의 민호에게 공무원 생활은 도무지/?도저히/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사전의 풀이만으로는 (28),(29),(30),(31)의 문장들에서 이 세 부정극어 간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기가 힘들고, 학습자에게 설명하는 일도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유의어군의 의미적 변별 기제를 찾아내는 데 효과적인 변별 방법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미성분 분석법은 사전의 의미 기술에 나타나는 순환적인 폐점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사전의 정의와 같이 이 방법을 활용하겠다.

2) '도저히-도무지-전혀'의 의미성분 분석

(32) 가. 아이가 우유를 도무지/*도저히 안 먹었다.
나. 길이 막혀서 버스가 도무지/*도저히 가지 않는다.

(32)의 문장에서 '도무지'의 사용이 아무 문제가 없으나 '도저히'를 사용하면 어색하게 들리는데 그 안에 있는 부정소를 바꾸어 보면 자연스럽게 된다.

(33) 가. 아이가 우유를 도무지/도저히 못 먹다.
나. 길이 막혀서 차가 도무지/도저히 갈 수 없다.(못 간다)

이때도 사실 예문(33)에서 주어가 '아이'나 '차'보다는 아래 문장과 같이 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행동주가 되면 더 잘 어울린다.

(34) 가.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자려고 했지만)

나. 이 문제가 어려워서 나는 도저히 못 풀겠다.(풀려고 노력했지만)

(33), (34)에서 보듯이 '도저히'는 '능력'을 부정하는 '못' 또는 '-ㄹ 수 없다'와 함께 쓰여, 의도성을 띤 상황에서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행위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기술한다.

(35) 가. 영이는 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

나. 이 문제를 도저히 못 풀겠어. (이한규, 2001)

예문(35가, 나)에서 '도저히'는 기술하는 상황의 발생은 수행할 주체의 능력 밖에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부정 서술 내용을 강조하게 된다. 여기서 화자가 기술하는 상황이 행위자의 능력 밖에 있다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행위자에게 상황의 실현에 요구되는 능력이 없을 경우와 상황의 결과를 이룰 수행자 자체의 능력은 충분하지만 외부의 조건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35가)의 문장은 철수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 혹은 철수는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지만, 다른 이유(예로 들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혹은 피곤해서 등 객관적인 조건)로 인해 그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도저히'는 사건의 실현에 대한 주체의 의지가 있지만 다른 원인 (주체의 무능력, 외부의 방해 환경의 부적합 등)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이에 근거하여 '도저히'는 [+부정성], [+불능부정]의 의미성분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36) 가. 어제 본 영화는 너무 복잡해서 도무지/도저히 줄거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 민호가 하는 일은 도무지/도저히 김 사장의 마음에 차지 않았다.

(37) 가. 미나는 도무지/*도저히 예쁘지 않다.
나. 이 고추는 도무지/*도저히 맵지 않다. (이기종, 1989)

한편 (36)에서 '도무지'와 '도저히'는 교체할 수 있으나 (37)에서 교체할 수 없는 원인은 두 부정극어는 시차적 성분을 가지기 때문이다. (36)에서처럼 '도저히'와 '도무지'는 공통적으로 불능부정을 나타내는 동시 바람직한 상태가 아님을 강조하는 불만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저히'와 '도무지'는 모두 적극적 부정극어로서 [+적극적 부정성], [+불능부정]이라는 공통적 성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의 사전의 의미 기술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도무지'는 [+전연], [+단순부정]을 나타낼 때도 사용될 수 있다. 실제 사용에서 '도무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섞어져 구분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이한규(2001)에 따르면 '도무지'는 화자가 기술하는 사건/상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낸다. 즉 화자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건/상황을 이루려는 노력의 정도가 화자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었는데도 그 사건/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39] 더불어 『부사 사전(손남익, 20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40] '도무지'에는 [-기대], [-예측]의 의미성분을 지닌다.

(36)의 문장들을 예로 들면, 화자는 '도무지'를 사용함으로써 (36가)에서는, 자신이 영화의 줄거리를 이해하고 싶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자신이 판단하기에,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이해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고, (36나)에서는 사장님이 민호가 하는 일이 마음에 차기를 기대했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

39) 이한규(2001)에서는 '도무지'의 쓰임은 네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1)화자는 자신이 기술하는 사건/상황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하고, (2)그 사건/상황이 일어나도록 실제로 누군가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3)그 사건/상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정도가 충분하다는 화자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4) 화자의 판단과는 달리 그 사건/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도무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40) 『부사 사전』(손남익, 2014)에서 '도무지'는 [-기대], [-예측], [+전연]이라는 의미성분을 가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구하고, 여전히 사장님이 민호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도무지'는 화자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상황을 이루려는 노력의 정도가 화자의 사전 판단만큼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할 때 쓰이어 [-기대], [-예측], [+노력]의 의미성분을 갖고 있다. '도저히'는 단순히 [+불능부정]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도무지'와 달리 그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가 있어야 하는 발화 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38) 가. 도저히 이 문제는 못 풀겠다.
나. 도무지 이 문제는 못 풀었다. (이한규, 2001)

예문(38)에서 문제를 받자마자 그 문제를 자기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으며 풀어볼 시도를 하지 않은 채 (38가)처럼 발화할 수 있다. 그러나 (38나)는 반드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시도)를 한 후에나 쓸 수 있다(이한규,2001). 이에 근거하여 '도무지'와 '도저히'는 [+노력]이라는 시차적 성분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도저히'는 [+불능부정]을 나타낼 때 주체의 무능력이나 외부의 방해 환경의 부적합 등 요인에 주안점을 두며 '상황의 실패 원인/이유'에 대해 변명적으로 진술하려는 의도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도저히'는 [+원인/이유 따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도무지'에는 행위자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루지 못했음을 표현하는 의미 기능 외에도 어떤 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해 따져보지 않는 접근방식으로 부정극어를 이루는 기능이 있다(이기종,1989:185). 따라서 (44)처럼 선행절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서술되는 경우 화자의 한계 상황에 주안점을 둔 다분히 변명적 진술이 요구되는 '도저히'의 사용이 훨씬 자연스럽다.

(39) 자식을 떼어 놓으니까 *도무지/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구나.(이기종 1989)

한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도무지'는 [+전연], [+단순부정]이라는 시차적 성분을 갖고 있으므로 '도저히'와 구별되는 동시 '전혀'와 유의관계를 보이게 된다.

(40) 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는 중국말을 도무지/*도저히 몰랐다.
나. 아내가 잔소리를 하여도 도무지/*도저히 소용이 없다. (金清子, 2016)

(40)에서처럼 '도무지'는 상황 발생 가능성의 희박함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모르는 정도'나 '소용이 없는 정도'를 강조한다. 이처럼 '도무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음만을 표현하고 그 원인에 대해 함축하지 않는 [+단순부정]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전혀'와 교체할 수 있다.

(41) 가. 버스가 도무지 떠나지 않는다.
나. ?버스가 도저히 떠나지지 않는다.
다. ?버스가 전혀 떠나지지 않는다.

(41나)의 문장이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는 '도저히'는 '불능부정'을 강조하는 부정극어인데 여기서 주어인 '버스'가 '어떤 상황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행동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animate]이라는 점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41가)에서 '도무지'는 여기서 '불능부정'이 아닌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도무지'는 '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끝까지'와 같은 부정에 대한 강조의 뜻을 더 가지고 있는데 (41가)에서 그러한 뜻으로 쓰이므로 '도저히'와 다르게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든다. 똑같은 형태의 문장에서 부사만 바꾸었을 때 부자연스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바뀐 부사어의 영향일 것이고, 두 부사어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41다)처럼 '도무지' 대신에 '전혀'를 써도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든다. '전혀'의 의미를 찾아보면 '①「全혀」도무지, 아주, 완전히 ②「專혀」 오로지' 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첫째의 의미로 쓰일 때 실제 사용에 필요한 제약

조건이나 '도무지'와의 차이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하지만 다음의 논의에서 그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42) 가. 성적이 도무지/전혀 오르지 않는다.
나. 친구한테서 도무지/전혀 소식이 없다.

위의 (42)의 문장에서 '도무지'와 '전혀'가 완전히 같은 의미라고 보기가 어렵다. '도무지'에 비해 '전혀'는 서술 내용을 100% 부정하는 것으로 '영'의 상태임을 나타내는 점이 강조된다고 보인다.

(42') 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나. (아무리 보려고 해도) 친구한테서 소식이 없다.

(42'') 가. 성적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나. 친구한테서 조금도 소식이 없다.

(42')는 '도무지'를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고, (42'')는 '전혀'를 '영'의 의미로 해석해서 '하나도, 한 번도, 조금도'로 바꾸어 본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도무지'와 '전혀'이 의미 차이가 보다 명확해진다. '전혀'는 '아무리...(으)려고 해도'라는 노력 여부보다 그 '상태'나 '정도'에 의미의 초점을 둔다. '도무지'는 정도의 심함을 표현할 때 '아무리 해도'와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이 두 가지 해석이 섞여 확실히 구별이 어려울 때가 많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도무지'의 사용 조건으로 누군가의 노력이 전제로 요구되는 것과 달리 '전혀'는 단순히 명제내용을 전칭 부정한다는 점에서 변별이 가능하다.[41] 요컨대 '단순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 '도무지'의 사용은

41) 이한규(2001)에서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누군가의 노력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에 '도무지'가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a) 가. 도무지 맛이 없어.
나. 도무지 예의라고는 없어.

그에 의하면 위의 발화들은 단순히 어떤 음식이 맛이 없고, 어떤 사람이 예의가 없다는 의

행동자의 노력을 요구하는 전제를 요구하였으나 '전혀'는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는 명제내용을 기술할 때 쓰인다. 즉 '전혀'는 [+객관성]의 시차적 성분을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전혀'는 화자의 예측이나 의도와 '완전히' 상반된 경우를 기술할 때에 쓰이기도 한다. 김선희(2002)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전혀'의 이러한 의미 기능을 설명하였다.

(43) 가. 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 전혀 뜻밖의 발견.
다. 비쌀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

(43)에서처럼 '전혀'는 '다르다, 뜻밖이다, 딴판이다, 묘연하다, 엉뚱하다' 등과 같은 부정 의미를 함축하는 어휘와 호응 관계를 이룰 수 있으므로 [+의외성]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도무지'의 경우 이러한 공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뒤에서의 코퍼스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전혀'는 동형이의어(同形異義語)임을 알 수 있다. 사전에서 '전혀'를 「全혀」, 「專혀」의 쓰임으로 기술하고 있다.

(44) 가. 그 일은 전혀 「專혀」 네 소관이다.
나. 그가 유명하게 된 것은 전혀 「專혀」 그 사람의 어머니 덕이라 한다.
다. 사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사는 것은 전혀 「專혀」 아내의 힘이었다. (에듀월드 표준한한중사전)

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단 한번 어떤 음식을 먹어 보고 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의 무례한 행동을 단 한번 보고서, '도무지'가 나타나는 (a가, 나)의 발화를 사용할 수 없다. 예문(a가) 발화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화자가 차려진 음식을 이것저것 맛을 보았지만, 먹을 수 없음을 나타낼 때이다. 이 경우, 여러 음식을 먹어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다는 화자의 판단을 '도무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a나)의 경우는, A라는 사람의 무례한 행동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러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 화자 또는 다른 누군가의 조언이, 화자가 판단하기에, 충분히 있었지만 A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또는 화자가 A의 행동에 대해 처음부터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하였지만, 화자의 기대와는 달리, A의 행동의 무례함이 반복되어 일어났음을 '도무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a)의 발화들이 겉보기에는 단순히 상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노력이 개입되는 상황에서만이 발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한규, 2001:114)

(44)은 사전에서 제시된 용례이다. 여기서 '전혀 「專혀」'는 '오직, 오로지'의 의미로 주로 긍정문에서 쓰인다. 따라서 「全혀」는 부정극어로 볼 수 있으나 「專혀」를 부정극어로 보기는 어렵다.[42]

이상의 논의한 바와 같이 '도무지', '도저히', '전혀'의 공통적 성분과 시차적 성분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Ⅱ-20>와 같다.

<표Ⅱ-20> '도무지', '도저히', '전혀'의 의미성분 분석

의미성분	도저히	도무지	전혀
공통적 성분	[+불능부정]	[+전연], [+단순부정]	
시차적 성분	[+원인/이유따짐]	[-기대], [-예측],[+노력]	[+객관성] [-의외성], [+동형이의성]

3.3.1.2. '도저히-도무지-전혀'의 통사적 변별 기제

SJ-RIKS 코퍼스 확장판에서 각 부정극어의 빈도수는 도저히 969, 도무지 764, 전혀 4,493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Ⅱ-21>에 기술되는 이 세 부정극어의 호응정보의 분석은 코퍼스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각 부정극어의 출현 빈도, 통사적 특성, 호응하는 부정표현의 범위, 그리고 용례가 기술되어 있다.

<표Ⅱ-21> SJ-RIKS 코퍼스 확장판에서 '도저히', '도무지', '전혀'와 부정표현의 결합 양상[43]

부정극어	도저히	도무지	전혀
안	39	35	65

42) 허재영(2002)에서 부정극어가 아닌 '「專혀」'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부정극성어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전혀'의 쓰임을 보면 뒤늦게 생겨난 '「全혀」'가 '오로지, 오직'의 뜻을 나타내는 '「專혀」'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43) '기+형용사'에서 '형용사'는 주로 '어렵다, 힘들다, 싫다, 거북하다, 괴롭다, 민망하다, 참혹하다, 딱하다, 드물다, 무섭다, 아깝다, 부끄럽다'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형용사들은 거의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화자의 소극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이다. 부정함축 어휘에는 '거부하다, 귀찮다, 다르다, 금지하다, 만무하다, 반대하다'와 같은 어휘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있다.

못	17	13	87
-지 않다	82	235	861
못하다	70	25	241
말다	0	0	0
아니다	5	8	146
없다	58	104	1860
-ㄹ 수 없다	624	209	141
모르다	8	44	159
다르다	0	0	568
부정 접두사	38	6	55
기 형용사류	25	12	8
부정함축 어휘	0	18	34
비부정문	0	51	266
수사의문문	0	3	0
확인불가	3	1	2
합계	969	764	4493

<표Ⅱ-21>에서 살펴보듯이 코퍼스에서 '도저히', '도무지', '전혀'는 공기하는 부정표현의 범위 및 빈도가 다소 다르다. '도무지'는 출현 빈도수는 가장 낮지만 호응하는 부정표현의 범위는 '도저히'보다 넓으며 '-지 않다', '-ㄹ 수 없다'와 보다 높은 공기 빈도를 보였다. '도저히'는 '-ㄹ 수 없다' 와의 공기 빈도가 눈에 띄게 높은 반면 다른 부정소와의 공기가 '도무지'처럼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의 경우, '도무지', '도저히' 외의 다른 부정극어와 비교해도 코퍼스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으며 그만큼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코퍼스에서 '전혀'와 '없다, -지 않다'의 공기 빈도는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전혀'가 '다르다'와 많이 공기하는 것도 이 유의어군의 변별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부정함축 어휘]

(45) 가. 학교시험 문제가 수능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해야 된다.

나. 그 겸허하고 얌전하던 일본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들어서부터였다.

다. 그 의미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복수하고는 전혀 다르다.

(46) 가. 더구나 전혀 낯선 곳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불안스러워졌다.

나.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부대끼며 살아왔는지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있어 전혀 색다른 감동을 맛볼 수 있다.

다. 이 점은 농지 제도 전환의 현실적 필요성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 보기 때문이다. (SJ-RIKS 코퍼스 확장판)

SJ-RIKS 코퍼스에서 '도무지, 도저히'는 '다르다'와 공기 양상을 찾을 수 없으나 '전혀'의 경우 [+의외성]의 의미를 나타낼 때 (45)에서처럼 '다르다'와 높은 공기 빈도를 보여준다. 또한 (46)은 '전혀'가 '낯설다, 색다르다, 반대, 별개' 등 부정 함축 어휘와 공기하여 쓰이는 예시이다. 이들 어휘는 모두 '기준이 되는 무엇과 다르다'는 의미를 보이므로 '다르다'와 대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배미연(2018)에서는 '전혀'가 '다르다'와 자주 공기하다가 점점 '다르다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용언과도 공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혀'의 공기 범위가 넓어졌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다.

[긍정문]

(47) 가. 여자 혼자 사는 방에 한 남자가 들어와 누워 있다는 사실이 그녀로서는 도무지 거짓말 같았다.

나. 실제로 기억이 안 나서 못 밝히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밝힐 수 없는 중대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쏭달쏭하다.

다. 지금은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 때에는 도무지 답답하기만 했다.

(48) 가. 포유류 이전에 있어서 생명은 전혀 자연에 속해 있었다.

나. 신문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걱정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땅을 전혀 상품적인 가치로서만 생각한다.

다. 전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문학이 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SJ-RIKS 코퍼스 확장판)

(47), (48)의 문장들도 SJ-RIKS 코퍼스에서 수집한 용례인데, 부정과 관련이 없는 긍정문이지만 '도무지, 전혀'를 허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 문장의 수용성에 반론이 있겠으나 사전에서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47)에서 '도무지'는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48)에서 '전혀'는 동음이의어인 「專혀」의 쓰임으로 '오직, 오로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44] 학습자들이 이러한 예문을 만날 때 문법적 오류라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정극어가 특수 경우에 긍정문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일려주면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 제약]

(49) 가. ?버스가 도저히 떠날 수 없다.
나. ?날씨가 도저히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49)의 예문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원인은 '도저히'가 사건의 실현에 대한 주체의 의지가 있지만 다른 원인(주체의 무능력, 외부의 방해, 환경의 부적합 등)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쓰이기 때문이다. 이때 사건 실현의 의지가 있는 주어는 당연히 [+animate]이 요구되는데 (49가, 나)에서의 '버스'와 '날씨'가 [-animate]를 가지는 무정물 주어이기에 부자연스럽게 들린다. 이에 따라 '불능부정'을 나타낼 때 '도무지'는 '도저히'와 같이 주어 제약을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단순부정'의 의미로 쓰일 때 다음과 같이 서술어 제약이 없음을 알 수 있다.

(50) 가. 이 고추는 도무지/전혀 맵지가 않다.
나. 차가 도무지/전혀 앞으로 갈 수 없다.

---

44) 배미연(2018:211)에서는 '「專혀」'가 동음이의어로 애초부터 부정극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全혀」'의 경우 부정문이 아닌 문장에서도 사용되고, 특히 '뜻밖이다, 별개다, 의외, 문외한'와 같은 '다르다'와 비슷한 어휘 의미를 가지는 체언이나 용언과 공기 양상을 보여 수식의 영향력을 넓히면서 점차 부정극성이 약화되었다고 하였다.

(50)에서처럼 '전혀, 도무지'는 단순부정을 의미할 때 주어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이때 '도무지'의 의미에 따라 주어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서술어 제약]

아래의 말뭉치 용례를 보면 '도저히'는 주로 동작동사와 어울리며 형용사 서술어와 잘 결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51) 가. 이 사과는 도무지/*도저히 달지 않다.
나. 그녀의 눈은 도무지/*도저히 예쁘지 않다.
다. 나의 어린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헤아리기가 불가능한 크기와 무게의 가위눌림을 더 이상은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라. 기술적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지어진 형으로 이를 설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SJ-RIKS 코퍼스 확장판)

'도무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그 원인에 대해 따짐 없이 단순명제 내용을 부정할 수 있는데 (51가, 나)처럼 주어의 성질을 진술할 때 형용사 서술어의 수식이 자연스럽지만 '도저히'는 형용사 수식 제약을 나타낸다. 또한 (51다, 라)에서처럼, '도무지, 도저히'는 '불가능하다'와 같은 부정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형용사성질의 어휘와 공기 할 수 있지만 이런 쓰임은 실제 사용에서 잘 안 쓰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역시 '도저히'는 형용사 서술어 제약을 받는다고 보겠다.

'전혀'의 경우, '전혀'는 구문에서 서술어가 지닌 의미정보를 단순부정하고 '상태부정, 능력부정, 의지부정' 등 다양한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

(52) 가. 이 음식은 전혀 맵지 않다.
나. 그녀는 전혀 예쁘지 않다.

(53) 가. 나는 춤을 전혀 못 춰요.

나. 나는 영어를 전혀 못 한다.

(54) 가. 나는 술을 전혀 안 마신다.
나. 나는 토끼를 전혀 먹지 않는다.

(52)는 상태부정, (53)는 능력부정, (54)는 의지부정인데, 위의 예문에서처럼 '전혀'는 상태부정을 의미할 때는 형용사서술어와 어울리며,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을 나타낼 때 주로 동사서술어와 어울린다.

[서법 제약]

코퍼스 용례 분석 결과 '도무지', '도저히', '전혀'는 모두 명령형, 청유형 서법과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5) 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도무지/도저히/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도무지/도저히/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네!
다.*그의 요구를 도무지/도저히/전혀 거절하지 마라.(말자.)
라.*돈이 없으니까 술을 도무지/도저히/전혀 드시지 마세요.

(55가)는 평서문, (55나)는 감탄문으로 모두 정문이 되지만 (55다, 라)와 같은 명령문, 청유문에서 '도저히', '도무지', 전혀'의 사용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즉, 세 부정극어는 '-지 말라', '-지 말자'와 같은 부정 형태의 명령과 청유형 서법과의 결합에서 제약을 나타낸다.

(56) 가. ?그 컴퓨터를 도무지 고칠 수 없니?
나. 그 컴퓨터를 도저히 고칠 수 없니?
다. 그 컴퓨터를 전혀 고칠 수 없니?

한편, 이한규(2001)에서는 '도무지'를 사용할 때 기술하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의문문의 기능과 모순되어 설명의문문에서 쓰이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설명의문문이란 화자가 자신이 모르는 정

보를 청자로부터 얻기 위해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만약에 '도무지'가 설명의문문에 쓰인다면, 그것은 화자가 자기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청자에게 묻는 셈이다. 따라서 '도무지'가 의문문에서 쓰이기 어렵다. 하지만 (56나, 다)처럼, 어떤 상활을 이루기 위한 행동자의 능력에 대해 청자의 의견을 물을 때 '도저히', '전혀'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도무지'는 의문형 서법 결합할 수 없는데 '도저히, 전혀'는 이러한 제약이 없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시제 제약]

앞에서 '도무지'의 의미성분을 분석했을 때 진술한 바와 같이 '도무지'는 화자가 진술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실제의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는 미래, 또는 가정된 상황을 기술할 때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57) 가. 나는 그 일을 *도무지 하지 않겠다.
나. 나는 그 일을 *도무지 하지 않을 것이다.
다. 나는 그 일을 *도무지 못 할 거야.

(58) 가. 내가 시켰다면, 순이는 그 일을 *도무지 안 했을 거야.
나. 내가 시켰다면, 순이는 그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었을 거야. (이한규, 2001)

(59) 가. 3년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나. 지금은 성수기라 유람선에 빈 객실이 전혀 없다.
다.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겠다. /ㄹ 것이다. /ㄹ 거예요.

(57)의 경우는 그 일을 수행하는 노력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미래 시간이기 때문에 '도무지'를 사용할 수 없는 반면 '도저히'는 화자의 능력의 한계를 단순히 나타냄으로써 미래시제와 잘 어울린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는 예문(58)의 경우도 민호가 그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의 사용이 어색하다. '전혀'의 경우, (59)에

서 보듯이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의 제약을 모두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무지'가 시제 제약을 나타낸다는 점은 이 유의어군의 변별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독용 현상]

(60) 가. A: 운전을 할 줄 아세요?
B: 전혀. (몰라요)
나. A: 나의 이름을 들어봤어요?
B: 전혀. (안 들어봤어요)

(60)에서 부정소가 쓰이지 않았지만, '전혀'를 쓴 것을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라고 하기가 어렵다. '전혀'의 이러한 쓰임에 대해 김경애(2016)에서는 이래의 예시와 같이 논의하였다.

(61) 가. 운전을 할 줄 아세요? / 아주, 별로, 전혀
나. 학교에 자주 결석하세요? / 전혀, 거의, 가끔, 보통 자주 항상
다. 운동을 자주 합니까? / 전혀, 가끔, 일주일에, 3번, 매일
라. 담배를 자주 피웁니까? / 매일, 가끔, 별로, 전혀
마. 길에서 넘어진 적 있어요? / 전혀, 거의, 가끔, 보통, 자주, 항상
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많이, 조금, 별로, 전혀 (김경애. 2016:81)

(61)와 같은 질문에 오른쪽 빗금 옆에 제시된 부사들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대답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전혀'가 부정할 수 있는 것은 '능력, 빈도, 경험, 정도'에 대한 것이 된다. 이때 각각 '전혀'를 써서 부정하는 것은 능력부정, 의지부정, 상태부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전혀'의 의미에 따른 통사·화용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코퍼스 용례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도저히','도무지', '전혀' 각각 다양한 부정표현과의 호응 양상 및 빈도, 긍정문에서의 사용 양상,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서법 제약, 시제 제약, 독용 현상 등 통사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통사적 정보는 부정극어 유의어 간의 변별 기제가 될 수 있으며 부정극어를 교육할 때 학습자에게 필요한 통사적 교육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3.3.1.3. '도저히-도무지-전혀'의 화용적 변별 기제

유의어 교육에 있어 의미, 통사적 정보 이외에도 화용적 층위의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들이 유의어 중에서 어떤 어휘가 글에서 더 많이 쓰이고, 어떤 어휘가 대화에서 더 많이 쓰이는지, 즉 어떤 어휘가 글말체이고 어떤 어휘가 입말체인지를 알면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할 때 어색하지 않은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용법의 차이는 유의어 교육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김선영 · 전후민,2010). 그런데 글말체, 입말체는 절대적 기준으로 나누기가 어렵고, 대신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상대적으로 글말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을 말뭉치의 텍스트 장르별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봉미경, 2005).

또한 유의어를 변별하는 중요한 화용적 기제로 강현화 외(2017)에서는 담화상에서의 격식성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격식성은 언어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격식적 구어와 비격식적 구어으로 구분되며, 박민신(2018)에서는 격식적 구어를 '강의, 강연, 회의, 발표와 같이 청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한 채 정보를 전달하는 말'로, 비격식적 구어를 '일상대화, 전화 통화와 같이 청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말'로 정의하였다.[45] 아래의 코퍼스 분석과 같이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사용 빈도와 사용 범위가 다소 차이나 일정한 경향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구어 말뭉치 자료와 문어 말뭉치 자료를 토대로 부정극어들의 출현 빈도를 비교함으로써 문체성과 격식성의 차이를 유의어의 화용

45) 격식성의 구분에 대해 하영우(2015: 22)에서도“격식적 장면에서의 발화는 공식적인 성격을 띠며 화자는 표준화된 어형을 선택하고 양보적 구성의 발화 내용을 지향하는 반면 비격식적 발화는 친밀한 사이에서 진행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발화 상황으로 다양한 변이형과 구성 양식을 보인다”는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적 변별 기제로 삼고자 한다.

<표Ⅱ-22> '도저히', '도무지', '전혀'가 말뭉치에서의 빈도수

말뭉치		도저히	도무지	전혀
SJ-RIKS 코퍼스 확장판	문어	969	764	4493
	순구어 (전사)	301	39	1546
	준구어 (대본)	110	65	391
세종 구어 형태분석 말뭉치		42	4	221

<표Ⅱ-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어와 구어 자료에서 '전혀'의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입말체, 글말체로 모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반면, '도무지'는 구어에서의 사용 빈도는 현저히 낮으므로 글말체로 볼 수 있다. '도저히'의 경우, 구어에서의 사용이 문어처럼 활발하지 않아서 문어체로 봐야 하겠으나 그 사용 빈도는 '도무지'보다 높다는 점에서 둘이 유사한 의미를 나타낼 때 문어에서든 구어에서든 '도저히'를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순구어와 준구어에서의 사용 빈도에 따라 '전혀'는 격식과 비격식적 상황에서 두루 쓰일 수 있는 데에 반해 '도저히'는 주로 비격식적 상황에서 쓰이고 '도무지'는 주로 격식적 상황에서 쓰인다고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전혀'는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구어에서 격식적 구어와 비격식적 구어로 두루 쓰일 수 있다. '도무지'는 문어체에 더 가깝고 구어에서 주로 강의, 강연, 회의, 발표와 같이 청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한 채 정보를 전달할 때 쓰이므로 격식적 구어로 볼 수 있다. '도저히'의 경우, '도무지'에 비해 구어체에 더 가깝고 주로 일상대화, 전화 통화와 같이 청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며 정보를 전달할 때 쓰이는 비격식적 구어로 쓰일 수 있다. 이처럼 문체와 격식성의 차이는 부정극어 유의어의 화용적 변별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도저히', '도무지', '전혀'가 사용되는 상황 및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발화에서 드러내는 화용적 특성을 살필 것이다.

(62) 가. A: 다름이 아니라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제 집사람이 출산을 했잖습니까? 그런데...(중간 생략) 심사숙고한 끝에 제가 휴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B: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기로서니 남자가 직장을 쉬면서까지 아이를 봐야 한단 말인가? 내가 구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일세. (연세한국어6 : 91)

나. A: 왜 너가 화나. 이 말들 다 네가 한 거 아냐?

B: 오늘 라디오 하면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열 받네! 내가 언제 그랬어?

(63) 가. A: 부탁하기 좀 미안한데요. 수요일 오후에 손님을 마중하러 공항에 나가 주실 수 있어요?

B: 음, 글쎄요. 그날은 좀 어렵겠는데요.

A: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제가 그날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외근을 나갈 수 밖에 없거든요.

B: 어떡하지요? 저도 웬만하면 도와 드릴 텐데 그날은 부산 출장을 가게 돼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화한국어3-2 : 129)

나. A: 치킨 좀 남았는데 왜 더 안 먹어?

B: 배가 너무 불러서 도저히 못 먹어.

'도저히'는 사건의 실현에 대한 주체의 의지가 있지만 다른 원인(주체의 무능력, 외부의 방해 환경의 부적합 등)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할 때 쓰이므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뻔하다. (62),(63)에서는 모두 화자가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며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도저히'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Ⅱ-24>와 같다.

<표Ⅱ-23> '도저히'의 화용적 쓰임

예문	화행 유형	발화 의도	감정	사대에 대한 인식	공손 원리
62	지시/정표	반론하기	불만/화내기	부정적	청자 적극적 체면 위협
63	언약화행	거절하기	미안함	부정적	청자 소극적 체면 위협

(64) 가. A: 내가 한 요리 어때? 맛있어?
B: 맛이 없어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
나. A: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왜 용서 안 해 ?/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나를 용서 안 해?
B: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얼굴에는 도무지 반성의 모습이 안 보여.

(65) 가. A: 내가 금방 한 얘기 알아들을 수 있어?
B: 죄송하지만 말씀하시는 뜻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나. A: 어떤 말 했는지 기억 안나요?
B: 미안해요. 술이 많이 취해서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도무지'는 '도저히'와 동일하게 '불능부정'을 의미할 때 화자의 부정적 인식 및 감정을 드러내며 체면 위협을 한다. 다만 발화에서 다른 언어 장치와 함께 작용하여 체면 위협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거나 소극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64)에서 '도무지'는 '전연'의 의미로 따짐없이 정도의 심함을 강조함으로써 '맛이 없다, 반성의 기색이 없다'라는 서술 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도를 보여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에 비해 (65)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와 같이 화자 A의 체면을 손상하고 있으나 앞에 '죄송하다, 미안하다' 같은 직접적인 사과 또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덧붙임으로써 상대방의 불쾌감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므로 소극적 체면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도저히'가 쓰인 위의 (63)의 경우도 적극적 체면 위협하기보다는 소극적 체면 위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도무지'는 '도저히'와 동일하게 바람직한 상태가 아님을 강조함으

로써 화자의 불만을 표현한다. 이러한 용법은 '도무지, 도저히'의 화자의 생각이나 판단 중에서 긍정적 가치나 상식에 근거한 객관성을 기준으로 상반한 결과를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46]

<표Ⅱ-24> '도무지'의 화용적 쓰임

예문	화행 유행	발화 의도	감정	사태에 대한 인식	공손성 이론
64	확언화행	단언하기	불만/화	부정적	청자 체면 적극적 위협
65	정표화행	사과하기	미안함	부정적	청자 체면 소극적 위협

불능부정을 의미하되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도무지', '도저히'와 달리, '전혀'는 화자의 부정적 태도뿐만 아니라, 긍정적 또는 중립적 태도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66) 가. A: 이거 우리 회사에서 나온 신제품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B: 아니요, 저는 이런 데 전혀 관심 없어요.
나. A: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B: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서 전혀 이해가 안 돼.

(67) 가. A: 수고 많았어요. 짐이 좀 무거웠죠?
B: 무겁기는요. 전혀 안 무거웠어요.
나. A: 나 머리스타일 바꿨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B: 아니. 잘 어울려. 전혀 안 이상한데.

(68) 가. A: 너 커피를 전혀 안 마시는 이유가 뭐야?
B: 나 카페인에 민감해서 마시면 잠이 안와서 못 마셔.
나. A: 운전할 줄 아세요?

46) 김선희(2002)에서는 '부사 부정극어'를 '부정 양태 부사'라고 부르며 화자가 심리적인 태보를 표현하기 위하여 양태 부사가 쓰인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화자의 태도는 부정적, 긍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도무지'와 '도저히'의 양태적 의미에는 어떤 사태가 화자의 주관적 기준이나 생각 등에서 어긋나거나 또는 능력, 방법, 외부의 조건 등이 원인이 될 때 나타나는 불가능성이나 상번성, 미흡함, 또는 불능, 소통의 막힘 등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된다.

B: 전혀 (못 해요).

(66)에서와 같이 '거절, 단언'화행에서 '전혀'는 화자의 '무관심,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보인다. 반면 (67)와 같이 '위로, 칭찬' 의 발화 의도에 따라 '전혀'를 사용한 것은 '괜찮음, 만족함' 등 긍정적인 감정을 보여주며 체면 위협을 최소화하여 적극적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8)의 발화에서 '전혀'는 화자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기보다는 객관적·중립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인다. '전혀'는 사용빈도가 높은 만큼 다양한 화행과 어울려 쓰이어 화자의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며 체면 위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공손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표Ⅱ-25> '전혀'의 화용적 쓰임

예문	화행 유형	발화 의도	감정	사태에 대한 인식	공손성 이론
66	지시화행	거절/질책	무관심/원망	부정적	청자 체면 적극적 위협
67	단언화행	안심시키기/위로	괜찮음/좋아함	긍정적	청자 체면 적극적 지킴
68	지시/확언	질문/단언	-	중립적	-

이상과 같이 '도무지', '도저히', '전혀'의 사용 양상을 본고의 화용적 틀 안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들의 문어와 구어 말뭉치 자료에서의 사용 빈도를 살펴봄으로써 글말체인지, 입말체인지를 판단한 후 화행에서 발화 의도에 따라 사태에 대한 어떤 인식 및 태도를 나타낼 때 부정극어를 사용하는지 또 부정극어의 사용은 체면 위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체면 지킴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화용론적 분석은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에 기여할뿐 아니라 부정극어의 화용적 교육 정보 구축에 필요할 것이다.

'도저히'와 '도무지'는 불능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화자의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적극적 체면 위협을 나타낸다. 하지

만 다른 언어 장치와 함께 쓰이거나 사태의 불가능함을 초래하는 원인을 똑바로 진술하면 체면 위협을 완화하여 소극적 체면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전혀'의 화용적 쓰임을 보면 이 유의어군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도저히, 도무지'와 달리, '전혀'는 화자의 부정적 태도 이외에도 긍정적 또는 중립적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다. 화자가 사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발화에서 '전혀'를 통해 청자에 대한 관심, 배려나 공손을 드러내며 적극적 체면을 유지하는 발화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반면, 화자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발화에서 '전혀'의 사용은 발화수반력을 높이면서 적극적 체면 위협을 할 수 있기도 한다.

3.3.2. '결코-절대로'의 변별 기제

3.3.2.1. '결코-절대로'의 의미적 변별 기제

1) '결코-절대로'의 사전의 의미 기술

'결코-절대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Ⅱ-26> '결코-절대로' 사전에서의 의미 기술

사전	결코	절대로
표준 국어 대사전	①('아니다', '없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①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연세 한국어 사전	①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관련어: 절대로/전연	①[부정의 서술어와 함께 쓰이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비슷한말: 절대2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①(주로 '아니다', '없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	①(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2(絶對)'를 좀더 분명하게 이르는 말이다. ②(일부 단어와 함께 쓰여) 무슨 일이 있

	떠한 경우라도.	어도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절대2(絶對)'를 좀더 분명하게 이르는 말이다.
우리말 샘	①('아니다', '없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①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표Ⅱ-26>에서 보듯이 『고려대사전』을 제외한 다른 세 사전에서는 '결코'의 의미를 기술할 때 모두 '절대로'를 사용하고 있다. 사전에서 '결코'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절대로'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라고 하여 이 둘의 의미 차이를 알 수 없게 제시해 놓고 있다. 이러한 의미 기술은 '결코'와 '절대로'의 변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니 다음은 의미성분분석을 통해 이 유의어 쌍의 의미 차이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2) '결코-절대로'의 의미성분 부석

(69) 가. 김 선생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다. 컴퓨터 조립하는 것에는 결코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
라. 돈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69)는 모두 사전에서 추출된 예문인데 여기서 쓰이는 '결코'를 어떻게 이해할지는 '결코'의 의미성분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겠다. '결단코'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결코'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로 해석해 놓았고, '결단'이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함'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47] 그렇다면 (69)의 문장들의 서술 내용에 대해 결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단언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주어와 화자를 혼동해서 해석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69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돈은 만능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주체가 그 문장의 주어인 '돈'이라고 보는 것은 무

47)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였다.

리한 일이다. '돈은 만능이 아니다'라는 명제 내용을 단언하는 주체는 화자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결코'는 문장 서술 내용에 대한 화자의 단언을 나타낼 때 쓰이는 부정극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하여 '결코'는 [+단언], [+확신], [+화자 우세성·주관성], [+의지]라는 성분을 지닌다고 본다.

(69') 가. 그가 김 선생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다. 컴퓨터 조립하는 것에는 결코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라. 돈은 결코 만능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69)의 문장을 (69')와 같은 내포문으로 전환한 후 문장이 여전히 성립되는 것은 '결코'가 술어에 대한 주어의 단언이라기보다는 문장 전체에 대한 화자의 단언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의어 사전과 사전의 정의를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듯 화자의 서술 명제에 대한 단언을 나타내는 '결코'는 '절대로'와 의미적으로 중첩되어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매우 허다하다. 예컨대 (69)와 같은 문맥에서 '결코'와 '절대로'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69'') 가. 김 선생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
다. 컴퓨터 조립하는 것에는 절대로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
라. 돈은 절대로 만능이 아니다.

(69'')에서 알 수 있듯이 '절대로'는 '결코'와 같이 [+확신], [+의지]라는 공통적 의미성분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69'')은 화자의 단언에 의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 서술의 정도를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절대로'를 사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잊지 않는 태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태도', '손이 가지 않는 정도', '만능이 아닌 정도'가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절대'는 "①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함; ② 비교되거나 맞설 만한 것이 없음."의 의미로 쓰인다. 이에 따라 '절대로'는 서술 내용이 상대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최고의 부정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즉, '절대로'가 쓰일 때는 서술 내용의 부정 정도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절대로'는 적극적 부정극어이므로 그 정도는 물론 가장 강한 '극'의 상태까지 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사용에서 화자가 부정의 서술 내용을 단정하여 말하는 것이 부정 정도를 최대화하여 강조하는 것과 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코-절대로' 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래의 예문에서 그 의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70) 가. 독서실에서 절대로 소리 내지마.
나.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마.
다.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절대로 문 열어 주지 마라.

(71) 가. *독서실에서 결코 소리 내지마.
나. *공공장소에서 결코 담배를 피우지마.
다. ?모르는 사람이 오면 결코 문 열어 주지 마라.

(70)와 (71)에서 보듯이 서술 내용을 단언할 수 없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명령문에서 '절대로'의 사용은 훨씬 더 자연스럽다. 명령문에서는 행동을 얼마나 강하게 명령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서술 내용, 진술에 대한 단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때에도 (71가, 나)보다 (71다, 라) 다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71다, 라)의 발화 문맥이 (71가, 나)에 비해 직접적 금지라기보다 교훈적 권계에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직접 어떤 행위를 강하게 금지하는 경우에는 '결코'에 비해 '절대로'의 사용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즉 '절대로'는 [+금지], [+권계], [-허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결코'와 변별된다.

남영신(2005)에서 최근 들어 '절대로'가 원래의 의미에서 좀 벗어나고 그 의미를 확장하여 '무조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하며, 구문 상 '결단코'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절대로'는 부정 서술의 강도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

라고 보며 화자가 자신의 발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성이 가장 강한 '절대로'를 선호한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정영교(2011)에서도 부정을 의미하는 '결코'와 '절대로'는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더라도 '절대로'의 부정성이 더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72) 가. 그 원인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나. 결코 그 원인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다. 절대로 그 원인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72)의 문장을 위와 같은 의미성분 분석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면 세 문장의 실제 서술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 (72가)는 '단언하건대 그 원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라.'는 뜻이고, (72나)는 '그 원인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는 행동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뜻이다.

(73) 가. 절대/절대로 뜬소문을 믿지 마라.
나. 절대 금연, 절대 강자, 절대 진리, 절대 감속, 절대 권력, 절대 자유,

한편, '절대'와 '절대로'는 부사어로 쓰일 때 의미와 용법 차이가 없겠으나 '절대'는 명사의 성격도 띠고 있어서 (73나)처럼 '절대+명사'의 꼴로 쓰이어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하거나 혹은, 비교하거나 상대되어 맞설 만한 것이 없음"을 뜻할 수 있고, 이때 '절대로'로 바꿔 쓸 수 없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구어에서 '절대'가 더 많이 사용되고 문어에서 '절대로'가 주로 사용된다는 점은 뒤에서의 코퍼스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코'와 '절대로'의 의미성분을 정리하면 <표Ⅱ-28>와 같다.

<표Ⅱ-27> '결코-절대로'의 의미성분 분석

의미성분	결코	절대로
공통적 성분	[+적극적 부정성], [+확신], [+의지]	
시차적 성분	[+단언], [+화자	[+무조건]

	우세성 · 주관성]	[+금지], [+권계], [-허용]

3.3.2.2. '결코-절대로'의 통사적 변별 기제

SJ-RIKS 코퍼스 확장판을 검색하여 추출한 '결코'와 '절대로'의 용례 분석 결과, 두 부정극어의 다양한 부정표현와의 결합 빈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Ⅱ-28> SJ-RIKS 코퍼스 확장판에서 '결코', '절대로'와 부정표현의 결합 양상

호응 정보	결코	절대로
안	68	157
못	5	26
-지 않다	1141	278
못하다	142	43
말다	6	52
아니다	1138	83
없다	157	3
-ㄹ 수 없다	557	182
모르다	0	12
부정 접두사	0	22
기 형용사류	3	2
부정함축 어휘	0	9
비부정문	0	37
수사의문문	0	0
확인 불가	2	0
합계	3219	906

코퍼스를 중심으로 '결코', '절대로'와 부정표현의 공기 양상 및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결코'의 총 출현 빈도가 더 높지만 부정표현 호응 범위는 '절대로'보다 제한적인 편이다. '절대로'는 다양한 부정표현과 공기 양상을 보이며 긍정문에서의 사용도 비교적 활발하다. 이로 인해 배미연(2018)에서 '절대로'와 같은 긍정문에서 나타나는 부정극어는 통사론에서 부정문을 판정하는 근거로서의 부정극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부정극어들이 긍정문에 쓰일 수 있다는 논의를 하였고, 따라서 부정극어가 긍정문에서의 쓰임을 유의어 간의 변별 기제로 보겠다.

코퍼스에서 '결코'는 '-지 않다, 아니다'와 각각 1141, 1138번으로 비슷한 공

기 빈도를 나타내며 이 두 가지 부정소와의 공기 수를 합치면 전체 출현빈도의 70%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결코'가 '-지 않겠다, -지 않을 것이다'와 공기하여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거나 '결코...아니다'라는 공기 양상으로 단언적으로 화자의 확신을 표현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절대로'는 '-지 않다'와 가장 많이 공기하며 '절대로...-ㄹ 수 없다, 절대로...안 된다'와 같은 공기 양상도 많이 보인다. 또한, '절대로'가 '말다'와 많이 공기하는 것은 다른 부사 부정극어와의 변별적 기제가 된다.

다음은 구체적인 용례를 살펴보고 이 유의어 쌍의 다른 통사적 특성 및 변별 기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긍정문]

(74) 가. 속이 심하게 쓰릴 때는 신 음식은 절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나. 그러나 꽃과 향기를 즐기고자 할 때는 절대로 포기나누기를 삼가고, 소담스럽게 가꾸어야 한다.
다. 시체를 청주까지 끌고 내려간다는 데에는 절대로 반대하였다.

(75) 가. 전갈에게 공격을 충동시키려면 굶주림이라는 자극이 절대로 필요하다.
나. 노화기의 정신건강에 절대로 필요한 요소들이다.
다. 학교에서는 절대로 전쟁이나 국가이데올로기 교육이 배제돼야 한다. (SJ-RIKS 코퍼스 확장판)

(74)에서 보듯이 '절대로'는 '피하다, 삼가다, 반대하다'와 같은 함축적으로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와 호응 양상을 보인다. 또한 '절대로'가 긍정문에서 쓰이는 것은 주목된다. (75)의 문장은 말뭉치에서 수집한 용례이다. 이들 문장들을 정문으로 보는지, 어색한 문장으로 보는지, 아니면 비문으로 보는지의 판단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절대로'는 부정문에만 쓰이는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75)의 긍정문에서의 사용은 개인의 문법적 오류라고 보기 쉽다. 하지만 말뭉치뿐 아니라 사전에서도 이러한 '절대로'의 사용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법적 오류로 보아 넘길 수 없게 된다.

『고려대사전』에서도 '절대로'의 이러한 이중적 특성[48]을 구분하여 제시해 놓고 있다. 이로써 '절대로'의 긍정문에서의 사용은 우연이나 개인의 문법적 오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Ⅱ-29> 『고려대사전』에서 '절대로'의 의미 기술

단어	뜻풀이	예문
절대로	① (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 나는 새해부터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 당신 의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② (일부 단어와 함께 쓰여)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 저희 사업장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 이 사실은 절대로 비밀에 부쳐야 합니다. ·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을 만하다. · 환자는 절대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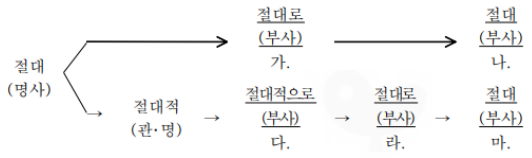
『고려대사전』에서 제시된 의미 풀이와 예문을 통해 '절대로'는 긍정문에서의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윤(2013: 268-269)에서 부정극어로 인식되어 온 '절대로'가 어떻게 긍정문에서 사용되는가, 그리고 긍정문에 쓰일 때 비문으로서의 판단에 왜 개인차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절대로'는 '절대'에 부사격조사 '-로'가 붙어 파생되었다고 간주할 때 긍정문에서의 쓰임이 어색하지만 이를 '절대적'에 부사격조사 '-으로'가 붙어 파생된 '절대적으로'의 축약형태로 보면 긍정문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최윤(2013)은 '절대로'의 의미 구조를 두 갈래로 나누고 이러한 상이한 의미 구조[49]에 의해 부정극어로서의 '절대로'와 긍정

48) '이중적 특성'이란 부정극어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문에서도 나타나는 '절대로'의 의미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49) 최윤(2013)에서는 '절대'의 의미 구조를 다음과 같이 두 갈래로 구분하였다.

[그림] '절대'의 의미 구조(최윤, 2013)



문에서 나타나는 '절대로'가 담당하는 의미 기능이 다르나 언어생활에서는 동일한 형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절대로'가 긍정문에서 나타나는 것을 오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의 축약형태로 보는 관점의 타당성을 예시를 통해 논증하였다.[50]

상술 논의를 정리하면 '절대로'가 형태론에서의 이중적 특성 때문에 부정함축어휘 또는 긍정문에서의 사용 양상을 보이는 것은 '결코'와 차별화된다.

[서법 제약]

아래의 예문으로 '결코-절대로'의 서법 제약을 살펴보도록 한다.

(76) 가. 양심에 걸리는 일을 결코,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 양심에 걸리는 일을 결코, 절대로 하지 않겠다!
다. 양심에 걸리는 일을 ?결코/?절대로 못하니?
라. 양심에 걸리는 일을 ?결코/절대로 하지 마라.
마. 양심에 걸리는 일을 ?결코/절대로 하지 말자.

이러한 의미 구조에 의해 긍정문에서 허가하는 '절대'는 (마)로 보고, '절대로'는 (라)로 볼 수 있다. 즉, '절대로'를 '절대적'에 부사격조사 '-으로'가 붙어 파생된 '절대적으로'의 축약형태로 보면 왜 긍정문에서 사용되는가라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긍정문에서 사용되는 '절대로'의 비문으로서의 판단에 개인차가 있는 원인은 바로 위의 (가)와 (라)는 형태가 같지만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긍정문에서 '절대로'라는 형태를 수용했을 때, 그것을 (가)로 인식한다면 비문이라고 판단할 것이며, (라)로 인식한다면 정문으로 판단할 것이다.

50) 최윤(2013)에서는 '적으로'형에서 '적'생략의 가능성을 다음의 예를 통해 보여주었다.

<표> '적으로'형에서 '-적' 생략의 가능성

'-적으로'형	'-적'생략형	예문
필수적으로	필수로	국어는 필수적으로/필수로 해야지.
대체적으로	대체로	이 식당은 대체적으로/대체로 음식 맛이 짜.
실제적으로	실제로	그건 실제적으로/실제로 문제가 된다.
주도적으로	주도로	네가 주도적으로/주도로 해라.

(76가)는 평서문, (76나)는 감탄문으로 여기서 '결코'와 '절대로'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76다)의 의문문에서 '결코, 절대로'의 사용은 수용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76라, 마)와 같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결코'의 사용은 좀 어색하게 들리지만 '절대로'의 사용은 아주 자연스럽다.

(77) 가. 그 컴퓨터를 ?결코/?절대로 고칠 수 없어요?
나. 이 일은 결코/절대로 불가능하지?
다. 이것은 전혀 결코/절대로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78) 가. ?민호는 결코 이 일을 못 할 것 같다.
나. ?돈은 절대로 만능이 아닌 것 같다.

(79) 가. ?내일은 황사가 결코/절대로 오지 않겠다.
나.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결코/절대로 도착하지 않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듯이[51] '결코'와 '절대로'는 화자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서술 내용에 대해 미리 판단을 내려 단정적으로 말할 때 쓰이는 것이므로 불확실한 것을 청자에게 질문하여 그 해답을 요구하는 (77가)와 같은 일반의문문에서 쓰이면 어색하게 들린다. 다만 (77나, 다)에서처럼 어떤 사실을 알고 그것을 확인하는 이른바 '확인의문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에는 화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목적으로 '지요/죠' 등 어미를 선택한다. 같은 이유로 (78),(79)와 같은 서술 내용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않을 때 사용되는 추측 양태 표현인 '-ㄴ/ㄹ 것 같다', '- ㄹ 것이다' 구문에서도 '결코'와 '절대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80) 가. *결코/절대로 사진을 찍지 마세요.
나. *결코/절대로 진열품에 손을 대지 마시오.
다. *결코/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말자.

---

51) 이한규(2001)와 김선희(2002)에서 '결코'와 '절대로'는 일반의문문과 '-ㄴ/ㄹ 것 같다'구문에서 잘 쓰이지 못함을 주장한 바 있었다.

또한 (80)와 같은 명령문, 청유문에서 '절대로'는 제약을 나타내지 않지만 '결코'는 '말다' 부정문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52]

상술한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코퍼스 분석에 드러나는 것과 같이 '절대로'는 그 이중적 특성 때문에 긍정문에서의 사용 양상을 보이나 '결코'는 부정표현과의 호응 범위가 더 좁으며 긍정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결코'와 '절대로'는 의미의 유사성이 매우 큰 만큼 통사적 특성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두 부정극어는 모두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시제 제약, 선어말어미 제약을 나타내지 않는다.[53]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유의어 쌍은 그 의미자질로 인해 의문문 제약과 추측법 제약을 받아서 일반의문문과 추측 의미의 구문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3.3.2.3. '결코-절대로'의 화용적 변별 기제

<표Ⅱ-30> '결코', '절대로', '절대'의 말뭉치에서의 빈도수 비교

말뭉치		결코	절대로	절대
SJ-RIKS 코퍼스 확장판	문어	3219	908	571
	순구어 (전사)	186	337	527
	준구어 (대본)	128	167	244
세종 구어 형태 분석 말뭉치		15	45	154

<표Ⅱ-30>에서 보듯이, 문어 말뭉치 자료에서 '결코'의 사용 빈도가 '절대로'보다 높지만 구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에 따라 '결코'가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로 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표에서 '결코'가 순구어에서의 출현 빈도가 준구어에 비해 높지만 문어 자료에서의 높은 사용 빈도

52) 코퍼스에서 '결코'가 '말다'와의 공기 양상도 보이지만 그것은 모어 화자들이 두 부정극어를 같은 의미로 여겨 변별없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53) '결코'와 '절대로'는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시제 제약, 선어말어미 제약을 받지 않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예문으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뒤에서의 모어 화자 이해 양상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결코'가 주로 격식성이 보다 높은 장면에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즉 '결코'를 격식적 구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문어 자료와 구어 자료에서 '절대로'와 '절대'의 사용 빈도는 상보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문어에서 '절대로'가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구어에서는 '절대'가 더 많이 사용된다. 이에 근거하여 '절대로'를 문어체로 볼 수 있으며 구어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절대'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Ⅱ-31>에 따르면 '결코'는 입말체 또는 비격식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며 문어체 또는 격식적 구어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어, 특히 순구어 자료에서 '절대'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절대'를 구어체 또는 비격식적 구어로 본다면 '결코'와 변별될 수 있다.

다음은 '결코', '절대로'의 다른 화용적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각각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도록 한다.

(81) 가. (변론대회에서)
A: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 저는 이러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 A: 그런 놈에게는 말로는 소용이 없으니 본때를 보여 줘야지.
B: 그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니, 내 말 듣고 일찌감치 그만두어라.

(82) 가. A: 이 일을 너에게 맡기면 별 문제는 없겠지?
B: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에게 맡겨 주신다면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A: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이 일은 결코 성사될 수 없을 것입니다.
B: 너무 정중하시군요. 아주 작은 수고에 불과합니다.

'결코'는 주로 화자가 사태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단언할 때 쓰이거나 화자의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81)에서처럼 화자의 '반박, 권고'라는 발

화 의도에 따라 '결코'의 사용은 청자의 체면을 적극적 위협하는 화용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주로 화자의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감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반대로 (82)와 같은 화행에서 '결코'는 화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82가)에서 화자B는 '결코'를 사용하여 자신의 체면을 의 지킴으로써 청자에게 자신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대화를 쌍방 선호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한다. (82나)의 '감사 화행'에서 화자A는 ''B가 없으면 결코 성사될 수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청자의 체면을 적극적으로 세워주고 '공손성'을 더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표Ⅱ-31> '결코'의 화용적 쓰임

예문	화행 유형	발화 의도	감정	사태에 대한 인식	체면 이론
81가	확언화행	반박하기	불만	부정적	청자 적극적 체면 위협
81다	지시화행	권고하기	걱정	부정적	청자 소극적 체면 위협
82가	언약화행	결심하기	자신감	긍정적	화자 적극적 체면 지킴
82다	정표화행	감사하기	감사함	긍정적	청자 적극적 체면 지킴

(83) 가. A: 너도 참 야단법석을 떠네, 이런 조그마한 일로 많은 사람 동원할 필요가 있나?
B: 아니, 일이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나. (박물관 진열품 지시어) 절대로 손으로 전시품을 만지지 마세요.

(84) 가. A: 정말 너 혼자 해도 괜찮겠니?
B: 경험이 있어서 절대로 문제 없을 걸.
나. A: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라.
B: 선생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83), (84)에서 보듯이 '절대(로)'는 '결코'와 유사한 화용적 기능을 수행한다. '반박, 명령' 같은 화행에서는 '절대로'의 사용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고 체면 위협을 유발하는 장치로 쓰일 수 있다. 또한 '확언, 감사' 화행에서 화자나 청자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단 (83나)에서처럼 특정한

청자를 지향하지 않고 박물관을 참관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금지, 명령'을 지시하는 경우, '결코'와 공유하지 않는 의미영역이기에 '절대로'의 사용이 훨씬 자연스럽다.

<표Ⅱ-32> '절대로'의 화용적 쓰임

예문	화행 유형	발화 의도	감정	사태에 대한 인식	공손성 이론
83가	확언화행	반박하기	화/짜증	부정적	청자 적극적 체면 위협
83나	지시화행	명령하기	-	-	무차별 적극적 체면 위협
84가	확언화행	확신하기	자신감	긍정적	화자 체면 적극적 지킴
84나	정표화행	감사하기	감사함	긍정적	청자 체면 적극적 지킴

상술 논의를 다시 정리하면, 코퍼스 자료에 근거하여 구어에서 '절대(로)'의 사용 빈도가 더 높고 문어에서 '결코'의 사용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코'를 문어체로 보고 '절대(로)'를 구어체로 본다면 이것은 이유의어 쌍의 유의미한 화용적 변별 기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문어에서 강조형인 '절대로'가 더 많이 사용되고 구어에서 말하기의 편의성 때문에 모어 화자들이 '절대'를 선호한다는 것도 학습자에게 제시해주어야 할 정보이다.

한편, '결코'와 '절대로'는 모두 적극적 부정극어로서 '칭찬, 환대, 위로' 같은 화행에서 체면 위협을 최소화하여 청자의 체면을 적극적으로 지킴으로써 공손성을 표현할 수 있다. 반면 '반박, 거절' 등의 화행에서 그 강한 부정성으로 인하여 적극적 체면 위협을 촉발할 수 있기도 한다.

3.3.3. '별로-그다지-그리'의 변별 기제

3.3.3.1. '별로-그다지-그리'의 의미적 변별 기제

1) '별로-그다지-그리'의 사전 의미 기술

아래의 <표Ⅱ-33>에서 살펴보듯이, 사전에서 '별로'의 의미를 기술할 때 유의어인 '그다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다지'의 의미 기술을 보면 '그다

지'는 '그리'와도 유의관계가 매겨진 것으로 보인다.[54]

<표Ⅱ-33> '별로','그다지','그리'의 사전 의미 기술

사전	별로	그다지	그리
표준 국어 대사전	①(부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	①(뒤에 오는 '않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하여) 그러한 정도로는. 또는 그렇게까지는. ≒그리 ②(주로 의문문에 쓰여) 그러한 정도로. 또는 그렇게까지. ≒그리, 그리도.	①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러한 모양. ②그러한 정도로는. 또는 그렇게까지는. =그다지 ③그러한 정도로. 또는 그렇게까지. =그다지
연세 한국어 사전	①그다지. 보통과는 다르게.	①별로. 대단한 정도로. ②[놀라움이나 의문의 표현으로 쓰이어] 그러한 정도로. 그만큼. 관련어: 그리/과히	① 앞에서 일어난 일이나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 그러한 정도로. 관련어: 그렇게 ②아주. 별로. 그다지. 관련어: 그다지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①('안', '못', '아니다', '없다', '못하다', '않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유의어: 그다지, 별달리	①('않다', '모르다', '없다' 따위와 함께 쓰여) 별로 그렇게까지. 유의어: 그리, 별로, 그토록 ②(놀라움이나 감탄을 나타낼 때 쓰여) 그러한 정도로까지.	①상태나 성질 따위가 그러한 정도나 모양으로. 또는 그와 같이. 참고어: 이리, 저리 ②(부정어와 함께 쓰여) 그러한 정도까지. 유의어: 그다지
	①(부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	①(뒤에 오는 '않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호응하여)그러한 정도로	①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러한 모양. (참고어: 고리, 요리, 이리, 저리, 조리)

54) 이효정(2016:227)에서 언급했듯이 사전의 하나의 어휘를 활용하여 다른 어휘를 설명하는 순환적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유의어군을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말샘	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 ②[북한어] 따로 별나게. 또는 따로 특별히.	는. 또는 그렇게까지는. 비슷한 말: 그리 ②(주로 의문문에 쓰여) 그러한 정도로. 또는 그렇게까지. 비슷한 말: 그리, 그리도	②그러한 정도로는. 또는 그렇게까지는. (비슷한 말: 그다지) ③그러한 정도로. 또는 그렇게까지. (비슷한 말: 그다지, 그리도)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의어를 활용한 의미 기술 방식은 사전 사용자의 의미 변별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사전의 의미 풀이에 의하면 이 세 부정극어는 유의관계를 보이며 의미 차이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겠으나 명확하게 그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미성분분석법을 통해 이 유의어군에 각각 내포되어 있는 의미자질을 도출하고 그 의미적 변별 기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2) '별로-그다지-그리'의 의미성분 분석

먼저 교체 검증법으로 '별로, 그다지, 그리'가 치환될 수 있는 예시를 살펴보자.

(85) 가. 오늘 날씨가 별로/그다지/그리 춥지 않다.
나. 이 서류는 별로/그다지/그리 중요한 것 아니다.
다. 그의 주장은 별로/그다지/그리 설득력이 없다.

(85)와 같은 문장들의 문법성에 있어서는 '별로, 그다지, 그리'가 서로 치환되어도 문법적으로 옳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세 부정극어는 부정소와 함께 쓰일 때 부정정도의 극을 극대화하여 나타낸다기보다 오히려 부정의 극을 부정하는 역설적인 부정극어로서 부정의 의미와 정도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수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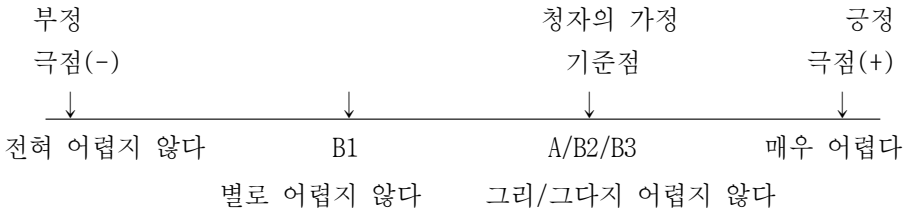
유옥수(2004)에서는 '별로'의 소극성은 화자나 청자의 가정 지점에 미치지 못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정민(2010: 831)에서는 지시어 '그'에서 유래

된 '그다지, 그리'를 화제성에 기초한 규범/기대와 연관된 '기대치-메아리 부정극어'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그다지, 그리'는 기준과 연결된 대용적 부정극어로 쓰일 때 사태를 부정하지 않고 그 사태의 부정 기준점을 부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세 부정극어는 모두 [+소극적 부정성], [+기준], [-도달]이라는 공통적 성분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86)의 문장에서 '별로, 그다지, 그리'는 부정소와 호응하여 화자가 예상했던 어떤 기준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실제 사태가 일어나는 정도는 그 기준에 이르기까지는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단 이 유의어군은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맥에서 모두 쓰일 수 있으나 그 기준점에서의 거리가 조금 차이가 있다.

(86) A: 시험은 어려웠어?
B1: 별로 어렵지 않아.
B2: 그다지 어렵지 않아.
B3: 그리 어렵지 않아.

(86B1, B2)는 모두 '시험은 어렵지 않았지만 조금 어려웠다'는 뜻을 나타내지만 두 문장이 표현하는 부정 정도는 같다고 하기가 어렵다. 즉 (86B1, B2)와 발화에서 부정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별로'는 청자가 생각하는 기준점보다 시험의 어려운 정도가 비교적 낮을 때 사용되고 '그다지'와 '그리'도 청자의 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표현하지만 어느 정도 그 기준점에 더 가깝게 접근하는 위치에 처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Ⅱ-01] '별로-그다지-그리'의 정도 척도 비교



[그림Ⅱ-01]에서 보는 것처럼, '별로, 그다지, 그리'는 모두 시험의 어려운

정도가 A의 가정의 기준점에 도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다지, 그리'를 통해 표현하는 어려운 정도가 '별로'보다 정도가 훨씬 A의 가정 기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그다지, 그리'와 그 안에 쓰인 지시사 '그-'의 의미적 특성이 가진 관련성이다.[55] 특히 '그리'의 경우, 그 자체는 척도상에서 청자의 가정 기준점을 나타내며 표현하는 정도가 '별로'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의 이러한 의미적 특성은 이면에 그 부정 극성이 다른 두 부정극어에 비해 약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

(87) 가. 그리 생각해 주니 고맙네.
나. 아무튼 사정이 그리 됐어요.
다. 아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위의 예문 (87)에서 '그리'를 '별로, 그다지'로 치환할 수 없는 '그리'만 사용될 수 있는 문맥이다. '그리'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러한 모양'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그리'는 [+모양], [+상태], [+성질]의 의미 성분을 드러낸다. '그-'의 지시적 용법을 감안하면 '그다지'와 '그리'는 긍정문맥에서 쓰일 때 '별로'와의 의미 차이가 더 분명하다.

(88) 가. 그 사람은 무슨 걱정이 그다지도[56] 많은가?

---

55) 부정극어 '그다지, 그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기능은 지시사 '그-'의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다(이금영, 2016). 이럴 때는 '그-'가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지 않으며 화자나 청자가 생각하는 기준의 충족점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56) 이기종(1989)에서는 '도'가 부정극어의 의미를 한정시키고 강조하는 의미기능 외에도 화자가 기대나 예상이 어긋난 놀랄만한 것을 나타내는 화용상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정극어에 '도'가 첨가된 경우 문맥 내·외적으로 부정을 전제하고 있으며 화용상 함의가 뒤따르게 된다. 실제로 '그다지, 그리'가 나타나는 의문문에서 '그다지도, 그리도'의 형태도 보인다는 점에서 '도'의 이런 화용론적 기능을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 가. 아직도 다 못 끝냈다니 그 작업이 그다지도/그리도 힘든 일이야?
나. 그 사람은 무슨 걱정이 그다지도/그리도 많은가?
다. 웬 잔소리가 그다지도/그리도 많으냐?

나. 내 마음을 그다지 몰라주느냐?
다. 당신은 왜 그다지 쉽게 운명에 굴복하고 말았습니까? (표준국어대사전)

(88)의 문장은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되어 있는 예문인데, 여기서 '그다지'를 '그리'로 치환하면 자연스럽지만 '별로'로 치환하면 비문이 된다. 사전의 정의를 살펴본 것처럼 '그다지'에는 주로 의문문에 쓰여 놀라움이나 감탄을 표현하는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다. 사전의 정의와 용례를 살펴보면 (88)와 같은 문장에서 '그리'를 '그다지'와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9) 가. 너는 무엇을 그리 걱정하고 있니?
나. 무슨 애가 그리 걸음이 빠르니?
다. 뭐가 그리 좋으냐?

(89)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된 '그리'의 용례이다. (88)와 (89)의 문장을 통해 '그다지, 그리'는 모두 '그러한 정도로, 또는 그렇게까지'의 의미로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별로'보다 '그다지, 그리'는 [+정도 유사]라는 시차적 성분을 더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긍정 문맥에 쓰인 '그다지, 그리'는 '기준이 되는 정도를 넘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기준 도달]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그다지'와 '그리'는 이처럼 '별로'에는 없는 의미 영역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정극어의 의미가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다.

(90) [그리] 부정극어
가. 이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나. 그의 의견이 그리 명확하지가 않다.
다. 민호의 한국어 기초는 그리 좋지 못하다.

라. 돈이 그다지도/그리도 중요하단 말이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다지'뒤에 '도'를 덧붙여도 자연스런 문장이 되고 이들 문장에서는 '그다지도'와 '그리도'는 교체될 수 있으며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91) [그리] 지시어

가. 그리 가다.

나. 그리 앉으시오.

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지금 그리 갈게. (표준국어대사전)

(90),(91)에서 보듯이, '전혀'의 경우와 유사한데, 사전에서 '그리' 역시 다의어로서 부사로 쓰일 때 정도를 표시하는 의미 외에도 '그곳으로, 그쪽으로'의 의미로 지시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그리는 [+공간], [+장소], [+지시]의 시차적 성분을 갖는다. 제시어의 기능으로 사용할 때 부정극어로서의 용법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별로'는 '그다지, 그리'에 비해 그 의미와 용법이 보다 제한적인 편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그다지, 그리'가 쓰이지 못한다.

(92) 가. 부인 처소를 별로 정하다. <선대>

나. 박창순은 별로 미타미타한 생각이 들어서 극히 실무적인 말로 길을 대 주었다. <누리에 붙는 불, 선대>

(92)의 예문은 비문으로서의 판단에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별로'는 '따로 별나게, 또는 따로 특별히'의 의미로 쓰인다. '별로'의 이러한 의미는 과거에 사용되었으나 의미의 통시적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에는 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가 따로 별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어쨌든 사전과 문헌 자료에 의해 '별로'는 이처럼 [±특별성]의 성분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3) 가. 돈이 별로 없다.

나. 할 말이 별로 없다.

다. 그는 모진 사람이라 친구가 별로 없다. (표준국어대사전)

'별로'는 부정소와 호응하여 어떤 사태의 정도가 특별하게 많거나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93)와 같은 문맥에서 '그다지, 그리'보다 '별로'의 사용이 가장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것은 '별로'가 [+소량성]라는 의미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

문으로 보인다.

(94) 가. *그는 별로/그다지/그리 천재가 아니다.
나. *그는 별로/그다지/그리 거기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다.
다. *그는 별로/그다지/그리 옳지 않다.
라. *그는 대학에 별로/그다지/그리 합격하지 못했다.

또한, (94)에서 보듯이, '별로, 그다지, 그리'는 사태의 정도성이나 등급성에 관여하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 있고 없음, 옳고 그름, 합격과 불합격과 같은 양자택일의 선택을 요구하는 문맥에서 쓰일 수 없다.

이상의 논의에서 '별로-그다지-그리'의 의미성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Ⅱ-34> '별로', '그다지', '그리'의 의미성분 분석

<table>
<tr><th>의미성분</th><th>별로</th><th>그다지</th><th>그리</th></tr>
<tr><td>공통적 성분</td><td colspan="3">[+소극적 부정성], [+기준], [-도달]</td></tr>
<tr><td rowspan="2">시차적 성분</td><td>[±특별성], [+소량성]</td><td colspan="2">[+정도 유사], [+기준 도달]</td></tr>
<tr><td>-</td><td>-</td><td>[+공간], [+장소], [+지시]/[+모양], [+상태], [+성질]</td></tr>
</table>

3.3.3.2. '별로-그다지-그리'의 통사적 변별 기제

<표Ⅱ-35> SJ-RIKS 코퍼스 확장판에서 '별로', '그다지', '그리'와 부정표현과의 결합 양상

부정극어	별로	그다지	그리
안	115	3	11
못	35	11	32
-지 않다	796	487	879
못하다	122	57	82
말다	0	0	0
아니다	97	115	327
없다	946	82	62

-ㄹ 수 없다	27	18	35
모르다	13	3	4
부정 접두사	0	0	0
기 형용사류	2	3	0
부정함축 어휘	3	0	0
비부정문	12	36	329
수사의문문	0	0	33
확인불가	2	0	2
독용	29	0	0
합계	2199	815	1796

<표Ⅱ-35>에서 보듯이 코퍼스에서 '별로'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그다지'의 사용 빈도는 가장 낮다. 코퍼스에서 '별로'는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 만큼 부정표현과의 호응 범위가 다른 두 부정극어에 비해 넓으며 '없다', '-지 않다'와 높은 공기 빈도를 보여준다. 또한 '별로'는 부정소 없이 문맥에서 독자적으로 부정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다지, 그리'도 '-지 않다'와 자주 결합하지만 '없다'와의 공기는 흔하지 않다. 특히 '별로'와 '없다'는 사이에 아무 성분 없이 직접 결합할 수 있으나 '그다지, 그리'가 술어 '없다'를 직접 수식할 수 없는 것은 정도성과 관련이 있다. '없다'는 '아니+있다'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정도성을 띠지 않는 술어로 볼 수 있다. '그다지, 그리'는 정도성이 없는 술어와 잘 호응하지 못하지만 '-(으)ㄹ 수 없다, -(으)ㄴ 줄 모르다' 구문일 때 그 앞에 정도성 술어가 첨가될 수 있으므로 '그다지, 그리'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고, 또 '그다지, 그리'와 '없다' 사이에 서술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공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구체적인 용례를 살펴보고 이 유의어 쌍의 다른 통사적 특성 및 변별 기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긍정문]

<표Ⅱ-36>에서 알 수 있듯이, '별로, 그다지, 그리'는 모두 긍정문과 공기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예문과 같이 이 세 부사 부정극어는 긍정문에서 허용되는 원인 및 양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5) 가. 오늘따라 발걸음이 별로 가볍게 느껴진다.
나. 오늘은 별로 반찬이 좋구나. (SJ-RIKS 코퍼스 확장판)

예문(95)은 SJ-RIKS 코퍼스에서 추출한 용례인데, 여기서 '별로'는 '특별히, 유별나게'의 뜻으로 쓰인다. 다만 오늘날 '별로'는 이러한 용법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현대국어에서는 '별로'를 부정극어로 보고 부정문과의 호응이 더 자연스럽다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현(2003)에서는 '별로'의 의미 기능이 축소되었다고 언급하였다.

(96) 가. 무슨 짐작이 있길래 그다지도 때를 헛쓰는 것일까?
나. 어찌 그다지도 앞뒤 생각이 짧은가?
다. 무엇이 그다지 급했길래 조업 정지 보름만에 두산 전자의 조업을 계속토록 했는가? (SJ-RIKS 코퍼스 확장판)

(96)은 '그다지'가 긍정문에서 쓰이는 용례이다. 여기서 '그다지'는 '그리'와 같이 '그러한 정도로, 또는 그렇게까지'의 의미로 특히 의문문에 주로 쓰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SJ-RIKS 코퍼스의 용례를 살펴보면 '도'가 첨가되어 '그다지도'의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의 화용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 이는 '그다지'와 그리'가 공유하는 의미 영역인데, '별로'와의 의미적, 통사적 변별 기제가 된다. 요컨대 '별로'는 부정소가 없는 의문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다지'는 '놀라움이나 감탄을 표현할 때 부정소 없이 의문문이나 감탄문에 쓰일 수 있다.

한편, '그리'는 '별로, 그다지'보다 긍정문에서 더 활발한 사용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정극성이 가장 약하다고 보겠다.

(97) 가. 마음껏 소리 지르고 거침없이 즐거워하는 젊은이들이 어찌 그리 이뻐 보이든지.
나. 그리고 붙들릴 바에는 자기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만 그리 되었으면 하였다.

(98) 가. 그런데 그 속바지 색깔이 왜 그리 화려했어?
나. 정숙이는 웬 술을 그리 많이 마시냐?

(99) 가. 그리 착한 사람 다시 만날 수 있겠어?
나. 그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SJ-RIKS 코퍼스 확장판)

'그리'의 출현을 허가해주는 다양한 환경으로는 (97)에서의 평서문, (98)에서의 일반의문문 뿐 아니라 (99)와 같은 수사의문문도 있다. (99)의 문장에서 표면상 부정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은 '그리 착한 사람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리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리 쉬운 일이 없다'라는 부정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코퍼스에서 '별로와 '그다지'는 이러한 사용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독용 양상]

(100) 가. 사실 저도 오늘 같은 날씨에 파스타는 별로라고 생각했었어요.
나. 제 생각에는 그 영화 별로였어요.

(101) 가. 어때요? 맛이 별로죠?
나. 이 치마는 별로예요?

'그다지, 그리'는 문장 내 부정소와 호응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별로'는 '별로이다'의 구조가 쓰이는 것이 흔하고 주로 (100)와 같은 평서문이나 (101)와 같은 의문문에 쓰인다. (100), (101)와 같이 코퍼스에서 '별로+이다'의 형태로 쓰이어 부정 의미를 함축하는 문장도 보인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별로'가 지정사와 합쳐져 술어적으로 부정요소 없이 '그 영화 별로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등 긍정 아닌 부정의 사태 표현을 생략한다.

명시적 부정소가 쓰이지 않았지만, (100)의 문장을 부정 의미를 드러내지 않

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들 문장에서 '별로'로 전달되는 실제 의미는 '파스타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 영화는 별로 (재미없다), 인기가 별로 (많지 않다), 맛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다. 괄호 안의 내용이 생략되므로 여기서 '별로'는 부사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서술어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 이영(2012)에서 '별로'가 부정요소와 자주 공기하여 사용된 결과로 그 자체가 부정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법 제약]

(102) 가. 오늘은 날씨가 별로/그다지/그리 춥지 않다.
나. 오늘은 날씨가 별로/그다지/그리 춥지 않구나.
다. 오늘은 날씨가 별로/그다지/그리 춥지 않니?
라. *별로/*그다지 문제가 되지 마라
마. *별로/*그다지 문제가 되지 말자.

(103) 가. 이 일이 잘 해결될 테니 그리 걱정 마세요.
나. 그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문을 닫으시오. (표준국어대사전)

(102가,나,다)에서 보듯이 '별로'와 '그다지'는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에서 쓰일 수 있으나 (102라,마)와 같은 명령문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103)에서처럼 '그리'는 '그렇게'의 의미를 나타낼 때 명령형과 청유형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와 '별로, 그다지'의 통사적 변별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시제 제약]

다음으로 이 세 부정극어가 시제 제약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자.

(104) 가. 어제는 별로/그다지/그리 춥지 않았다.
나. 지금은 별로/그다지/그리 춥지 않다.

다. ?내일은 별로/그다지/그리 춥지 않겠다.
라. 오늘 같은 상황이라면, 내일은 별로/그다지/그리 춥지 않겠다.

(104가, 나)는 과거시제, 현재시제를 나타낸 것인데, 모두 정문이다. (104다)의 경우 수용성에 이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104라)처럼 화자의 판단을 가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추가한다면 보다 더 자연스런 문맥이 될 것이다. 즉, '별로, 그다지, 그리'는 모두 시제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서술어 제약]

(105) 가. 민호는 용돈이 별로/그다지/ 그리 많지 않다.
나. *민호는 신분증이 별로/그다지/그리 없다.
다. 나는 민호에 대해 별로/그다지/그리 잘 모른다.
라. *나는 그의 이름을 별로/그다지/그리 모른다. (이수현, 2003)

(105가)는 수량의 정도와 관련하여 '부족'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반해, (105나)는 '비존재'를 의미하므로 정도로 양화할 수 없어서 '별로, 그다지, 그리'와 공기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105다)는 사람의 성격, 개인 정보 등에 대해 아는 정도를 양화할 수 있는 반면, (105라)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 알지 못함을 의미하므로 양적인 판단에 들어갈 수 없어서 비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의 용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06) 가. 오늘은 별로/그다지/그리 바쁘지 않다.
나.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식당에는 사람이 별로/그다지/그리 많지 않았다.

(107) 가. ?아이들이 서두르는 바람에 별로/그다지/그리 먹지 못했다.
나. ?등산을 별로/그다지/그리 다닐 수 없었다.
다. 아이들이 서두르는 바람에 별로/그다지/그리 많이 먹지 못했다.
라. 등산을 별로/그다지/그리 자주 다니지 않는다.

(106)에서 보듯이 '별로, 그다지, 그리'는 상태 동사나 형용사와 잘 어울리나, (107가, 나)에서처럼 '먹다, 다니다' 같은 동작동사를 수식할 때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부정극어와 서술동사 사이에 '많이'나 '자주'와 같은 등급,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삽입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릴 것이다. 요컨대 이 세 부정극어는 등급, 빈도,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 동작동사를 수식할 때 제약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코퍼스 분석을 통하여 '별로, 그다지, 그리'의 부정표현과의 공기 양상, 긍정문에서의 사용 양상, 독용 양상, 시제 제약, 서술어 제약, 서법 제약 등 다양한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이 유의어군의 화용적 변별 기제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3.3.3. '별로-그다지-그리'의 화용적 변별 기제

<표Ⅱ-36> '별로', '그다지', '그리'의 말뭉치에서의 빈도수 비교

말뭉치		별로	그다지	그리
SJ-RIKS 코퍼스 확장판	문어	2281	815	1796
	순구어 (전사)	2131	81	193
	준구어 (대본)	313	18	222
세종 구어 형태 분석 말뭉치		453	13	221

<표Ⅱ-36>에서 살펴본 것처럼 '별로'는 문어와 구어 자료에서 모두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별로'는 문어와 구어에서 두루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표Ⅱ-36>에서 살펴보듯이 '별로'는 순구어 자료에서의 출현 빈도가 준구어보다 눈에 띄게 높다는 점에서 비격식적 구어로 볼 수 있겠다. 이와 반대로 '그리'는 준구어에서의 사용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격식적 구어에 더 가깝다. '그다지'의 경우, 구어보다 문어 자료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문어체로 볼 수 있으며 순구어와 준구어의 출현 빈도를 감안하여 구어에서 비격식적 구어로 볼 수 있겠다.

다음은 이들 부정극어의 구체적인 사용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화용적 정보 및 변별 기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08) 가. A: 이 옷이 올 가을에 유행하는 옷이라던데, 어때?
B: 난 별로라고 보는데.
나. A: 이번 작품이 그렇게 형편없어요?
B: 응, 난 별로라고 생각해.

(109) 가. A: 미나 생일 선물로 목걸이를 사 주는 게 어때?
B: 그런데 미나가 목걸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나. A: 이건 어떠세요? 요즘 이 디자인이 유행이에요.
B: 그런데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별로'의 실제 사용 양상을 보면 (108)에서처럼 부정소를 수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부정 의미를 나타내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별로이다'라는 말은 '별로 안 좋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주로 화자의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감정을 드러낸다. (108), (109)와 같은 대화에서, '별로'를 사용하더라도 화자 B의 발화는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체면 위협 정도가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발화 장면과 대화자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전혀, 결코, 절대로'등 적극적 부정극어와 비교해 보면 '별로'는 소극적 체면 위협을 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108), (109)에서 '별로'를 사용하는 것은 체면 위협을 완화하는 화용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110) 가. A: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B: 아니에요. 차리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나. A: 너네 집 되게 크구나!
B: 아니, 우리 집은 너희 집보다 별로 안 커.

(111)가. A: 요즘 많이 바쁜가요? 좀 부탁해도 되나요?

B: 좋아요. 저는 별로 안 바빠요.

나. A: 오늘 볼 시험이 많이 어려운가요?

B: 아니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한편 (110)에서처럼 화자가 일부러 자신의 노력이나 기술 대상의 가치를 축소하여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자 할 때에도 '별로'를 사용할 수 있다. (111)와 같은 '언약화행, 확언화행'에서는 화자 B는 '별로'를 사용하여 청자가 예상하고 있는 기준을 부정함으로써 상대방을 안심시킨다. 이때에는 화자가 사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감정을 드러내며 체면 위협을 최소화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별로'의 사용 양상에 관한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Ⅱ-37> '별로'의 화용적 쓰임

예문	화행 유형	발화 의도	감정	사태에 대한 인식	공손성 이론
108	확언화행	평가하기	불만	부정적	청자 체면 소극적 위협
109	지시화행	힌트/거부하기	반대/불만	부정적	청자 체면 소극적 위협
110	언약화행	겸손하기	공손	긍정적	화자 체면 소극적 위협
111	확언화행	안심시키기	좋음/ 관심	긍정적	청자 체면 소극적 지킴

(112) 가. A: 미나는 똑똑하고 얼굴도 예쁘고 집도 잘 살고, 많이 부럽죠?

B: 근데 난 솔직히 그다지 부럽진 않아.

나. A: 이 일은 한 삼일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B: 아니. 그다지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113) 가. 아직도 다 못 끝냈다니 그 작업이 그다지도 힘든 일이야?

나. 그 사람은 무슨 걱정이 그다지도 많은가?

다. 왜 마음이 그다지도 나약해졌냐?

(112)와 같은 '반박'화행에서는 화자 B는 '전혀, 결코, 절대로' 같은 극단적인 부정극어의 사용을 피하고 소극적 극성을 띤 '그다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부

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그다지'의 사용은 적극적 체면 위협을 하기보다는 미온적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발화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13)에서와 같이 의문문에 쓰이는 '그다지'는 '그러한 정도로. 또는 그렇게까지'의 의미로 체면 위협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지'의 이러한 화용 특성은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상 언어생활에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114) 가. A: 이런, 내 정신 좀 봐. 불을 켜 놓고 나왔네. 어떡하지?
B: 걱정 마,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나. A: 손 많이 다쳤어요? 괜찮아요?
B: 부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다지'는 화자의 부정적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뿐더러 (114)에서처럼 사태의 심각성을 약화하는 양태 의미를 나타낼 때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 '그다지'는 소극적 부정극어이지만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고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발화 의도가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다.

<표Ⅱ-38> '그다지'의 화용적 쓰임

예문	화행 유형	발화 의도	감정	사태에 대한 인식	공손성 이론
112	확언화행	반박하기	비관	부정적	청자 소극적 체면 위협
113	정표화행	질책하기	화내기/불만/조롱	부정적	청자 적극적 체면 위협
114	확언화행	위로/안심시키기	낙관	긍정적	청자 소극적 체면 지킴

'그다지'와 매우 흡사한데,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발화에서 '그리'의 사용은 타인의 체면을 능동적으로 손상시킬 수도 있고, 공손을 드러내기 위해 체면 위협을 완화하여 덜 손상시킬 수도 있다.

(115) 가. A: 오늘 야식으로 치킨 어때?

B: 미안, 난 치킨 그리 안 좋아해서.
나. A: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너 돈 있니?
B: 나도 용돈이 그리 많지는 않다.

(116) 가. 흥! 네가 뭐가 그리 대단한데?
나. 넌 젊은 애가 왜 그리 건망증이 심하니?
다. 뭘 그리 꾸물거리고 있어? 썩 나오지 못하고.

(115)에서 보듯이 화자B는 상대방의 제안이나 요청을 거절하려는 발화 의도가 있으나 '좋아하지 않다, 돈이 많지 않다 ‘라는 서술 내용에 '그리'를 첨가하여 '조금 좋아하다, 조금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으로 손상하기보다는 체면손상을 완화하도록 한다. 반면 (116)에서는 화자의 '불쾌, 불만, 분노, 원망' 같은 부정적 감정을 '그리'를 통해 두드러지게 표현함으로써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고 있다.

(117) 가. A: 오늘 야식으로 치킨 어때?
B: 듣기에 그리 나쁘지 않은 제의인데.
나. A: 이따가 회의 못 참가하네, 어떡하지!
B: 괜찮아. 그리 중요한 회의 아니니까 참가 안 해도 돼.

(117)에서 '나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긍정적 서술 내용에 '그리'를 첨가하여 '조금 나쁘다, 조금 중요하다'라는 부정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명제 내용에 대한 의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화자는 소극적 체면을 암시적으로 세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Ⅱ-39> '그리'의 화용적 쓰임

예문	화행 유형	발화 의도	감정	사태에 대한 인식	공손성 이론
115	지시화행	거절하기	싫음/고민	부정적	청자 소극적 체면 위협
116	정표화행	지적/질책하기	불쾌/불만	부정적	청자 적극적 체면 위협

117	확언화행	안심시키기 /위로하기	관심/배려	긍정적	청자 소극적 체면 지킴

이상과 같이 '별로, 그다지, 그리'가 발화에 쓰일 때 드러나는 화용적 특성 및 기능을 예시와 같이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정리하자면 화용적 변별 기제에 있어서는 이 세 부정극어는 공손 원리를 잘 지키지 않고 공통적으로 타인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으나 그 작동 방식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화자가 상대방의 관점을 반박하거나 제의를 거절할 때 '별로, 그다지, 그리'는 모두 체면 위협을 완화하여 소극적 체면 위협을 하는 언어 장치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이들이 쓰이는 발화는 적극적 공손이 아니지만 완전한 체면 위협으로 간주할 수 없기도 하다.

'별로'는 술어적으로 부정소 없이 '별로야/별로이다'와 같은 구어적 표현으로 잘 쓰이는데, 이런 경우 소극적 체면 지킴/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그다지'와 '그리'는 부정소를 수반하지 않는 화자의 강한 부정적 감정을 보이는 '명령, 질책' 같은 화행에서 쓰일 때 적극적 체면 위협을 나타낼 수도 있다. 다른 한편, '그리'는 긍정문맥에서 쓰일 때 '그렇게'의 의미와 같이 '기준이 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다', 즉 '화자/청자 기준 이상'의 뜻을 나타내며 고저, 강세, 장단 등의 운율적 요소 또는 문말의 억양에 따라 공손성의 화용적 효과도 적극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다.

한편, 대화상대가 어떤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때 화자가 청자를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별로, 그다지, 그리'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며 그 사태의 부정 의미와 정도를 약화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배려, 관심을 전달하여 공손성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유의어군의 공통적 화용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부정극어는 화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서술 대상의 가치를 축소하여 겸손을 보이는 화행에서 쓰일 때 화자가 자신의 체면을 위협함으로써 청자의 체면을 지키는 발화 효과도 발현시킬 수 있다.

Ⅲ.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이해 양상

본 장에서는 앞서 Ⅱ장에서 도출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변별 기제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CKL 집단)와 한국어 모어 화자(NK 집단)의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에 대한 이해 양상을 비교 및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양상 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여 더욱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 대조 집단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변별 기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분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기준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직관을 통해 추출된 변별 기제를 검정하고 보완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구본관 외(2014:579)에서는 문법 연구자들이 문법적으로 바른 표현과 원어민의 올바른 어휘 사용 방식을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언어생활에서 원어민이 그 규정에 따라 어휘를 구사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면밀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변별 기제라 하더라도 모어 화자들의 실제 어휘 인식 및 이해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모어 화자를 대조 집단으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어 화자의 부정극어 유의어 변별 능력을 살펴본 결과를 선택적으로 본 연구의 기준으로 채택하기 위함이다. 민현식(2019:78)에 따르면 한 단어의 의미가 유동적이라도 실제 의사소통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언중이 공유하고 합의하는 일정한 의미가 상정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었다. 본고에서 선정한 유의어들이 의미적 인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문맥에서는 몇몇의 부정극어가 모두 답이 되지만 모어 화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면 부정극어의 차이가 더 분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 결과에 의해 모어 화자들의 응답 중 선택률이 보다 높은 부정극어들

을 언중이 합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경향성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선택 양상과 비교해 보면 두 집단이 부정극어 이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두 집단의 부정극어 유의어에 대한 이해 양상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확정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미한 작업이고, 나아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모어 화자와 같은 유의어 변별 능력 및 사용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이다.

1. 조사 방법 및 절차

1.1 조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전공이며 한국어 능력 시험(이하 TOPIK) 급수를 기준으로 5·6급을 취득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57]를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비록 선정된 부정극어 유의어들이 대부분이 초·중급 단계에서 제시되어 있으나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부정극어가 다양한 부정표현와의 호응 양상, 특히 수사의문문과 같은 부정함축적 문맥에서 쓰이는 경우, 그리고 부정극어가 개별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긍정문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초·중급 학습자에게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사 부정극어가 다양한 발화 상황에서 화자의 사태에 대한 인식 및 발화 의도가 다름에 따라 공손성이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모어 화자와의 언어 수준의 간극이 비교적 좁은 고급 학습자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코퍼스 분석을 통해 밝혀낸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변별 기제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직관과 유사한지를 살피기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 45명을 대조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변인과

57) 학습자가 부정극어를 사용할 때 오류를 범하는 것은 교수법과 교재 등 교육 차원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내 여러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고 부정극어를 이미 학습한 고급 학습자를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최종 총 56명의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본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비슷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모어 화자를 모두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통제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의 정보는 <표Ⅲ-01>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Ⅲ-01>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에 대한 이해 및 사용 양상
조사 참여자 정보

중국인 고급 학습자(CKL 집단)	한국인 모어 화자(NK 집단)
56명(여성30, 남성26)	45명(여성22,남성23)
20대-30대	20대-30대
소속기관 다양, 한국어전공[58]	소속기관 및 전공 분야 다양[59]

1.2. 조사 도구 개발

조사 도구는 크게 설문 조사와 조사 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사후 점검 인터뷰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조사 도구의 구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02> 조사 도구의 구성

58) 본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연변대학교(YBU), 북경대학교(BJU), 산둥대학교(SDU), 대련외국어대학교(DLU), 천경외국어대학교(TJU), 남경대학교(NJU), 길림대학교(JLU), 북경제2외국어대학교(BJFLU) 등 여러 한국어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재학하거나 졸업하였고 TOPIK 5급 또는 6급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이들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평균 3년 이상이었다. 조사 참여자들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속 대학	참여자 수(명)	성별	학년
연변대학교	17	남 26명 여 30명	3학년(수료) 6명 4학년 (수료) 50명
북경대학교	2		
산둥대학교	8		
대련외국어대학교	5		
천경외국어대학교	3		
남경대학교	4		
길림대학교	10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7		

59) 본 조사에 참여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서울 소재 S대학교 약학, 화학, 지구과학, 치의학, 경영학, 국어학, 교육학, 통계학, 철학 등 다양한 전공에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	조사 내용	
설문 조사	인적 사항	성별, 나이, 소속 기관, 한국어 능력, 한국어 학습 시간 등.
	이해 양상 조사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 진위형 판단 테스트,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
	학습 정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학습 여부 및 학습 시기, 차이점 학습 여부, 사용 빈도, 숙달도, 교재 및 교사 설명에의 만족도 등.
사후 점검 인터뷰	학습자의 응답에 관한 질문,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학습에 관한 질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크게 인적 사항, 변별 능력 및 이해 양상을 측정하는 테스트 과제, 그리고 학습 정보에 관한 조사로 구성되었다.

인적 사항에 대한 조사는 설문 참여자의 기본 정보 및 학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소속 기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한국어 학습 기간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 양상 조사는 학습자들이 부정극어 유의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로 구성되었으며 테스트 유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03> 이해 양상 조사의 테스트 유형

테스트 유형	측정 목표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	• 부정극어 유의어들이 공통 의미, 변별 의미를 나타냄에 따라 어떤 문맥에서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및 변별 능력을 알아볼 수 있다.
진위 판단형 테스트	• 주어진 구문에서 부정극어의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서법 제약 등에 대한 오류 판단의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부정극어의 통사적 제약을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모어 화자와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의 특징을 파악하여 부정극어 교육 내용 구성에 참고할 수 있다.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	• 주어진 발화 상황에서 두 집단이 어떤 부정극어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며, 아울러 공손성, 격식성 등 화용적 정보에 대한 두 집단의 이해 및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답변형,	부정극어의 교육 실태, 학습 방법, 사용 빈도, 교육 필요성, 학습 경험

선다형 테스트	유무 등을 조사함으로써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에 있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 대해 인과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해 양상 조사의 첫 번째 과제 유형은 부정극어 유의어들이 의미적으로 어떤 문맥에서 교체 가능한지에 대해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이다. 이 유형의 테스트는 한국어능력시험 읽기 영역에서 유사문법을 판단하는 3,4번 문항과 본질적으로 같은 유형으로 보이며 피험자의 유의어/유사 문법에 대한 변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된다.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의 문항 구성에 있어 앞서의 의미성분 분석과 같이 부정극어 유의어의 공통적 성분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문맥과 시차적 성분에 따라 교체할 수 없는 문맥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문항의 출제 기준 및 예시는 <표Ⅲ-04>와 같다.

<표Ⅲ-04>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의 출제 기준 및 문항 예시

문항 유형	출제 기준	문항 번호	문항 예시
유사 의미 선택형 테스트	'도저히-도무지-전혀'의 공통 의미와 변별 의미	1~7	5.약을 먹어서 이제 배가 <u>전혀</u> 아프지 않다. A.도무지 B.도저히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결코-절대로'의 공통 의미와 변별 의미	8,9 10	9.박물관에서는 허락 없이 <u>절대로</u> 사진을 찍지 마세요. A.결코 B.전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별로-그다지-그리'의 공통 의미와 변별 의미	11~15	14.잘 해결될 테니까 <u>그리</u> 걱정하지 말라. A.별로 B.그다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두 번째 문항 유형은 부정극어의 통사 층위의 변별적 특성(예컨대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시제 제약, 서법 제약, 긍정문 쓰임 등)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제

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진위 판단형 테스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테스트 유형을 부정극어들의 통사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문항 개발에 있어서는 앞서 구축한 의미·통사·화용적 변별 기제에 근거하여 SJ-RIKS 코퍼스, 대규모 한국어 사전, TOPIK의 기출 문제, 교재 및 선행 연구 등 객관적 자료에서 수집한 용례를 인용하거나 변형하여 구성하였다. 총 25문항의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출제 기준 및 문항 예시는 <표Ⅲ-05>와 같다.

<표Ⅲ-05>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출제 기준 및 문항 예시

문항 유형	출제 기준	문항 번호	문항 예시
진위 판단형 테스트	'도무지'의 서법 제약/의문문 제약 등	1,2,3	1.내가 안 시켰다면, 만호는 그 일을 도무지 안 했을 거야.
	'도저히'의 주어 제약/서술어 제약 등	4,5	4.날씨가 도저히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전혀'의 서법 제약/서술어 제약/내포적 의미성분([+동음이의성], [+의외성]) 등	6,7,8,9	7.잃어 버렸던 반지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결코'의 서법 제약	10,11 14,16	11.실내에서 결코 담배를 피우지마.
	'절대로'의 서법 제약/긍정문 공기 가능성/내포적 의미성분([+명령], [+금지]) 등	12,13 15,17	13.임신부에게 흡연은 절대로 금물이다.
	'별로'의 독용 현상/서술어 제약/긍정문 쓰임	18,19 20	18.제 생각에 그 영화는 별로입니다.
	'그다지'의 서술어 제약/ 긍정문 공기 가능성/ '도'와 같이 결합 사용 등	21,22	21.웬 잔소리가 그다지도 많으냐?
	'그리'의 부정소 제약/약한 부정극성/ 긍정문 쓰임	23,24 25	23.자네가 그리 생각해 주니 고맙네.

세 번째 문항 유형은 부정극어 유의어들이 갖는 화용적 특성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및 사용을 살피기 위하 고안된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이다. 이 유형의 테스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Ⅱ장의 코퍼스 분석을 통해 실제 담화에서 부정극어들이 어떠한 어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직관에 따른 이해 및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해 부정극어들의 화용적 특성을 드러내는 상황을 설정하고 조사 참여자들이 가장 어울린다고 판단한 부정극어 하나만을 고르도록 하였다. 또한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일 때 드러내는 공손성이 어떠한지, 또한 상대방의 체면을 어느 정도 손상하거나 지키는지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질문도 뒤따라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해당 부정극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부정극어들이 갖는 화용적 특성에 대해 학습자가 모어 화자와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테스트 문항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표Ⅲ-06>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의 출제 기준 및 문항 예시

문항	선택항	출제 기준	화행
1	도무지/도저히/전혀/절대 60)	체면 위협	설명
2	도무지/도저히/전혀/절대	공손성	인사
3	결코/절대/전혀	공손성	언약
4	결코/절대/전혀	공손성/격식성	사과
5	도무지/도저히/전혀/결코	체면 위협	사과
6	도저히/전혀/결코/절대	체면 위협	경고
7	도저히/전혀/절대/결코	체면 위협/격식성	반박
8	별로/전혀/그다지/절대	공손성	거절
9	전혀/절대/별로/그리	공손성	위로
10	전혀/절대/별로/그리	공손성	거절
8. [상황] 당신은 길거리에서 회사 신제품을 추천하려는 화장품 판매원을 만났습니다.			

60) 본고에서는 '결코'와 '절대로'를 연구 대상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로 삼았는데 이해 양상 조사의 셋 번째 부분인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 문항을 개발했을 때 '절대로' 대신하여 '절대'를

점원: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나온 신상인데,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나: 죄송해요. 화장품에 대해 ( ) 관심이 없어서요.

1). 위 상황에서 {나}의 발화의 괄호 안에 어느 부정극어를 사용할까요?
A.별로 B.전혀 C. 그다지 D. 절대
2).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어느 정도 공손하게 표현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매우 공손하다 ②약간 공손하다 ③보통 ④별로 공손하지 않다 ⑤전혀 공손하지 않다
3).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상대방의 체면을 어느 정도 위협 혹은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강함)
②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약함)

이상의 테스트 내용 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학습 관련 정보에 대해 확인하고자 부정극어 유의어의 학습 경험 유무와 학습 시기, 그들의 차이점에 대한 학습 여부, 사용 빈도, 숙달도, 교재 및 교사 설명에의 만족도에 관한 문항도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에 있어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와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 대해 더 세밀한 인과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다.

이상의 설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 결과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Numan(2009:201)은 산출과제 연구의

선택항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Ⅱ장의 코퍼스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문어에서 강조형인 '절대로'가 더 많이 사용되고 구어에서 말하기의 편의성 때문에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절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는 모두 다 구어적 대화 장면이어서 문어체 성격이 강한 '절대로'를 선택항으로 제공한다면 모어 화자가 그 사용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인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모어 화자의 실제 부정극어 사용 양상을 살피고 중국인 학습자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사 부정극어로 기능할 때 '절대로'와 의미 차이가 없는 '절대'를 선택항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둘 이상의 자료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부정극어 유의어 이해 양상을 고찰하는 데 사용한 설문지는 두 집단의 부정극어 변별 능력을 측정할 수 있긴 하지만, 이해 양상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또는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낀 원인에 대해 고찰함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참여자 응답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응답 참여자 가운데 서로 다른 답안을 선택하거나 정확도가 낮은 중국인 학습자 6명[61]과 모어 화자 5명[62] 총 11명을 대상으로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일대일로 진행되었으며 평균 1시간 정도의 질문과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의 내용 구성은 대체로 아래 <표Ⅲ-07>와 같다.

<표Ⅲ-07> 사후 점검 인터뷰의 구성

구성	질문 세부 내용
응답에 관한 질문	이 문항이 정확하다고/틀리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항의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부정극어가 해당 맥락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61) 사후 점검 인터뷰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정보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	성별	전공
CKL-01	남	한국어교육학 박사 재학
CKL-02	여	국어국문학 석사 재학
CKL-03	여	대학교 한국어 전공
CKL-04	남	대학교 한국어 전공
CKL-05	여	국어교육학 석사 재학
CKL-06	여	국어교육학 석사 재학

62) 사후 점검 인터뷰에 참여한 모어 화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정보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	성별	전공
NK-01	여	국어국문학 학사 재학
NK-02	남	국어교육학 학사 재학
NK-03	여	한국어교육학 석사 졸업
NK-04	남	교육공학 박사 재학
NK-05	여	경영학 학사 재학

	무엇입니까? 이들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정극어 유의어의 학습에 관한 질문	부정극어 유의어들이 어떤 통사, 의미적 차이점을 갖는다고 배웠습니까? 부정극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배웠습니까?

1.3. 조사 절차

본 연구는 2020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중국인 고급 학습자 27명과 한국인 모어 화자 2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고 2021년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중국인 고급 학습자 56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45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참여자 중 학습자 6명과 모어 화자 5명을 대상으로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절차는 아래의 <표Ⅲ-08>와 같다.

<표Ⅲ-08> 조사 절차

<예비 조사>[63]
2020년 11월 9일~11월 11일
CKL 집단 27명[64] & NK 집단 22명[65]

↓

<본 조사>
2021년 2월 23일~25일
CKL 집단 27명 56명 & NK 집단 45명

↓

63) 예비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테스트 문항 유형을 수정하였고, 수정된 문항들은 다시 한 번 한국어교육전공 석사 졸업생 1명과 박사 졸업생 1명의 자문을 받아 설문지 내용을 보완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본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 내용을 확정하였다.

64)예비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 실험집단의 연령은 20~30대, 여성 24명, 남성 3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한국어 학습기간은 3년 이상이었고 모두 TOPIK 고급(5급 혹은 6급)을 통과하였다.

65)예비조사에 참여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예비실험집단은 20~30대의 여성 12명, 남성 10명으로 이루어졌다.

<사후 점검 인터뷰>
본 조사 참여자 중
CKL 집단 6명 & NK 집단 5명
↓
조사 결과 비교 및 분석

2. 조사 결과 분석

조사 결과는 부정극어 유의어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 층위의 변별 기제에 대한 이해 양상 분석과 학습 정보에 관한 조사를 위주로 기술한다.

2.1. 의미적 변별 기제에 따른 이해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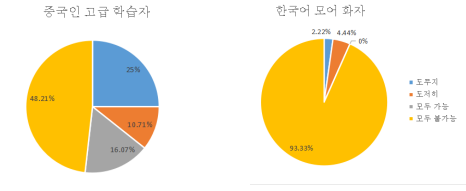
CKL 집단과 NK 집단이 부정극어 유의어 의미 차이의 변별에 있어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본고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 통계 프로그램 SPSS의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활용하였다. 본 조사에 중국인 고급 학습자 56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45명이 참여했으므로 표본수가 작고 조사 문항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기대빈도 5이하인 셀이 많아져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 값의 신뢰도가 떨어진다(신상근, 2014).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으로 두 집단의 답변 양상을 비교·분석하고자 했다.

<표Ⅲ-09> 중국인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의 문항별 정확 검정 통계 결과

문항	x^2 [66]	P	문항	x^2	P	문항	x^2	P
1	17.261	0.000**[67]	6	8.440	0.036**	11	10.183	0.010**
2	10.065	0.012**	7	14.230	0.002**	12	26.463	0.000**
3	4.459	0.213	8	9.714	0.019**	13	11.289	0.005**
4	17.579	0.000**	9	9.856	0.016**	14	16.013	0.001**
5	26.030	0.000**	10	13.898	0.002**	15	15.582	0.001**

위의 피셔의 정확 검정 결과에 따르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유의관계 및 변별 의미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출제된 15개의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 중 3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문항에서 유의확률(P)<0.05로 두 변수 간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므로 두 집단이 부정극어의 의미관계 이해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많은 문항의 판단에서 CKL 집단은 NK 집단에 비해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Ⅱ. 다음 밑줄 친 단어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5. 약을 먹어서 이제 배가 전혀 아프지 않다.	
A.도무지	B.도저히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대부분 문항의 경우 NK 집단은 한두 선택항에 집중되는 일관성을 보인 반면, CKL 집단의 문항 선택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분산된 모습을 보였다. 두 집단이 같은 어휘를 선택하더라도 선택률에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집단의 부정극어 유의어의 의미적 변별 기제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 해당 문항과 관련된 각 집단의 선택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Ⅲ-10> '도저히', '도무지', '전혀'에 관한 7개의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의 집단별 선택 양상 비교

66) x^2 은 카이제곱 검정값이다.
67) 정확 검정 유의확률(P)<0.05일 때 '**'로 표시한다.

다음 밑줄 친 단어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중국인 고급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1.그의 무례한 행위를 <u>도무지</u> 참을 수가 없다. A.도저히 B.전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 48.21% B. 25% C. 25% D. 1.79%	A.75.56% B.0% C.24.44% D.0%
2.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는 <u>도무지</u> 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A.도저히 B.전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39.29% B.25% C.30.36% D.5.36%	A.15.56% B.44.44% C.40% D.0%
3.이 일은 내 전공이 아니라서 밤을 새워도 <u>도저히</u> 해낼 수 없을 것 같다. A.도무지 B.전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39.29% B.28.57% C.25% D.7.14%	A.40% B.13.33% C.40% D.6.67%
4.그를 어디서 만났는지 <u>도저히</u> 생각이 안 난다. A.도무지 B.전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14.29% B.50% C.32.14% D.3.57%	A.8.89% B.17.78% C.73.33% D.0%
5.약을 먹어서 이제 배가 <u>전혀</u> 아프지 않다. A.도무지 B.도저히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25% B.10.71% C.16.07% D.48.21%	A.2.22% B.4.44% C.0% D.93.33%
6.이것은 우리가 <u>전혀</u>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A.도무지 B.도저히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14.29% B.23.21% C.32.14% D.30.36%	A.20% B.17.78% C.11.11% D.51.11%
7.아내가 잔소리를 하여도 <u>전혀</u> 소용이 없다. A.도무지 B.도저히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16.07% B.19.64% C.32.14% D.32.14%	A.46.67% B.4.44% C.31.11% D.17.78%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 1번 문항의 경우, 불능부정을 강조하는데 세 부정극어의 사용이 모두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각각 갖고 있는 의미나 어감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모든 맥락에서 완벽하게 대치되지 않는다. 사전의 의미에 따라 1

번의 문장에서는 '도무지'와 '도저히'를 동일하게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끝내 그의 무례한 행위를 참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혀'를 사용하면 '그의 무례한 행위를 조금도 참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진다. 즉 이 구문에서 전혀'가 의미의 초점을 둔 곳은 '도무지, 도저히'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답변 양상을 보면 '도저히'를 답안으로 선택한 비율은 CKL 집단의 경우 48.21%로, NK 집단은 75.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 따라 두 집단이 '도무지'와 '도저히'의 의미적 유사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번 문항에서 '도무지'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안 된다'의 불능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전연]이라는 의미성분을 가지므로 여기에 더해서 단순부정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두 가지 의미 기능이 섞어져 확실히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NK 집단의 44.44%가 '전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전혀'를 답안으로 고른 비율이 CKL 집단보다 높았다. 모어 화자의 1순위 응답과 달리 CKL 집단의 39.29%가 이 맥락에서 '도저히'를 가장 적절한 응답으로 선택하였다.

3번 문항은 언뜻 보기에 '도무지, 전혀'가 모두 '도저히'를 대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종결 어미를 보면 '도무지'로 치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ㄹ 것 같다'라는 어미를 통해 화자가 발화시 이 일을 완성하지 않았거나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 처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한규(2001)에서 '도무지'를 사용할 때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실제의 노력이 행해져야 함이 요구되므로 노력이나 시도가 기울여질 수 없는 미래 또는 가정된 상황을 기술할 경우라면 '도무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3번 문항에서 '도무지'가 사용될 수 없다고 보겠다. 화자가 '노력이나 시도를 수행하고 밤을 새워도 이 일을 해내지 않았다./해낼 수 없었다.'는 결과를 기술할 때는 '도무지'의 사용이 허용된다. 따라서 위의 3번과 같은 추측의 경우, 불능부정을 의미하는 '도저히'를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 '전혀'로 치환할 수 있으나 '도무지'로는 치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의 답변 양상 및 사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이러한 '도무지'의 사용 제약을 유의하지 못하고 의미를 중심으로 '도무지'와 '도저히'가 교체할 수 있다고 판

단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4번 문항 역시 이 유의어군의 공통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인데, 이 세 단어의 유의관계를 입증했듯 73.33%의 모어 화자가 '도저히'는 '도무지, 전혀'와 모두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절반의 학습자가 이 맥락에서 '도저히'가 허가되지 않으며 '전혀'로만 치환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 세 부정극어의 의미 변별 및 이해에 혼란을 겪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5, 6번 문항은 '전혀'와 '도무지, 도저히'의 변별적 의미 차이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피기 위한 문항들이다. 5번 문항은 객관적으로 상태부정/단순부정을 나타내고, 6번 문항은 [+의외성]을 의미하므로 '도무지, 도저히'보다 '전혀'의 사용이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보인다. 물론 문맥을 더 보충해 준다면 '도무지, 도저히'의 사용을 허가할 수도 있겠으나 이 두 문항에서는 '전혀'를 '도무지' 혹은 '도저히'로 치환할 수 없다고 보겠다. 5번 문항의 선택에서 NK 집단의 93.33%가 '전혀'의 변별적 의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48.21%의 학습자만이 해당 상황에서 '도무지'나 '도저히'가 쓰이면 어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6번 문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두 집단의 응답을 통해 '전혀'와 '도무지, 도저히'의 변별에 있어서 학습자 집단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다시 입증하였다.

문항 7에서는 '전혀'가 [+전연]의 단순부정을 의미하므로 '도무지'로 치환해도 성립되지만 '도저히'로 바꾸면 어색하게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전혀'와 '도무지'의 공통 의미 영역이지만 '도저히'와는 변별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KL 집단의 16.07%만이 '도무지'와 '전혀'의 유의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혀'와 '도무지'의 공통 의미 특성에 대해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뷰 내용】

연): 5번에서 '도무지'와 '도저히'를 쓸 수 없다고 하고 6번에서는 쓸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CKL-05): 개인적으로 '도무지'와 '도저히'는 형용사보다 동사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등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 5번과 6번의 선택 원인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CKL-06): 비록 전혀는 '도무지/아주/완전히'의 뜻을 나타내지만 해당 예문에서의 전혀는 '하나도'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5번 예문의 '도무지'와 '도저히'는 '아무리 해도'라는 뜻을 나타나기에 여기서 말하는 '전혀'와는 맞지 않는 의미이라고 생각해요. 6번에서는 '전혀'는 '도무지/아주/완전히'라는 뜻을 나타내요. '도무지'는 이미 '전혀'의 뜻과 같고 '도저히'는 '도무지'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연): 5번과 6번 문제를 답했을 때 그 판단 근거가 뭐예요? NK-02): '아프지 않다'는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이잖아요. 이럴 때 '도무지'와 '도저히'가 잘 안 어울려요. 6번은 '예상된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서 '도무지'와 '도저히'가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 5번, 6번에서 '전혀' 대신 '도무지, 도저히'를 쓸 수 없다고 판단하셨네요. 그 이유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NK-03): '도저히'와 '도무지'는 어떤 시도에서 그 시도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문장에 쓰인 것 같아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도저히-도무지-전혀'가 갖는 의미적 변별 기제에 대한 두 집단의 이해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무지'와 '도저히'의 공통 의미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는 그 변별 의미보다 더 높다고 보인다. 대부분 학습자들은 불능부정을 의미할 때 '도저히'와 '도무지'가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도무지'가 단순부정의 의미도 더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이해가 부족하다. 둘째, '전혀'와 '도무지, 도저히'의 유의관계 및 변별 의미에 대해 학습자의 이해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학습자들은 가장 먼저 학습한 '전혀'의 기본 의미와 용법에 대해 잘 익히고 있으나 '도무지'의 의미를 좁게 생각하여 이 유의어군의 의미 관계를 단순화하는 이해 양상을 보인다. 셋째, NK 집단은 이 세 부정극어의 공통 의미와 변별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교체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의 정확도가 CKL 집단보다 높지만 몇몇 문항에서 그 선택 양상이 역시 흩어진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

면 이 세 부사 부정극어의 유의관계를 판단하고 변별하는 것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무지'와 '도저히'는 모어 화자에게도 의미적 유사성이 매우 높은 유의어인 것을 보여주듯 맥락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항에서 서로 교체되어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응답자가 적지 않았다.

<표Ⅲ-11> '결코', '절대로'에 관한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의 집단별 선택 양상 비교

다음 밑줄 친 단어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중국인 고급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8.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겐 **반드시** 비밀로 지켜 주십시오. A.결코 B.절대로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7.14% B.57.14% C.8.93% D.26.79%	A.20% B.31.11% C.4.44% D.44.44%
9.박물관에서는 허락 없이 **절대로** 사진을 찍지 마세요. A.결코 B.전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28.57% B.10.71% C.12.5% D.48.21%	A.51.11% B.0% C.4.44% D.44.44%
10.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A.절대로 B. 전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57.14% B.8.93% C.10.71% D.23.21%	A.88.89% B.0% C.6.67% D.4.44%

앞서 '결코', '절대로'의 변별 기제를 밝혔을 때 이 유의어 쌍은 유사성 정도가 매우 큰 만큼 많은 문맥에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에 정리한 사전의 뜻풀이만 보더라도 '결코'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절대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라고 하여 그 둘의 의미 차이를 알 수 없게 설명해 놓고 있다. 화자가 부정의 서술 내용을 결정적으로 단언하는 것이 부정 서술 내용을 최고의 정도로 강조하는 것과 통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두 부정극어는 같은 의미로 파악되기 일쑤다. 단 어떤 행위를 금지하려는 직접적인 명령일 때 '결코'보다는 '절대로'의 사용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한편, 통사적 측면에서 서정수(1994)에서 지적했듯이 '절대로'는 긍정문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다.[68]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도 '절대로'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의 의미이고, 둘째는 '(일부 단어와 함께 쓰여)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의미에 따른 예문으로는 '종교인에게 있어서 신실한 태도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이 사실은 절대로 비밀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업장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윤(2013)에서 이러한 '절대로'의 이중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절대로'의 의미 구조가 두 갈래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확인하며 긍정표현과 어울리는 '절대로'를 '절대적으로'의 축약 형태로 보는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앞에서는 코퍼스 분석과 함께 '절대로'가 긍정문에 쓰인다는 것은 이 유의어 쌍의 변별 기제가 되기도 한다고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8번 문항에서 '반드시'를 '절대로'로 치환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항의 응답률 분석 결과 '절대로'의 이러한 긍정문 용법에 대한 CKL 집단의 이해도는 오히려 NK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자 집단의 57.14%, NK 집단의 31.11%가 이 맥락에서 '절대로'가 '반드시'를 대신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사후 인터뷰 결과 '절대로'의 긍정문에서의 쓰임 및 원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들은 거의 없으며 모국어나 어감에 의해 문제를 답했다고 한 학습자가 적지 않았다. 이는 곧 긍정문에서 부정극어의 기능이 확장되는 양상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9번 문항은 강한 부정 명령을 나타내는 화자의 서술 내용에 대한 단언이 성립되지 않는 명령문이므로 어떤 행위를 얼마나 강하게 명령하느냐가 중요하고, 진술에 대한 단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가 쓰이면 어색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응답 결과를 보면 '결코'와 '절대로'의 이러한 변별 의미를 인식하

68) 서정수(1004)에서는 '절대로'가 긍정문에 쓰이는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c) 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 ?절대로 그럼 말을 해야 한다.

다. 기업체는 기부금을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

라. 국민은 세금을 (절대로/반드시) 내야 한다.

고 있는 모어 화자와 학습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약 20%의 학습자가 이 문장에서 '전혀'가 '절대로'를 대신하여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다시 일부 학습자가 '전혀'의 서법 제약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한편, 두 집단의 '결코'와 '절대로'의 공통 의미에 관한 문항의 정확도는 변별 의미에 대해 이해 여부를 알아보는 문항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 유의어 쌍의 변별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모어 화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0번 문항은 '명령, 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계도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결코, 절대로'의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이때 부정의 서술 내용을 단언적으로 말하는 것과 부정 서술 내용을 최고의 정도로 강조하는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 이해 수 있으므로 '결코, 절대로'의 공통적 의미 영역이라 한다. 이 문항의 응답 결과 약 90%의 모어 화자가 이 문맥에서 '결코', '절대로'가 서로 교체될 수 있다 확실하게 판단했으나 43%의 학습자가 이러한 문맥에서 이 유의어 쌍이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결코'와 '절대로'의 변별에 대해 일부 학습자의 인터뷰 내용을 살피도록 한다.

【인터뷰 내용】

연): 33번은 부정문이 아닌데 왜 '절대로'를 썼어요? CKL-01): 강조하려고요. 연): 그럼 '결코'를 쓰면 강조가 안 되는 건가요? CKL-01): 사실 '결코'하고 '절대로'가 되게 헷갈렸어요. 지금도 그 의미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 '꼭/반드시 비밀을 지킨다'라고 말하려면 '절대로'가 더 어울려요.
연): 8번에서 '반드시'의 자리에 '결코' 혹은 '절대로'가 대신 쓰이면 안 될까요? CKL-05): '결코'와 '절대로'는 보통 부정어와 같이 쓰여서 비밀을 지켜 달라는 상황에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연): 9번에서도 '결코'나 '전혀'를 쓰면 어색하게 느껴져요? CKL-05): 네. '결코'와 '전혀'는 뒤에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지만 보통 화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려고 쓰이는 단어라고 봐요. 여기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와 같이 화

자 자신의 의지가 아닌 제 3 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결코'와 '전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연): 9번에서 '절대로'를 '결코'로 치환하면 어떨까요? CKL-03): 좀 어색해요. 금지하거나 명령할 때 '결코'보다 '절대로'를 자주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결코'는 약속을 할 때 많이 쓴 것 같아요.
연): 10번에서 '절대로'와 '결코'는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네요. 왜요? CKL-04): '결코'하고 '절대로'는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절망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나타내요. 연): 여기에서 '결코'와 '절대로'를 쓰면 차이가 있을까요? CKL-04): 중국어 번역으로 다 '绝对'인데 의미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솔직히 차이가 있겠죠.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연): '결코'와 '절대로'의 의미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CKL-02): '결코'와 '절대로'는 전체적인 의미는 같지만 '절대로'는 특수한 경우 긍정문에도 쓰일 수 있으나 '결코'는 부정문에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 8번 문항에서 밑줄 그은 '반드시' 대신 '결코'나 '절대로'를 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NK-03): '결코'하고 '절대로'의 뒤에는 어감상 부정의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못 쓸 거 같아요.
연): 9번에서 '절대로'의 자리에 '결코'를 쓰면 어떨까요? NK-01): '결코'라는 단어 자체가 문어체에 가까워요. 구어에서 '결코 -지 마세요'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정극어 유의어 '결코-절대로'가 갖는 의미적 변별 기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결코'와 '절대로'에 대하여 의미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유의어로 인지하고 있다. 둘째, 모어 화자들은 부정극어의 긍정 쓰임에 대해 민감한 편인데, 학습자들은 '절대로'의 긍정문에서의 쓰임에 대해 보다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Ⅲ-12> '별로', '그다지', '그리'에 관한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의 집단별 선택 양상 비교양상

다음 밑줄 친 단어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중국인	한국어

단어를 고르십시오.	고급 학습자	모어 화자
11.추울 줄 알았는데 오늘 **별로** 춥지 않다. A.그다지 B.그리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19.64% B.25% C.51.79% D.3.57%	A.22.22% B.4.44% C.73.33% D.0%
12.지금 할 말이 **별로** 없다. A.그다지 B.그리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23.21% B.17.86% C.19.64% D.39.29%	A.53.33% B.2.22% C.37.78% D.6.67%
13.민호는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가? A.별로 B.그다지도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5.36% B.41.07% C.10.71% D.42.86%	A.2.22% B.71.11% C.0% D.26.67%
14.잘 해결될 테니까 **그리** 걱정하지 말라. A.별로 B.그다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14.29% B.39.29% C.14.29% D.32.14%	A.33.33% B.8.89% C.28.89% D.28.89%
15.**그리** 먼 길인 줄은 미처 몰랐다. A.별로 B.그다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A.8.93% B.37.5% C.10.71% D.42.86%	A.4.44% B.15.56% C.0 D.80%

11번 문항에서 실제 날씨의 추운 정도가 화자의 예상 정도에 도달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소극적 부정극어인 '별로, 그다지, 그리'가 모두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앞서 이 유의어군의 의미 성분을 밝힌 바와 같이 이 세 부정극어는 모두 [+기준], [-도달]을 나타내며 부정소와 함께 쓰일 때 대응하는 중국어 번역은 '不太, 不那么'이다. 이 문항의 응답 양상을 보면 NK 집단의 73.33%가 이 맥락에서 세 단어를 모두 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CKL 집단의 51.79% 역시 모어 화자와 동일하게 '별로, 그다지, 그리'의 유의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11번에서 '별로'를 '그다지' 혹은 '그리'로만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2, 13, 15문항의 경우 NK 집단의 응답은 보다 현저한 경향성을 보인 반면, C

KL 집단의 선택은 분산된 모습을 보여준다. 일부 문항에서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와 동일한 선택을 하더라도 선택률에 있어서 격차를 보인다.

12번 문항은 '그다지, 그리'의 통사적 제약을 드러내는 문맥인데, 앞서의 논의와 같이 '별로'와 달리 '그다지'와 '그리'는 그 안에 쓰이는 지시어 '그-'의 영향으로 인하여 문항 12와 같은 보문화 구문에서는 정도의 등급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직접 '없다'를 수식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단 '-ㄹ N-이/가 없다'와 '-(으)ㄹ 수 없다' 같은 구문에서 그 앞에 정도성을 띤 술어 성분이 나타나 있으면 '그다지, 그리'가 보다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문법적인 판단은 실제 많은 모어 화자의 인지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정확도가 낮다는 점에서 이 문항은 두 집단에게 대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13번 문항에서 '그러한 정도로. 또는 그렇게까지.'라는 '별로'와 변별되는 '그다지'와 '그리'의 공통적 의미 영역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앞서 '그다지'의 사전적 의미 기술과 예문, 그리고 SJ-RIKS 코퍼스 용례 분석을 통해 '그다지'가 의문문에 쓰이어 화자의 놀라움이나 감탄을 나타낼 때 '그리'와 의미적 유사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NK 집단의 71.11%가 이 맥락에서 '그다지'가 '그리'를 대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미 영역의 구별에 대해 모어 화자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 집단의 경우, '그리'와 '그다지'가 해당 맥락에서 교체되어 사용 가능하다고 파악하는 학습자는 41.07%에 달했으나 치환할 수 없다고 본 학습자의 비율은 조금 더 높아 42.8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많은 학습자가 13번과 같은 부정소 없는 의문문에서 '그다지'와 '그리'의 유의관계를 의식하지 못하고 주로 부정소와 함께 쓰이는 부정극어로서의 의미만 파악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14, 15번 문항에서는 '그리'가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러한 모양'의 사전적 의미를 나타내어 '별로, 그다지'와의 변별 의미에 대한 이해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다. 14번의 문맥에서 '그리'를 지나친 정도를 부각시키는 '과히'로 치환하면 자연스럽지만 '그다지, 별로'의 의미 차이 또한 서법 제약으로

인하여 대치할 수 없게 되었다. 15번 문항에서도 '별로' 혹은 '그다지'가 쓰이면 어색한 문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답변 결과 이 두 문항에서 '그리'의 자리에 '별로' 혹은 '그다지'가 사용될 수 있다고 선택한 학습자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이 '그리'와 '별로, 그다지'의 공통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집단의 응답은 분산된 경향을 보여 그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 유의어군의 의미 변별과 관련한 학습자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인터뷰 내용】

연): 12번에서 '그다지'와 '그리'를 쓸 수 없다고 하셨네요. 왜요? CKL-01): '별로 없다'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 없다'는 뭔가 어색하게 들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다지'의 의미를 잘 몰라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연): '별로, 그다지, 그리'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CKL-02): '별로, 그다지'는 모두 '不太, 不那么'의 의미이고, '그리'는 '那么'로 이해하고 있어요. 연): 그럼 13, 14, 15번에서 '별로, 그다지'를 쓰면 안 될까요? CKL-02):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는 '별로, 그다지'하고 좀 달라요. '그리'는 긍정 의미로 쓸 수 있는데 '별로, 그다지'는 부정문에서 사용돼요.
연): 13번에서 '그다지' 혹은 '별로'를 쓰면 안 돼요? CKL-04): 아마 써도 돼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요.
연): 14번, 15번에서 '그다지'가 '그리'를 대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요? CKL-05): '그리'와 '그다지'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별로 그렇게까지'라는 약간 부정적인 뜻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그러한 정도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별로'는 '그렇게까지'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 걱정하지 말라.'와 '그리 먼 길인 줄은 미처 몰랐다.' 두 상황에서는 '그리'가 '그렇게' '그렇게까지'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별로'보다는 '그다지'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통해 많은 학습자들이 모국어에 따라 '별로'와 '그다지'의 핵심 의미를 부정 정도성으로 이해하고 있어 긍정문에서 쓸 수 없다고 보고 '그리'만 부정문이 아닌 문맥에서 쓸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CKL-05과 같이 '그다지'의 긍정문에서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학습자도 있었으나 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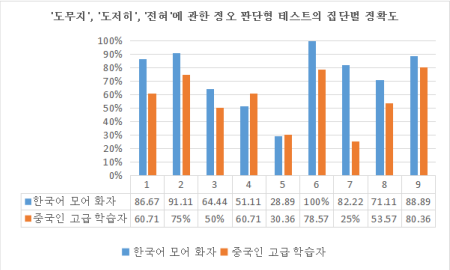
학습자는 '그다지'가 '그리'처럼 적극적으로 다양한 긍정 의미의 사용 환경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당 문맥이 긍정문일 때 학습자들은 CKL-02처럼 '그다지'와 '그리'가 같은 의미로 서로 치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 이와 같은 '그다지'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은 '그다지'와 '그리'의 긍정 의미가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도록 하여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정극어 유의어 '별로-그다지-그리'가 갖는 의미적 변별 기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별로'와 '그리'의 변별 의미에 대한 학습자 집단의 이해도가 '그다지'와 '그리'의 의미 차이에 대한 이해도보다 높은 편이다. 이것은 '그다지'의 이중적 의미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둘째, '그다지'에 비해 '그리'의 긍정문에서의 쓰임에 대해 학습자들이 더 익숙하다. 셋째, '별로, 그다지, 그리'의 공통 의미에 대해 학습자의 이해도는 비교적 높지만 변별 의미를 드러내는 맥락에서 그 의미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인다.

2.2. 통사적 변별 기제에 따른 이해 양상

우선 CKL 집단과 NK 집단의 '도저히', '도무지', '전혀'의 통사적 변별 기제에 대한 이해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출제된 각 문항의 정답률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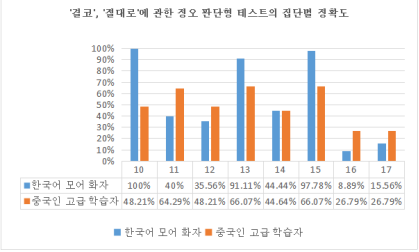
[그림Ⅲ-01] '도저히', '도무지', '전혀'에 관한 9개의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집단별 정확도



[그림Ⅲ-01]을 통해 NK집단에 비해 CKL 집단의 정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9개의 문항의 NK 집단의 평균 정확도는 73.83%이고 CKL 집단의 평균 정답률은 57.14%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가 개별 부정극어의 통사적 변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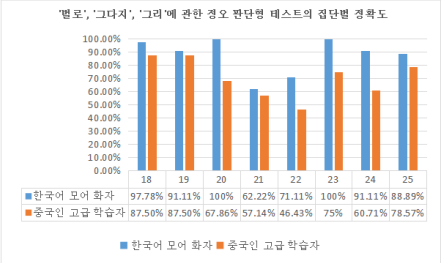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4번 문항과 5번 문항의 경우, 학습자의 정답률이 더 높다는 점이다. 4번과 5번 문항은 모두 '도저히'의 통사적 특성과 관련된 것인데 주어 제약과 서술어 제약으로 인해 정문으로 보기가 어렵다. 하지만 모어 화자까지 이러한 통사적 사용 제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나머지 문항에 대한 결과 분석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림Ⅲ-02] '결코','절대로'에 관한 8개의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집단별 정확도



[그림Ⅲ-02]은 '결코'와 '절대로'의 통사적 특성에 관한 8개의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집단별 정확도인데, 10번, 13번, 15번 문항의 경우 모어 화자의 정확도가 눈에 띄게 높지만 11, 12, 16, 17번 문항의 정확도는 그다지 높지 않으며 심지어 학습자보다 낮은 모양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 엉뚱하게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뒤에서 알아보겠다.

[그림Ⅲ-03] '별로', '그다지', '그리'에 관한 8개의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집단별 정확도



[그림Ⅲ-03]은 '별로', '그다지', '그리'의 통사적 특성에 근거하여 출제한 8개의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집단별 정확도 분석 결과인데, CKL 집단의 정답률은 여전히 NK 집단보다 낮았지만 그 평균 정답률이 70%를 넘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이 세 부정극어의 통사 제약을 가장 잘 숙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통사적 제약 및 특성을 모두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상의 도표를 통해 두 집단이 부정극어의 통사 제약 이해 양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이 부정극어 유의어의 통사적 변별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진위형 판단 테스트 문항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 양상 결과에 대한 CKL 집단과 NK 집단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겠다.

부사 부정극어 각각의 통사적 특성의 이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출제한 25개의 진위형 판단 테스트에 대해 학습자들이 답한 결과를 보면 정확한 것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양상도 나타났고, 틀린 것을 정확하다고 판단한 양상도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NK 집단의 정확도는 CKL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사 제약에 대해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래 문항의 경우, 낮은 정확도를 보이거나 학습자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항	답안	출제 기준
4. 날씨가 도저히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X	'도저히'의 주어 제약: [+animate]을 갖고 있는 유정물주어가 요구됨.
5. 나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도저히 예쁘지	X	'도저히'의 서술어 제약: 형용사 수식 제약을 받음.

가 않다.		
16. 나는 결코 이 일을 못 할 것 같다.	X	'결코', '절대로'는 화자가 사태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타낼 때 사용되므로 불확실한 사태에 대한 추정에 쓰이는 '-ㄴ 것 같다', '-ㄹ 거예요' 구문에 잘 쓰이지 않음.
17.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도착하지 않을 거예요.	X	16번 문항과 마찬가지임.

4번 문항과 5번 문항은 각각 '도저히'의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에 대한 문항이다. 일반적으로 '도저히'는 무정물 주어 및 형용사 서술어 수식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앞에서 확인한 바가 있었다. 비록 정확하게 이 두 문장을 비문으로 판단한 학습자가 있었으나 사후 인터뷰에서 '도저히'의 이러한 제약을 명확하게 인지한 학습자는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의 학습자가 부정극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하며 문법성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이 아닌 직관과 번역에 의해 문장이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했다고 하며 자신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부정극어들의 용법에 대해 질문했을 때에야 학습자들은 비로소 부정극어들이 통사적 사용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16번과 17번 문항은 '결코', '절대로'의 추측형 서법 제약에 관한 문항이다. 이 두 부정극어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발화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사용되기 때문에 '-ㄹ 것 같다', '-ㄹ 거예요' 같은 추측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모순된다. 때문에 16, 17번의 문장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응답 결과를 통해 모어 화자까지 목표 어휘 '결코, 절대로'가 의미적으로 적합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어미, 서법, 시제 등 다른 문장 성분을 미처 주의하지 못했다고 하며 '결코, 절대로'의 추측형 제약을 유의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인터뷰에서 이 두 문장을 오류문이라고 판단한 학습자는 대응되는 중국어 번역문 '这件事我好像绝对做不到', '这个时候爸爸应该绝对还没有到达吧'가 어색한 문장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문을 틀렸다고 판단했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CKL 집단이 개별 부정극어의 특수한 통사적 제약에 대한 입력이 부재하거나 혹은 입력이 불충분해서 목표 문법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학습자가 부정극어 각각의 사용 제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인식 및 이해가 깊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모국어에 의해 스스로 부정극어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차이 또는 개별 부정극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교육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학습자들이 부정극어 유의어를 변별 및 사용하는 데에 오류를 범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문항	답안	출제 기준
12. 물과 공기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O	'절대로'는 '절대적으로'의 축약 형태로 본다면 긍정문에서의 사용이 가능함.
20. 오늘따라 발걸음이 별로 가볍게 느껴진다.	O/X	사전과 문헌 자료에서 '별로'는 '특별히'의 의미로 긍정문에서의 쓰임을 보이지만 오늘날 주로 부정문에 쓰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수용성에 개인차가 있을 것임.

12번 문항은 SJ-RIKS 코퍼스에서 뽑아낸 부정소가 들어 있지 않은 긍정문인데, '절대로'의 이러한 용법에 대해 대부분의 모어 화자와 학습자가 문법적 오류로 보았다. 20번 문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부정문에서 출현한다고 인식해 온 '별로'의 사용 환경과 달리, 이 문장은 아무 부정소도 없는 긍정문으로서 여기서 '별로' 대신 '특별히'를 사용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 하지만 사전의 풀이를 보면 20번 문항에서의 '별로'의 사용은 단순히 개인의 문법적 오류가 아님을 알 수 있다.[69] 17세기 국어에서는 '별로'가 '따로 별나게, 또는 따

69) 『우리말샘』에서 '별로'의 의미 기술은 다음과 같다.

단어	뜻풀이	예문
별로	① (부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이렇다 하게 따로. 또는 그다지 다르게.	· 별로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 · 그의 병세는 예전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
	② [북한어] 따로 별나게. 또는 따로 특별히.	· 부인 처소를 별로 정하다. · 박창순은 별로 미타미타한 생각이 들어서 극히 실무적인 말로 길을 대 주었다.

로 특별히'의 의미로 긍정표현과 호응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때는 '특별히, 유별나게'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겠다(이수현, 2003:25).[70] 그러나 '별로'의 이러한 특수 쓰임에 대해 두 집단의 이해도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앞선 Ⅱ장에서 '절대로'와 '별로'를 비롯하여 개별 부정극어의 특수 용법과 이중적 의미 특성에 관해 논의했던 것과 같이 본고에서는 부정극어는 긍정문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겠다. 하지만 두 집단의 응답에서는 12, 20번 문항과 같은 긍정문에서의 용법에 대해 이해도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사후 인터뷰에서 대부분 모어 화자들은 " '절대로, 전혀'가 부정문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들 문장은 부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전혀'를 쓰면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긍정문에서의 '절대로, 전혀'의 사용에 대한 모어 화자들의 이해도가 높은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장을 정확하다고 판단한 중국인 학습자의 수가 더 많으며 비교적 높은 이해도를 보인다는 것은 주목된다.

인터뷰에서 12번의 문장을 정문으로 판단한 학습자는 '절대로'와 대응하는 중국어가 긍정문에 쓰일 수 있는 긍정과 부정 의미를 가진 '绝对'이므로 '절대로'의 이러한 사용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였다. 20번 문항에 대한 인터뷰 결과, 20번 문항을 정문이라고 판단한 한 학습자는 예전에 사전을 찾아봤는데, '별로'가 '另外, 特别地, 专门'라는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20번 문항에서의 '별로'를 이러한 의미로 기능한 것인 줄로 알아서 이를 정문이라고 판단했다고 하였다.

문항	답안	설명
21.웬 잔소리가 그다지도 많으냐?	0	'그다지'는 놀라움이나 감탄을 나타낼 때 의문문에 쓰일 수 있음. 또는 '도'의 화용적 의미와 용법과 관련하여 '그다지도/그리도'의 쓰임으로 의문문에 사용됨.
23.자네가 그리 생각해 주니 고맙네.	0	'그리'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러한 모양'의 의미를 나타낼 때 긍정문에서의 사용이 활발함.

70) 심청전(김동욱 소장 45장본<21-앞>)에는 '오날은 변노 반찬이 매우 조코나.'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전에는 '별로'가 '매우'와 같이 긍정문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번의 문장 역시 SJ-RIKS 코퍼스에서 추출한 것인데, 사전과 선행 연구에서도 '그다지'의 이러한 의미와 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법적 오류라고 할 수 없다. 23번에서 '그리'의 사용도 틀림없이 정확한 문장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답변 양상을 보면 '절대로, 별로'에 비해 두 집단이 '그다지, 그리'의 긍정문에서의 쓰임에 대한 이해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번, 23번 문항에 대한 CKL 집단의 정답률은 각각 57.14%, 75%, NK집단의 정답률은 각각 62.22%, 100%로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적으로 '그리'의 긍정 의미에 대한 이해도가 '그다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리'의 긍정문에서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익숙했다는 학습자가 적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산지 오래되었고 모어 화자와의 언어 간격이 좁아서 어감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한 학습자와 모어 화자로부터 이러한 용법을 배웠다고 언급한 학습자도 있다. 반면 학습 경험이 없거나 스스로 잘못된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그다지'를 '별로'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그다지'의 의미를 단순화시킨 학습자도 있었다. 이는 학습 경험 유무가 학습자들의 부정극어 변별 및 이해에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CKL 집단의 오답 양상을 통해 일부 학습자가 부정극어가 부정문에만 쓰여야 한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문항	답안	설명
11.실내에서 결코 담배를 피우지마.	X	직접적인 명령/금지의 뜻을 나타낼 때 '결코'보다 '절대로'의 사용이 더 자연스러움.

11번 문항은 '결코', '절대로'의 의미·통사 층위의 변별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인데, 직접 명령/금지를 나타내는 명령문에는 '결코'가 아니라 '절대로'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 이에 따라 앞서의 논의와 같이 본고에서는 이를 '결코'와 '절대로'의 변별 기제로 삼아 이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응답 결과를 보면 약 절반 이상의 학습자와 모어 화자들이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이 문장을 정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관한 인터뷰 결과, '결코'와 '절대로'의 이러한 변별적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 '결

코'와 '절대로의 의미가 비슷해서 서로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그리고 이 유의어 쌍의 변별을 어려워한다고 답한 학습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정극어 유의어의 통사 층위의 변별적 특성에 대한 CKL 집단과 NK 집단의 이해 양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정극어의 통사적 특성 및 제약에 대한 CKL 집단의 이해도는 NK 집단의 이해도와 차이를 보인다. NK 집단은 부정극어의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서법 제약, 시제 제약 등의 특성에 대해서는 보다 잘 인식하고 있으나 부정극어의 긍정문에서의 쓰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이와 반대로 CKL 집단은 교육의 한계로 인해 부정극어의 통사 제약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스스로 해당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부정극어의 긍정문에서의 쓰임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부정극어 유의어에 대한 교육의 유무는 학습자의 이해 및 변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정극어 각각의 의미와 사용 제약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식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그 차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2.3. 화용적 변별 기제에 따른 이해 양상

본고에서는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를 활용함으로써 부정극어들의 화용적 변별 특성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이해 양상을 비교·분석하고자 했다. 두 집단이 부정극어를 사용할 때 해당 부정극어의 화용적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경향성을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부정극어의 통사적 제약과 의미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항을 유일한 답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더불어 선택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일 때 드러나는 화용적 특성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및 인식 양상을 조사하는 일련의 질문도 설정하였다. 앞서와 같이 두 집단의 응답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피셔의 정확 검증을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Ⅲ-13> 중국인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부정극어 유의어 사용의 문항별 정확 검정 통계 결과

문항 번호	x^2	P	문항 번호	x^2	P
1	19.931	0.000**	6	8.541	0.033**
2	2.658	0.453	7	12.548	0.005**
3	3.054	0.263	8	4.178	0.112
4	17.409	0.000**	9	7.787	0.036**
5	12.134	0.004**	10	3.800	0.154

그 결과 중 10개의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 중 2번, 3번, 8번, 10번 문항의 선택에 있어서 두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나머지 문항에서 정확 검정 유의확률(P)<0.05로 두 변수 간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므로 두 집단의 부정극어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 자세한 결과 확인을 위하여 문항별로 그 응답률 결과를 살피도록 한다.

부정극어는 구어 담화 상황에서 청자에게 공손성을 드러내기 위한 완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때 화자는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낮춰 겸손함을 드러내어 청자의 체면을 지켜주거나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어 공손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정극어들이 공손성의 화용적 효과를 가질 때 발화 내용이 얼마나 강조되는지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용된다.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의 2번, 3번, 4번, 8번, 9번, 10번 문항은 부정극어의 발화 상황에서 공손성을 나타내는 화용적 쓰임에 대한 이해 및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이다.

우선 선생님의 지적에 대해 사과하는 장면이 담긴 3번 문항에서 화자는 자신의 자세를 낮춰 부정극어를 사용하여 발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언약하고 있다. 이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양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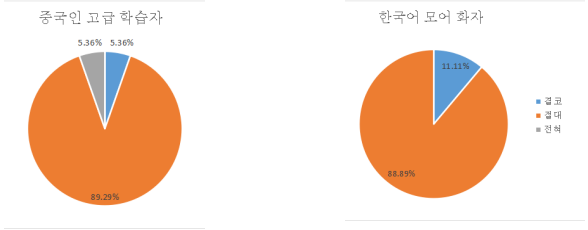
[그림Ⅲ-04] 상황3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상황3] 당신은 지각으로 인해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상태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지각이야?

나: 죄송합니다, 선생님. 내일부터는 (　　) 늦지 않을게요.

A.결코　　B.절대　　C.전혀



[그림Ⅲ-04]에서 보듯이 상황3에 대한 부정극어 선택에 있어서 '결코, 전혀'에 비해 '절대'가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CKL 집단과 NK 집단 두 집단은 모두 90%에 가까운 비율로 상황3의 {나}의 발화에서 '절대'를 가장 적절한 응답으로 선택하였다. 위에서의 통계적 분석 결과와 같이 이 문항에 대해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3번의 맥락과 유사한 4번 문항의 경우, 모어 화자의 사용이 달라져 두 집단의 응답이 다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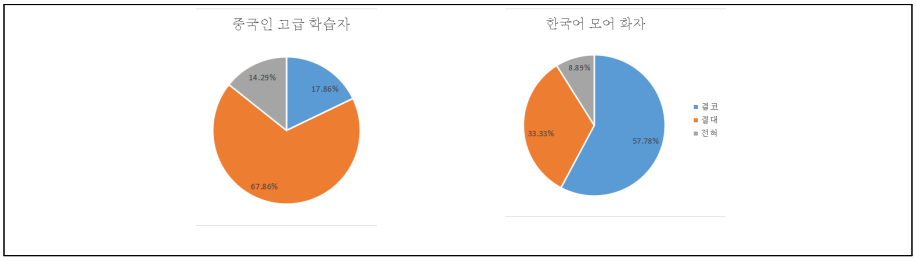
다음 4번 문항과 같이 낯선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고의가 아님을 강조하는 발화에서 부정극어를 사용함으로써 공손함을 발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럴 때 어떻게 발화해야 적절한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학습자들이 사회적 적절성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3번 문항과 같이 '결코, 절대, 전혀'를 선택항으로 삼아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이 문맥은 역시 자신의 자세를 낮추어 적극적으로 공손성을 표현함으로써 청자의 불만을 줄이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그림Ⅲ-05] 상황4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상황4] 당신은 지하철에서 실수로 낯선 이의 발을 밟게 되었습니다.

나: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　　) 고의가 아니었어요!

A.결코　　B.절대　　C.전혀



4번의 집단별 응답 양상을 보면 NK 집단의 57.78%가 '결코'를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33.33%가 '절대'를 2순위 응답으로 선택하였다. 모어 화자의 1순위 응답과 달리 67.86%의 학습자가 3번과 같이 '절대'를 선택하였다. 이 외에 학습자 집단의 17.86%가 '결코'를, 14.29%가 '전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양상이 NK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두 문항에 대한 응답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코'와 '절대'가 담화에서 공손성의 화용적 효과에 대해 모어 화자 집단과 학습자 집단이 인식 차이가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상황 및 맥락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담화에서 '절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인터뷰 내용】

연): 3번, 4번에서 '절대'를 고르셨는데 왜 고르셨어요? CKL-04): 사실 그냥 어감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결코'와 '절대' 중에서 고민을 좀 해 봤는데 둘이 다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는 많이 들어봐서 더 익숙해요.
연): 4번에서 왜 '절대'를 선택했어요? CKL-03): '절대'는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 봤는데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해서요. 연): 그럼 여기에 '결코'나 '전혀'를 쓰면 안 돼요? CKL-03): 쓸 수 있는데 느낌이 좀 달라요.
연): 3번에서 '절대'를 골랐는데, 4번에서 왜 '결코'를 썼어요? NK-01): 사과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정중하게 말해야지요. 연): 그럼 3번, 4번에서 '결코'와 '절대'를 쓰면 느낌이 좀 달라요?

NK-01):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코'는 더 진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게 더 강조되는 거 같아요.
연): 3번과 4번에서 '절대'와 '결코'를 다르게 선택하셨네요. 왜요? NK-05): 제 생각에 '절대'는 '결코'하고 좀 달라요. 일단 4번 상황 자체가 3번보다 더 공식적인 것 같아요. 4번에서 '절대 고의가 아니다'라고 하면 좀 과하게 강조한 것 같아요. 3번에서는 선생님한테 약속을 한 거라서 '절대'를 쓰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일상생활에서 친구랑 말하면서 '결코'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요.

대부분 학습자는 '결코'와 '절대로'의 구어 대화 상황에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긴 하지만 '결코'보다 더 많이 들어 보아 그 쓰임이 익숙한 '절대'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은 CKL-02, CKL-03와 같이 발화 장면 및 맥락에 따라 '결코'와 '절대'의 사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모어 화자의 경우, 학습자와 동일하게 3번, 4번에서 모두 '절대'를 선택한 응답자가 적지 않았으나 NK-01와 같이 4번에서 '절대'의 강한 부정의 특성이 단호하고 무례한 느낌을 준다고 판단하거나, NK-03와 같이 '절대'를 사용한 발화가 청자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어 공손하지 않다고 판단한 모어 화자도 있었다. 이처럼 모어 화자는 언어적 직관 및 사용 습관에 의해 다양한 구어 대화 상황에서 적절하게 부정극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 학습자들의 부정극어 유의어가 갖는 어감 차이에 대한 인식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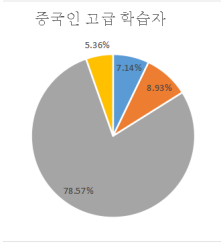
한편, 화자는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청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거나 청자를 위로하여 자신의 관심을 보여주기도 한다. 2번 문항은 카페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고 이때에는 화자가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뻔하다. 따라서 이러한 발화 상황에서는 주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된 '도무지, 도저히'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이 문항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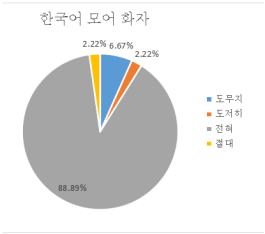
[그림Ⅲ-06] 상황2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2. [상황] 당신은 카페에서 우연히 옛 친구 영희를 만났다.

영희: 이게 누구야. 서연아!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 세상에, 영희 맞지? 여기서 만나게 될 거라고 ( ) 생각지도 못했네!

A.도무지 B.도저히 C.전혀 D.절대





[그림Ⅲ-06]에서 보듯이 상황2에서 두 집단이 모두 '전혀'의 사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서의 피셔 정확 검정 결과에 따르면 이 문항의 선택에 있어서 학습자와 모어 화자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 쓰이는 '도무지', '도저히'와 달리, '전혀'는 화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할 때도 사용된다. 비록 이러한 화용적 정보를 모르면서 상황2에서 '도무지'나 '도저히'를 선택하게 되거나 그 쓰임이 익숙한 '전혀'를 가장 적절한 답안으로 선택한 학습자도 있었으나 위의 응답 양상을 통해 대부분 학습자들이 부정극어의 의미에 따라 화자가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발화에서 '도무지'와 '도저히'의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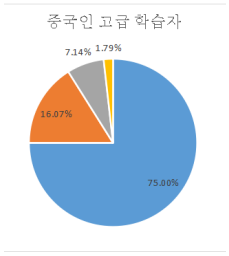
다음으로 화자가 청자를 안심시키려는 의도를 보이는 발화 상황에서 소극적 부정극어와 적극적 부정극어의 화용적 효과의 차이에 대해 두 집단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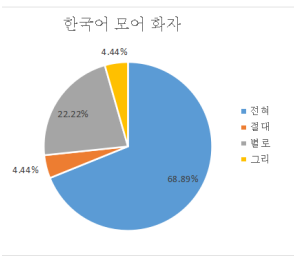
[그림Ⅲ-07] 상황9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상황9] 미나의 생일파티에 초대 된 영희와 당신, 영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에 대해 당신의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영희: 이렇게 입고 가면 좀 이상하지 않아?
나: 아니야, ( ) 이상하지 않아.

A.전혀	B.절대	C.별로	D.그리





응답 결과 NK 집단은 응답자의 68.89%가 상황9에서 가장 적절한 응답으로 '전혀'를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 응답으로는 22.22%가 '별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어 화자의 1순위 응답과 마찬가지로 75%의 학습자가 역시 '전혀'를 가장 어울리는 응답으로 선택하였다. CKL 집단의 선택 비율이 모어 화자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학습자 집단이 적극적 부정극어와 소극적 부정극어의 화용적 효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부정극어의 화용적 특성을 다루었을 때 밝혔듯이 부정극어는 체면 위협을 적극적으로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 부정극어의 경우 체면 위협을 완화함으로써 공손을 드러내기 위한 완화 장치로 기능하기도 한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모어 화자와 같이 청자의 체면을 적극적으로 세워주려는 상황에서 적극적 부정극어를 선호하지만 체면 위협 행위를 할 때 소극적 부정극어를 선호하는 사실은 다음의 문항 분석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정극어들이 공손성의 화용적 효과를 가질 때 얼마나 강하게 청자의 체면을 지키는지 그 정도가 다른데, 소극적 부정극어는 적극적 부정극어보다 공손의 정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부정극어 유의어의 교육 내용을 구안할 때 참고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8번과 10번 문항은 어쩔 수 없이 체면 위협을 드러내는 담화 상황에서 적극적 부정극어와 소극적 부정극어의 화용적 쓰임에 대한 두 집단의 이행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이다.

우선 8번 문항에는 화자가 낯선 사람인 점원의 제의/부탁을 거절하려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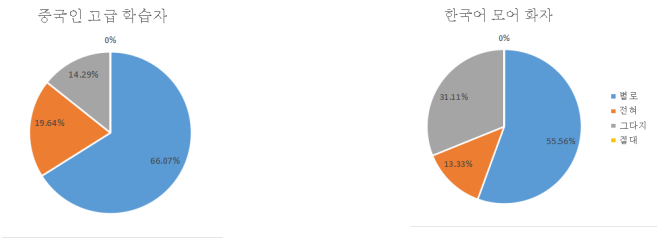
이 제시되어 있다. 이때 화자는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거절 화행을 실현하는 것에 대하여 앞서 사과함으로써 발화를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담화 상황에서 부정극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화상대의 체면을 어쩔 수 없이 손상할 수 있겠으나 부정극어를 통해 그 정도를 완화하거나 극대화하는 발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문항의 선택항은 일부러 적극적 부정극어인 '전혀, 절대'와 소극적 부정극어인 '별로, 그다지'로 설정하였다. 상황 8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률 분포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그림Ⅲ-08] 상황8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상황8] 당신은 길거리에서 회사 신제품을 추천하려는 화장품 판매원을 만났습니다.

점원: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나온 신상인데,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나: 죄송해요. 화장품에 대해 ( ) 관심이 없어서요.

A.별로 B.전혀 C.그다지 D.절대



답변 양상을 보면 NK 집단의 55.56%가 상황 8에서 '별로'를 가장 적절한 응답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어 화자의 1순위 응답과 마찬가지로 CKL 집단의 66.07%가 역시 '별로'를 선택하였다. 한편 31.11%의 모어 화자가 '그다지'를 응답으로 선택하여 그 비율이 학습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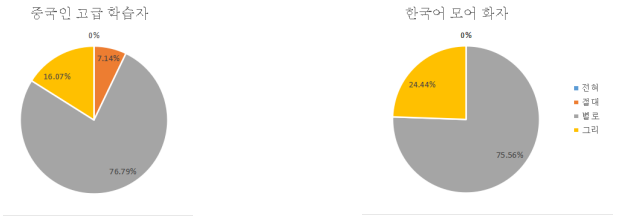
또한 다음 상황10와 같이 화자가 청자인 룸메이트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로, 그다지, 그리' 등 소극적 부정극어를 사용하여 체면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 문항의 답변 양상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그림Ⅲ-09] 상황10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상황10] 룸메이트가 '야식으로 치킨 어때?' 라고 물었지만 당신은 치킨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룸메이트: 오늘 야식으로 치킨 어때?
나: 미안, 난 치킨을 (　　) 좋아하지 않아서.

A.전혀　　B.절대　　C.별로　　D.그리



10번에서 8번 문항과 같이 화자가 청자의 제의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두 집단이 모두 '별로'를 적절한 응답으로 선택한 비율이 적극적 부정극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상황에서 '그리'를 사용하겠다고 답하는 응답자도 있었는데 NK 집단이 '그리'를 선택한 비율은 학습자 집단보다 훨씬 높다. 뒤의 [공손성], [체면 손상/지킴 정도] 조사 부분에서도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와 같이 '별로', '그리'가 이 발화에 쓰이면 표현하는 공손성의 정도가 '약간 공손하다' 또는 '별로 공손하지 않다'이지만 상대방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는 발화수반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위에서 피셔의 정확 검정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8번과 10번 문항의 선택에서 NK 집단과 CKL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거절의 상황에서 두 집단이 모두 소극적 부정극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인터뷰 내용】

연): 8번과 10번에서는 왜 '별로'를 쓰셨어요?
CKL-01): 둘 다 거절하는 상황이니까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연): 다른 선택항을 쓰면 느낌이 달라요?

CKL-01): 네, '전혀, 절대'를 쓰면 너무 무정한 것 같아요. '별로'를 쓰면 부드럽게 하면서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일 어울려서 골랐어요. 연): 그럼 '그다지, 그리'를 쓰면 어때요? CKL-01): 이 두 단어도 쓸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별로'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연): (10번 문항을 가리키면서) 여기에서 왜 '별로'를 썼어요? CKL-03): 공손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룸메이트이니까 공손해야지. 연): '전혀, 절대'를 쓰면 공손하지 않아요? CKL-03): 네,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공손하지 않아요.
연): 8번에서 '전혀'를 쓰면 어때요? NK-04):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 좀 무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연): '별로, 그리, 그다지'를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NK-04): '별로'와 '그다지'는 의미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는 좀 더 문어체에 가까운 것 같아요. '별로'가 세 단어 중에서 가장 구어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문서(논문 같은 것)에는 '별로'를 쓰지 않아요.

인터뷰 결과 소극적 부정극어의 화용 특성에 대한 CKL 집단과 NK 집단의 인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습자들이 소극적 부정극어의 공손성 정도에 대해서는 모어 화자와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사후 인터뷰에서 8번과 10번 문항에서 '그다지, 그리'를 선택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질문에 학습자들이 "'그다지'를 잘 안 쓰는 것 같다.", "'그다지'를 배워본 적이 없다.", "'그다지'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다.", "직관적으로 '별로'의 사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다지'보다 '별로'의 사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전혀, 절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두 부정극어는 좀 더 강하게 관심이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어휘를 사용할 때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크다',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좀 인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응답을 통해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와 동일하게 소극적 부정극어의 체면 위협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공손 의식이 강하다는 사실은 두 문항과 관

련된 [공손성], [체면 손상/지킴 정도] 조사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모어 화자와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별로, 그다지, 그리'가 '전혀, 절대'등 적극적 부정극어보다 더욱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이에 따라 청자에게 불쾌를 안겨주는 화행에서 소극적 부정극어를 사용하면 더욱 공손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별로, 그다지, 그리' 이 세 부정극어의 변별 및 사용에 있어서 부정적 의사소통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즉 '별로'만을 사용하고 '그다지, 그리'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자는 부정극어를 사용함으로써 발화 맥락에 제시한 사과나 체면 위협 행위의 인정이라는 자신의 태도를 강조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대화상대의 체면을 손상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의 1번, 5번, 6번, 7번 문항은 부정극어 유의어들이 화용적으로 체면 위협을 드러내는 장면에서 두 집단이 어떤 부정극어를 사용할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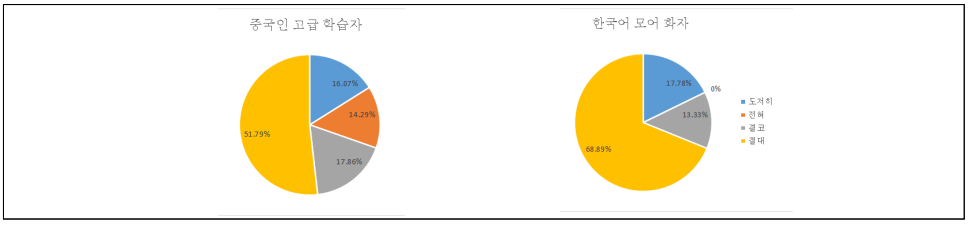
우선 6번 문항에서는 '경고, 권도, 금지'를 통하여 화자가 청자인 동생의 체면을 위협하고 있는데 해당 문항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률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Ⅲ-10] 상황6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상황6] 아래는 당신과 동생의 대화입니다.

동생: 왜 많은 사람들은 흡연이 몸에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여전히 즐기는 걸까?
나: 나도 모르겠네. 궁금해도 시도는 하지 마. 담배는 한번 맛들이면 ( ) 끊을 수 없어.

A.도저히 B.전혀 C.결코 D.절대



분석 결과 NK 집단은 응답자 중 68.89%가장 적절한 응답으로 '절대'를, 17.78%가 '도저히'를, 13.33%가 '결코'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KL 집단의 51.79%도 '절대'를 1순위 응답으로 선택하였으나 그 응답 비율이 모어 화자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KL 집단의 16.07%가 '도저히'를, 17.86%가 '결코'를 가장 적절한 응답으로 선택하여 전체적으로 이 두 선택항의 응답률은 모어 화자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 모어 화자의 선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혀'를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14.29%인 것으로 나타나 응답 분포가 모어 화자와 다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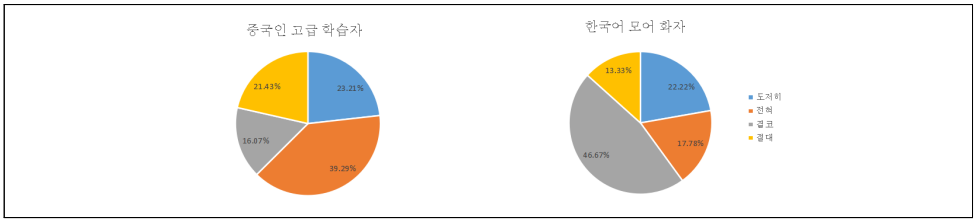
다음 7번 문항은 공식적인 상황인 변론대회에서 화자가 부정극어를 통해 상대방의 관점을 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의 선택항은 역시 타인의 체면을 적극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화용적 특성을 가진 네 개의 적극적 부정극어로 설정되었다. 해당 문항의 집단 응답률 분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Ⅲ-11] 상황7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상황7] 변론대회에서 상대 변론자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나 당신은 폐지를 주장한다.

상대방의 변론자: 개인적으로 사형 제도가 폐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저는 이러한 관점에 ( ) 동의할 수 없습니다.

A.도저히 B.전혀 C.결코 D.절대



상황7은 6번과 같이 체면 위협을 하는 발화 상황인데, 이 네 부정극어의 사용에 있어서 두 집단의 응답 분포가 아주 다르게 나타났으며 6번의 응답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두 집단의 응답 분포는 모두 일관성이 떨어지고 흩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나마 NK 집단은 이 문항에서 '결코'를 가장 적절한 응답으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모어 화자들은 격식성과 체면 위협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 집단의 경우 1순위로 '전혀'를 선택하였는데 그 비율이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인다. '도저히'의 사용에 대해 두 집단에 비슷한 비율이 나타났으나 모어 화자가 선호하는 '결코'를 선택한 학습자가 16.07%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적극적 부정극어의 화용적 특성에 대해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이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 내용】

연): 6번에서 '절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01): 이 상황에 '절대'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절대'는 뭔가 발화 내용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연): 다른 선택항은 안 돼요? CKL-01): '도저히, 전혀'를 쓰면 좀 어색하고요. '결코'도 쓸 수 있는데 저는 평소에 '결코'보다 '절대'를 더 많이 써요.
연): 6번에서 왜 '전혀'를 고르셨어요? CKL-04): 이것도 어감대로 선택했어요. 실은 이들 문제를 답했을 때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만 고르라고 해서 되게 헷갈렸어요. 이들 단어는 의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 부정적인 내용을 강조해서 전 그냥 직관에 따라 선택했어요.

연): 그럼 이들 단어들이 갖는 어감 차이에 대해 전에 생각해 봤어요? CKL-04): 아니요. 없어요. 실수할까 봐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연): 6번에서 '절대'를 고르셨는데, 7번에서 '결코'를 고르셨네요. NK-01): '결코'가 7번의 문장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변론대회라는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말할 때도 문어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6번은 개인적 상황이라서 '절대'가 어울려요.

모어 화자는 '결코'가 개인적 상황보다 공적인 상황에 더 어울린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교실 안에서 이러한 변별적 특성을 학습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간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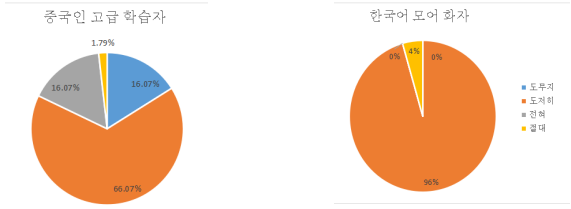
한편, 1번과 5번 문항에서 화자는 의도적으로 청자의 체면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부족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청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역시 체면 위협을 하고 있다. 해당 문항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Ⅲ-12] 상황1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상황1] 당신은 친구 민호와 함께 치킨을 먹던 중 배가 불렀습니다, 민호가 당신에게 왜 먹지 않는지 묻습니다.

민호: 치킨 좀 남았는데 왜 더 안 먹어?
나: 배가 너무 불러서 (　　) 못 먹어요.

A.도무지　　B.도저히　　C.전혀　　D.절대



응답 결과 상황1에서 NK 집단은 높은 95.56% 비율로 '도저히'를 가장 적절한 응답으로 선택하였다. CKL 집단은 66.07%의 응답자도 모어 화자와 같이 '도저히'를 가장 적절한 응답으로 선택하였으나 16.07%가 모어 화자에게 전혀 선택받지

않은 '도무지'를, 16.07%가 '전혀'를 적절한 응답으로 선택하여 NK 집단과 다른 응답 분포를 보였다. 1번에서 '도저히'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이를 통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고 싶지 않지만 주관적 원인으로 인해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안타까움'의 감정을 나타낼 때 '도저히'가 가장 적절한 사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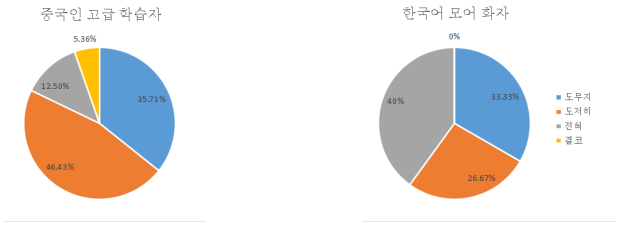
또한 5번 문항과 같이 화자가 청자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청자가 불쾌를 느껴 체면 위협을 하기도 한다. 이 문항에 대한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응답 양상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Ⅲ-13] 상황5의 두 집단의 부정극어 응답 양상

[상황5] 회사에서 과장님이 부하 직원인 당신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내가 한 얘기 못 알아들은 거야?
나: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 )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A.도무지 B.도저히 C.전혀 D.결코



[그림Ⅲ-13]에서 보듯이 상황5에 대한 두 집단의 응답 양상에는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CKL 집단의 응답을 보면 '도저히'가 46.43%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도무지'는 모어 화자와 비슷하게 선택되었는데, '전혀'의 선택에 있어 모어 화자와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NK 집단의 경우 해당 상황에서 40%가 '전혀'를, 33.33%가 '도무지'를, 26.67%가 '도저히'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인터뷰 내용】

연): 만약에 5번에서 '전혀'를 쓰면 어때요? CKL-03): 그럼 조금 오만해 보일 것 같아요. 연): 그래요? CKL-03): '복잡한 얘기라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공손이 덜 들어간 느낌? 연): 공손한 마음이 안 느껴져요? CKL-03): 네, 맞아요.
연): 1번과 5번에서 왜 '도저히'를 선택하셨어요? CKL-04): '도저히'는 '전혀, 절대, 결코'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을 받아서. 연): 그럼 '도무지'를 쓰면 안 돼요? CKL-04): 되는데 전 안 써요. '도저히'를 더 많이 써요.
연): 5번에서 '전혀'를 쓰면 어떨 것 같아? CK-04): 뭔가 좀 무례한 생각이 들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아마 더 화가 날거예요.

CKL-03와 같이 일부 학습자들은 청자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혀'를 사용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체면 위협을 한 느낌이 든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도무지'와 '도저히'는 '전혀, 결코'에 비해 체면 위협의 정도가 더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부정극어들이 갖는 화용적 특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구어 대화에서 적극적 부정극어와 소극적 부정극어들이 갖는 화용적 효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고 모어 화자와 같이 체면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소극적 부정극어를 선호하는데 반해 체면을 지키려는 상황에서 적극적 부정극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학습자들은 유의관계를 보인 부정극어들이 담화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변별적인 의식이 없으며 이해가 부족하다. '결코-절대로', '도무지-도저히-전혀', '별로-그다지-그리'와 같은 부정극어 유의어의 화용적 특성에 대해 학습자들이 발화 상황 및 맥락에 의해 사회적 적절성을 고려하여 부정극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익숙하다는 이유로 개별 부정극어의 사용을 회피하거나 해당 부정극어의 의미와 공손성 정보를 맥락에서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별로'만을 쓰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정극어들의 의미에 따른 공손성에 대해 학습자들이 심지어 모어 화자보다 더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많은 학습자들은 '절대'의 강한 부정 의미 특성이 체면 위협을 드러내는 데에 적합하다고 보며 '별로'의 약한 부정 의미 특성이 공손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넷째, 학습자 집단은 모어 화자 집단에 비해 부정극어 유의어가 갖는 격식성의 차이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다. 결국 부정극어의 화용적 변별 특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가 다른 이해 및 사용 양상을 보이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문 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부정극어 유의어의 통사·의미·화용 층위의 변별적 특성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별 부정극어의 특성에 대해 모어 화자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학습자가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에 대한 인식이 약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을 정확하게 선택하였어도 그 이유에 대하여 단순히 어감과 번역에 의해서만 제시하고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의 구안이 필요하다.

한편 모어 화자의 설문 결과 및 인터뷰를 통해 코퍼스 분석에서 밝히지 못한 내용도 발견하였다. 예컨대 발화 장면의 격식성에 따라 부정극어 유의어가 변별될 수도 있다. 분석 결과 모어 화자들은 격식성이 높은 상황에서 '결코'의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결코'는 반드시 격식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서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2.4. 학습 정보에 따른 이해 양상

학습자들이 부정극어를 어떻게 학습하였는지에 따라 그 이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학습 정보에 관한 조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들이 부정극어 유의어의 이해 및 사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탐구하고자 했다. 요컨대 부정극어 유의어의 차이점 학습 여부, 사용 빈도, 교재 및 교사 설명에 대한 만족도가 학습자 이해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밝힐 것이다.

우선 부정극어 유의어 학습 여부에 관한 질문을 살피도록 한다.

1. '도저히, 도무지, 전혀, 결코, 절대로, 별로, 그다지, 그리' 등의 어휘를 배운 적이 있어요? 언제 배웠어요?

<표Ⅲ-14> 부정극어 학습 여부 및 학습 시기

부정극어	초급	중급	고급	배운 적 없음	기억나지 않음
도저히	8.93%	73.21%	5.36%	5.36%	7.14%
도무지	0.00%	35.72%	16.07%	32.14%	16.07%
전혀	83.93%	12.50%	0.00%	0.00%	3.57%
결코	55.35%	37.50%	1.79%	0.00%	5.36%
절대로	46.43%	42.85%	1.79%	1.79%	7.14%
별로	91.07%	5.36%	0.00%	0.00%	3.57%
그다지	3.57%	39.29%	14.28%	28.57%	14.29%
그리	35.71%	57.14%	0.00%	1.79%	5.36%

<표Ⅲ-14>을 통해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도무지, 그다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정극어의 기본 의미와 용법을 학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무지, 그다지'와 관련한 일부 문항에서 학습자의 정확도가 낮은 원인을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앞서의 이해 양상 조사에서 '도무지'와 '그다지'의 의미를 단순화시키고 '도저히', '별로'의 의미와 같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이는 역시 이들의 의미를 배웠을 때 입력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2번, 3번 문항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교재 혹은 수업 시간에 부정극어 유의어의 차이점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2. 수업에서 '도저히-도무지-전혀', '결코—절대로', '별로-그다지-그리'와 같이 유의관계를 보이는 부정극어들의 차이점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요? A.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B.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조금 언급하였다. C. 자세하게 예시로 이들 유의어들을 어떻게 변별하는지를 설명해주었다. D. 기타
3. 학교에서 사용했던 교재에서 부정극어에 관한 학습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전혀 그렇지 않다 B.그렇지 않다 C.보통이다 D.그렇다 E.매우 그렇다

대부분 학습자들은 부정극어 각각의 의미를 학습하였으나 이들 부정극어 간의 차이점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사후 인터뷰와 같이 부정극어의 변별적 특성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진한 상황이며 교재에도 이러한 내용이 제공되어 있지 않아 부정극어의 교수·학습이 교수자가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는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 역시 변별 기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자의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대등하지 않은 학습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며 부정극어 유의어를 변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또한 위에서 학습자와 모어 화자가 인식 차이 및 다른 이해 양상을 보여주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인다. 결국 부정극어 유의어의 차이점 학습 경험 유무와 학습자 이해도가 서로의 영향 아래에 놓이기 위해서는 그 차이점에 대한 교육 내용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번 문항은 학습자들이 평소에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들 부정극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이다.

4. 괄호(도무지, 도저히, 전혀, 결코, 절대로, 별로, 그다지, 그리) 안에 있는 부정극어 중에서 본인이 가장 많이 쓰는 어휘와 가정 적게 쓰는 것들을 우선순위대로 적어 주세요. 가장 많이: 가장 적게:

4번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평소에 부정의 의미를 전달할 때 초급 단계에서 학습한 '별로, 절대로, 전혀'를 자주 사용하는 반면 중급 이후 단계의 '도무지,

도저히, 그다지, 결코'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곧 학습자들이 동일한 의미 범주에 속하는 수많은 부정극어를 다양화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초급 단계에 학습하여 그 쓰임이 더 익숙한 부정극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극어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은 부정극어에 대한 학습자의 명확한 이해가 전제될 때 그 사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학습자들이 정확하고 다양한 어휘 사용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명시적인 이해 교육 내용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5. 현재 당신은 부정극어 유의어(도무지-도저히, 결코-절대로, 별로-그다지-그리 등)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A.의미 차이를 잘 아는 동시에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B.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잘 모르면서 대충 사용하고 있다.
C.정확성을 중시하지 않고 언어적 직관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6.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00%	5.36%	25.00%	55.36%	14.28%

부정극어 유의어의 실제 사용 실태에 대해 73.21%의 학습자는 '정확성을 중시하지 않고 언어적 직관에 따라 부정극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3.21%의 학습자는 '부정극어 유의어의 차이점을 잘 모르면서 대충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56명의 학습자 중에서 부정극어들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면서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학습자는 2명밖에 없었다. 6번 문항의 응답과 같이 위의 조사 및 사후 인터뷰에서도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에 대해 학습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으며 어려워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부정극어 유의어의 차이점에 관한 학습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공해야 학습자들이 정확한 어휘 이해 및 사용 정보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재 및 교사의 설명에 대해 학습자들이 만족하는지를 조사하는 7번 문

항의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7. '도무지, 도저히, 전혀, 결코, 절대로, 별로, 그다지, 그리' 각각의 의미, 사용 제약 그리고 서로 간의 차이점에 대한 교재와 교사의 설명에 만족하십니까?
A.전혀 그렇지 않다 B.그렇지 않다 C.보통이다 D.그렇다 E.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15%	51.78%	28.57%	8.93%	3.57%

학습 정보에 관한 7번 문항 조사와 같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부정극어에 대한 교재 및 교사의 설명에 만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후 인터뷰에서 부정극어의 교육에 대해 불만족하는 학습자의 경우, 사전이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스스로 부정극어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얻게 되는 부정극어들 간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가 개인의 해석에 따라 자의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에서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부정극어 유의어에 대해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와 인식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부정극어의 변별에 대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며 정확히 그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정극어를 교육할 때에는 학습자들이 생성해낸 규칙을 수정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감으로써 모어 화자의 숙달도와 이해도 간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

3. 이해 양상 차이의 원인 분석

위에서 설문 조사 및 사후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나름의 언어체계를 구성하여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를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 체계가 모어 화자와 완전히 같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고급 학습자라도 부정극어의 이해 및 사용에 있어서 모어 화자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중간언어(interlanguage)'로 설명될 수 있다. 제2언어 학습자는 목표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목표어를 닮아 가는 나름대로 규칙성을 가진 언어 체계를 구

축하게 되는데 이를 중간언어라고 한다. 중간언어이론에서는 학습자를 불완전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가설검증의 점진적 과정을 거쳐 규범적인 언어체계에 근접해가는 지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본다(김정은, 2003;31). 이에 따라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는 우발적이거나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중간언어의 관점에서 오류의 발생 원인은 언어 간 전이(language transfer)에 의한 오류, 언어 내 전이(inter-lingual transfer)에 의한 오류, 교육과정에 의한 오류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류 원인을 작용하여 위에서 살핀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이해 양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교육의 한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3.1. 언어 간 전이

언어 간 전이는 모국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간섭을 받아 목표어의 규칙을 잘못 작용할 때 발생한다. 위에서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부정극어들의 의미와 사용 제약을 이해하고 변별하는 데에 있어서 모국어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중 부정극어 대조에 관한 선행 연구들(송국경, 2014;오상언, 2015)에서 밝혔듯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극어는 일대일 대응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어 부정극어의 다양한 의미 및 사용 제약에 비해 중국어 부정극어의 의미 및 기능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은 부정극어들이 어군별로 한 유의어 어군에 속하는 것들은 거의 같은 중국어 표현과 대응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을 어려워한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모국어가 학습자들의 부정극어 이해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인터뷰 내용】

(진위 판단형 테스트)

6. 포유류 이전에 있어서 생명은 전혀 자연에 속해 있었다.
연): 6번 문항이 정확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CKL-3): 중국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哺乳类以前的生命完全属于自然'가 되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연): 6번 문항이 틀리다고 판단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NK-02): '전혀'는 부정문에 사용됩니다. 이 문장은 부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를 쓰면 틀립니다.

【인터뷰 내용】

(진위 판단형 테스트) 12. 물과 공기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인터뷰 내용】 연): 12번 문항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는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CKL-02): 느낌상으로 이 문장이 자연스러워서 정확하고 판단했는데요. '水和空气对我们来说是必需的'로 번역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연): '절대로'는 이 문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CKL-02): '绝对'의 의미로 '물과 공기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연): 12번 문항은 정문인지 비문인지 어떻게 생각해요? NK-01): 이 문장은 맞는지 틀린지 애매해요. 보통 '절대로'는 부정문에 사용되므로 틀린 것 같은데, 강조하는 의미에서 긍정문에도 '절대로'를 가끔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물과 공기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돼요.

조사에 참여한 모든 한국어 모어 화자는 '포유류 이전에 있어서 생명은 전혀 자연에 속해 있었다.'라는 문장을 비문으로 판단하였으나 '전혀'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긍정문에서 쓰일 수 있는 '完全'이므로 이 문장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본 고급 학습자가 많았다. 또한 12번 문항을 정문으로 본 학습자의 응답 비율도 모어 화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모어 화자는 NK-01, NK-02와 같이 '전혀, 절대로'는 주로 부정문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어 간의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의 간섭을 받아 부정극어의 긍정문에서의 쓰임에 대해 모어 화자와 인식의 차이를 일으키게 되었

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를 변별할 때 모국어의 간섭을 받는 또 다른 증거는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채 부정극어를 치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모국어와 언어적 직관에 의존하여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의미 관계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왜 치환할 수 있는지 또는 치환 불가능한지에 대한 자신의 판단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이 모국어에 의해 부정극어들의 의미를 이해하므로 부정극어 유의어를 변별하는 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었다.

【인터뷰 내용】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 8.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겐 반드시 비밀로 지켜 주십시오. A.결코 B.절대로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연): 왜 이 문장에서의 '반드시'를 '결코'와 '절대로'로 치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CKL-04): 저는 '결코'와 '절대로'는 모두 '绝对'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 '반드시'는 '一定'의 뜻인데 중국어에는 '一定, 绝对'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 '결코'와 '절대로'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요? CKL-04): 차이를 잘 몰라요. 중국어로 이해하면 의미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연): 왜 이 문장에서의 '반드시'를 '결코'나 '절대로'로 치환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NK-01): '결코'와 '절대로'는 모두 부정문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사용될 수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절대로'의 경우 가끔 부정문이 아니더라도 강조의 의미로 긍정문에 사용할 수 있을걸요. 그럴 때 '절대적으로'의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본 바와 같이 절반 이상의 학습자가 CKL-04처럼 위의 문장에서 '반드시'를 '결코' 나 '절대로'로 치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결

코, 절대로'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인 '绝对'는 자연스럽게 긍정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사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휘 비대칭 때문에 학습자들은 부정극어를 이해 및 사용할 때 어쩔 수 없이 모국어에서 비롯한 언어 전이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본고의 입장에서는 부정극어가 그 의미의 통시적 변화 또는 이중적 의미 특성과 관련하여 특수한 경우에는 긍정문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모어 화자의 답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용법은 모어 화자의 인지와 약간의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하간 부정극어가 극히 특수 상황에 긍정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가 목표어에 과도하게 간섭하게 되며 개별 부정극어들을 긍정문에서 난용하거나 오류 문장을 산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3.2. 언어 내 전이

리차드(Richards, 1971)에 의하면 언어 내 전이에서의 오류는 목표어의 불완전한 학습에 기인한 것으로 목표어 규칙의 불완전한 적용 및 과잉 적용 등으로 발생되는 오류를 말한다. 불완전 적용 오류는 목표어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 규칙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할 때 나타난다. 과잉 적용 오류는 규칙이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태만을 기억하여 사용할 때 일어난다. 여기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이해 및 사용에 있어서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인 원인에 대해 언어 내 전이의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언어 내 전이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정극어의 이해 및 사용 양상 차이를 보인 원인을 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는데, 먼저 부정극어 유의어들이 갖는 복잡한 변별 기제에 대해 학습자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개별 부정극어의 의미 규칙을 단순화하여 과잉 적용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3.2.1. 변별 기제에 대한 지식 부족

Ⅱ장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부정극어들이 다양한 의미·통사·화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의어의 변별 기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정극어 각각의 이중적 의미 특성,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서법 제약, 시제 제약, 또한 다양한 부정표현과의 결합 제약을 모두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모어 화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위에서 부정극어의 통사적 특성에 근거하여 출제된 25개의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정확도를 보면 학습자들의 정확도는 모어 화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 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부정극어들의 문법적 제약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한 사후 인터뷰 내용을 살피도록 한다.

【인터뷰 내용】

(진위 판단형 테스트) 4. 날씨가 도저히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5. 나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도저히 예쁘지가 않다.
연): 이 두 문항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에요? CKL-02): 그냥 4번 문항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天气怎么也不会变好'가 되고, 5번 문항의 경우 중국어로 이해할 때 '我用再贵的化妆品也还是不好看'라는 뜻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판단했어요. 연): '도무지'와 '도저히'를 사용할 때 그 문법적 제약을 알아요? CKL-02): 솔직히 잘 몰라요. 배우지도 않았아요.
연): 이 두 문장이 정확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CKL-04): 저는 어감대로 판단했어요. 연): 아, 그렇군요. 다른 측면으로 이 두 문장의 문법성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문장 안에 쓰이는 '도저히'는 주어, 서술어와의 결합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CKL-04):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도저히'의 의미를 아는데 사용할 때 특별한 제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 두 문항이 틀렸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NK-03): '도저히'는 의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날씨는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5번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어

색한 것 같아요. '도저히'보다는 '도무지'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연): 4번과 5번 문항을 모두 정문으로 판단했네요? NK-04): 그래요? 그때 잘 못 판단했나 봐요. 딱 보면 맞는 거 같은데 다시 읽어보면 좀 어색해요. 연): 이들 문장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지나요? NK-04): '날씨'가 '도저히'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문항은 '나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도저히 예뻐지지 않는다.'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사후 인터뷰에서 NK-03, NK-04을 포함한 대다수 모어 화자는 위의 문장의 어색함을 느끼고 그 원인을 대체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중국인 학습자들은 부정극어의 통사적 제약에 대해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두 문장이 정확하다고 판단한 학습자 인터뷰 결과, CKL-02은 중국어로의 번역에 의해서 진위를 판단했다고 답했고, CKL-04은 어감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른 문항에 대한 인터뷰 내용과 같이 대다수 학습자들이 위의 두 문장의 어색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들 부정극어들의 문법적 제약을 모르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부정극어의 복잡한 특성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완전하다면 관련 오류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해 양상 조사 및 인터뷰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은 많은 학습자가 문법성보다 의미를 중심으로 부정극어를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부정극어에 대해 학습자들은 일정한 문법 지식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주의가 의미에 집중되다 보니 나머지 문법까지 고려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법에 대한 자동화를 기대해야 하는 고급 학습자로서 문법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직관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명시적인 문법 지식을 가지지 않아 단순히 직관에 의하면 부정극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 부정극어들은 서로 간 의미적 인접성을 보이나 내적 의미 자질이 다름에 따라 모든 문맥에서 완벽하게 대체되지 않는다. 이들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의미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맥락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는 변별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인터뷰 내용】

연): 응답한 설문지를 보니까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 1-7번 문제를 답했을 때 '도무지', '도저히', '전혀' 이 세 부정극어는 의미 차이는 잘 알고 계셨나요? CKL-04): '도무지'와 '도저히'는 모두 '怎么也 …, 一点儿也 …'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는 '完全'이잖아요. '도무지, 도저히'와 '전혀'가 의미 차이가 있긴 한데 '도무지', '도저히'의 의미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연): 그럼 문제를 답했을 때 판단 근거는 뭐예요? CKL-04): 사실 다 어감대로 선택했어요. 근거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연): '도무지'와 '전혀'를 배웠어요? CKL-01): 네, 다 배운 것 같아요. 둘이 의미가 비슷하긴 한데 의미 차이가 있겠죠? 근게 솔직히 저는 의미 차이는 잘 몰라요. 연): 두 단어는 자주 사용해요? CKL-01): '전혀'가 1학년에 배웠더니 의미가 가장 명확하고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사용해요. 근데 '도무지'가 사용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할 까봐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도무지'는 불능부정뿐만 아니라 단순부정의 의미도 나타내기 때문에 '도저히', '전혀'에 비해 의미적, 통사적 층위에서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다. 마찬가지로 '그리, 그다지'도 '부정+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사용 제약이 비교적 복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극어 자체가 갖는 내적 복잡성은 학습자들이 개별 부정극어의 사용을 회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 및 사용 빈도 조사에서 학습자들이 '도무지, 그다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대로 의미가 보다 단순하고 사용 제약이 적은 부정극어 '별로', '전혀'의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극어의 사용이 초급 수준에만 머물러 그 이상의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다양한 어휘 사용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고, 양적 및 질적 어휘 능력 신장의 실패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에서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의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부정극어 유의어들이 갖고 있는 공손성, 격식성 같은 화용적 변별 기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지식이 명확하지 않아 역시 모어 화자와 많은 차이를 보였

다. 결국 학습자들은 부정극어 유의어의 의미·통사·화용적 변별 기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 어휘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특성을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개별 부정극어가 갖는 특성과 다른 부정극어와 변별되는 기제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목표로 하는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래야 학습자들이 유의어들 간의 변별 기제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부정극어의 사용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3.2.2. 의미 규칙의 단순화와 과잉 적용

코퍼스 분석을 통해 '도저히...-ㄹ 수 없다', '별로...없다', '전혀...다르다', '결코...-지 않다', '절대로...-지 말다'와 같이 부정극어들이 특정한 부정표현과 자주 결합하는 경향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부정극어들의 이러한 사용 빈도가 높은 결합 관계를 가장 먼저 학습한다. 부정극어들이 부정표현과의 결합에 있어서 겹치는 것이 많지만 변별 기제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도무지'는 단순부정을 의미할 때 '안, -지 않다'와 자주 결합하지만 불능부정을 강조하는 '도저히'의 경우 이러한 결합 양상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부사 부정극어가 주로 부정표현과 함께 부정문에 쓰인다는 특성을 알고 있으나 그 부정표현 호응 양상을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나름대로 부정극어 유의어의 결합 관계를 단순화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단순화가 학습자들이 부정극어의 기본 용법을 숙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의미 자질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맥락에 부정표현을 적용할 때 자의적일 수도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결코'와 '절대로'의 의미를 강한 부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순화된 정보는 학습자들이 두 부정극어의 의미가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있어 유의어 변별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부정극어의 결합 규칙을 단순화하여 과잉 적용할 경우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다르게 나

타나거나 부정극어의 사용을 다양화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극어 유의어가 갖는 변별 기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부정극어에 대한 전반적 인지를 가능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교정해 주어야 한다.

한편 위의 조사에서 학습자들이 단순화된 의미 규칙을 과잉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위에서 논의된 단순화된 문법 규칙은 부정극어의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일부 학습자들은 부정극어가 화자의 사태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감정 및 상황에만 사용된다고 한정함으로써 부정극어 유의어를 변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인터뷰 내용】

연): (Ⅲ-4번 문항[71]을 가리키면서) 이 문항에 '절대로'를 쓰셨는데 혹시 '결코'를 쓰면 안 돼요? CKL-03): 이럴 때 '결코'를 쓸지 '절대로'를 쓸지 솔직히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결코'와 '절대로'는 다 강한 부정성을 나타내고 의미는 비슷하기는 한데요. 굳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결코'는 주로 화자가 자신의 결심을 보여주거나 약속을 할 때 사용되는데, '절대로'는 주로 어떤 행동을 금지하거나 명령할 때 사용된다고 생각해요. 연): 아 그래서요? CKL-03): 제가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가 더 어울리고 반면 긍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결코'를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CKL-03처럼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학습과 의사소통 경험에 의해 부정극어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스스로 구축하였으나 자신이 구성한 규칙은 모어 화자와 같은지 다른지를 확신하지 못하며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및 사용에

---

71) Ⅲ-4번 문항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부정극어를 선택하여 담화를 완성하는 선다형 완선 테스트이다.

[상황] 당신은 지하철에서 실수로 낯선 이의 발을 밟게 되었습니다. 나: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　　) 고의가 아니었어요!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의 발을 밟게 되어 사과하고 고의가 아닌 것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NK 집단은 '결코'를 더 많이 선택하였으나 CKL 집단은 '절대'를 1순위로 사용하였다.

대해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의미 규칙의 단순화 현상은 부정극어 유의어에 대한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이해 차이를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학습자에게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부정극어 각각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정확한 인식 및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쓰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세운 부정극어에 대한 규칙을 바탕으로 이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의 구안이 요구된다.

3.3. 교육의 부재

부정극어 유의어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사실은 역시 학습자가 모어 화자와 동일한 이해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학습자들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를 어떻게 학습하였는지에 따라 그 이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위에서 학습 정보에 관한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교육 현장에서 부정극어들을 변별하여 다루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개별 부정극어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 또는 이해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어휘는 별개의 교수항목으로 중심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채 교수되고 있다. 또한 유의어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힌 바가 있었다(진희릉, 2015; 하설, 2015; 마릉연, 2016).[72] 지금 중국 대학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어 교재에는 어휘의 제시 방식은 대응되는 중국어 번역 의미 및 품사 정보를 간단히 나열하는 것이 전부였으며, 맥락에서의 쓰임은 본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과제 활동은 빈자리에 알맞은 어휘 써넣기, 번역 같은 기계적 연습 활동에 그친다. 부정극어 유의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국내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72) 진희릉(2015)에서는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를 대상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설(2015)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를 중심으로 한국어 유의어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릉연(2016)에서는 말뭉치 기반으로 한국어 동사 유의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유의어 현상에 관한 논의가 많은데 이들 연구들에서 밝혔듯이 현재 중국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유의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유의어에 대해 교재의 제시 및 교사의 설명이 부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수많은 유의어의 변별을 어려워한다.

한국어 교재에 개별 부정극어들이 서로 관련되는 지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으며 부정극어들이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내용도 없다는 것은 학습자의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어에 관련된 내용은 교사의 재량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시해 주지 않는 경우 학습자들은 유의어를 변별 없이 사용하거나 해당 유의어의 차이를 스스로 구축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내용】

연): '결코-절대로', '별로-그다지-그리' 이들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잘 알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CKL-01): 이들이 서로 유의어인 줄 아는데 차이를 잘 몰라요. 제가 유의어의 차이를 모른다면 그냥 가장 잘 아는 어휘만 사용할 거예요. 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들 어휘를 가르치나요? 연습 활동 같은 건 있나요? CK-01):선생님께서 예문과 같이 간단하게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연습 문제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연): 이들 어휘들의 의미 차이 또는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서법 제약, 시제 제약 같은 사용 제약에 대해 학습한 적이 있나요? CK-01):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휘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되며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연): 그럼 주로 어떻게 유의어를 배운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거 아니면 수업에서? CK-01):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과제를 하다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만날 때 사전을 찾아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연): '결코-절대로', '별로-그다지-그리' 같은 유의어를 학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CK-01): 네. 유의어의 학습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의어는 얼마 안 돼서 어떤 때는 정말 헷갈려요. 원래 이들 어휘의 의미만을 안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설문지의 문제를 풀어 보니 부정극어의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싶어요.

설문조사에서 평균 85% 이상의 학습자가 부정극어를 학습할 때 교사가 기본

의미를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치고 부정극어의 사용 제약 및 특성 그리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부정극어 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부정극어가 갖는 특성을 체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습자가 구축한 지식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채우지 못한 유의어의 변별 정보를 스스로 메우는 학습자가 적지 않았다. 비록 직접 유의어의 차이를 탐색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부사 부정극어에 대한 지식 체계가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잘못 구조화되어 화석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어에 대하여 명확하게 교정해 주는 교육이 여전히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국내 대학교의 통합교재에는 부정극어들의 각각의 기본 의미가 제시되고 있었으나 미묘한 차이를 가지는 부정극어 유의어들을 함께 비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러한 교육의 부재가 학습자들이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의미 자질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영향을 끼친 원인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사가 제한적인 수업 시간 내에 다양한 예문과 맥락을 활용하여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교육의 한계로 인해 학습자들은 교실에서 체득하지 않은 부정극어들의 사용 제약 및 의미 차이를 교실 밖에서 다른 수단으로 스스로 학습하게 되었고 정교한 변별 기제를 체계적으로 내면화시키지 못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 다른 이해 양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조사 및 아래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 알아보았다.

【인터뷰 내용】

연): 유의어를 배울 때 무엇을 배우고 싶어요? CK-04): 설문지에 답했을 때 정답이 어느 것인지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다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업에서 이들 어휘들의 기본 의미만을 배우게 되어 가지고 사용 상황이 다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없군요. 그래서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할 때 많은 상황에서 유의어들의 차이점을 제시하면 훨씬 더 쉽고 효율적일 거예요.

위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궁극적으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의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며 사용되는 맥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학습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와 같은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이러한 교육의 부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요컨대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을 위해서는 각 부정극어의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특성과 더불어 의미적 인접성이 높은 유의어를 비교하는 교육 내용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곧 변별 기제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부정을 표현할 때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부정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Ⅳ.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내용의 설계

이 장에서는 Ⅱ장의 코퍼스 분석 결과와 Ⅲ장의 학습자 및 모어 화자의 이해 양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에 대한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브라운(Brown, 199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 2014:849 재인용)은 제2언어 교육과정 개발 단계의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학습자가 특정 언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요구를 확인하여 분석한 후 요구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반적인 목적(goal)과 구체적인 목표(objective)를 설정한다. 그 다음 설정된 목적 및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따라 본 장에서는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교육 설계를 위해 교육 목표를 제시한 후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제안할 것이다.

1.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목표

교육 목적 및 목표의 설정이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설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 설정은 교육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가리킨다. 한편 교육 목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들이 언어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할 비교적 포괄적, 이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교육 목표는 교육 목적의 수준을 구상화하여 더 구체적, 계량적, 명시적으로 진술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Brown:2001). 요컨대 교육 목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행동적 지표이다.

구본관(2011:35-36)에서 어휘 교육의 목표는 어휘 능력, 어휘 사용 능력, 어휘력 등의 용어로 지칭되는 어휘와 관련된 능력의 향상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며 어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함양, 어휘에 대한 질적·양적인 지식, 이해와 표현 측면에서의 어휘 활용 능력 등 세 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어휘 교육의 목표는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보인다.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부정극어가 갖는 통사적, 의미적 규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정극어 중에서 자신의 발화 의도에 맞는 것을 골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궁극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어 부정극어는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부정의 속성에 의한 의미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부정표현과의 호응 제약,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서법 제약 등 통사적 특이성이 어휘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학습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의 제시 부족과 교육 자료의 부재, 또는 교육 환경 및 교육 방법의 한계 등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한계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효과적인 어휘 학습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선행 연구에서 밝혔듯이 한국어 부정극어는 중국어 부정극어와 일대일 대응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 복잡한 통사적 특성을 드러내며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의 유사성 등의 요인까지 더해져 부정극어의 학습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를 입증하듯 앞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부정극어의 다양한 특성의 복잡성으로 인해 한정적인 부정극어만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자의적으로 단순화시킨 규칙을 과잉 적용하는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개별 부정극어가 갖는 의미·통사·화용적 특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부정극어 교육의 목표 하나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Ⅲ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가 갖는 변별 기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별 기제의 활용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부정극어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부정극어 교육에서는 이들 유의어들이 갖는 차별적인 지점에 대해 학습자들이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발화 맥락에서 정확하게 부정극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어휘 전반 지식 영역에 걸친 질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

결국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은 여러 변별 기제를 중심으로 유의어의 통사·의미·화용적 지식을 모두 아우르는 변별 및 사용 능력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모어 화자와 같은 정확하고 다양한 어휘 사용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Ⅳ-01>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의 목적 및 목표

목적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통사·의미·화용적 세부 변별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모어 화자의 직관에 가까운 어휘 변별 및 사용 능력을 갖추며 정확하고 다양하게 부정극어를 사용할 수 있다.
목표	첫째,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각 부정극어의 통사·의미·화용적 특성 또한 부정극어 유의어들이 갖는 변별 기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변별 기제를 활용하여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사용을 상황 및 맥락에 맞게 정확하고 다양화할 수 있다.

2.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내용의 체계화

2.1. 교육 내용의 구성 원리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내용을 구체화 및 체계화시키기 위해 유의어들의 제시 순서를 위계화한 후 의미·통사·화용적 변별 기제를 중심으로 각 부정극어의 변별적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위에서 설정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 내용이 구성 요소로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Ⅱ장에서는 코퍼스를 바탕으로 선정된 부정극어 유의어들 각각의 변별적 의미 자질과 빈도수, 통사적 특성 및 제약, 그리고 다양한 부정표현과의 호응 정보와 용례를 구축하였다. 기존의 사전에서 변별적인 설명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 못했던 이들 부정극어 유의어들은 코퍼스 분석을 통해 그 의미와 용

법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어휘 교육의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Ⅱ장에서 추출한 부정극어에 관한 의미·통사·화용적 정보들을 교사들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를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삼을 수 있으리라 본다. 교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급별로 어떤 어휘를 가르쳐야 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호응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를 교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용례 중 학습자 수준에 맞는 예문을 정선하여 이를 부정극어의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강현화(2000:74)에서는 코퍼스를 기반으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한 어휘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코퍼스의 분석을 통해 출현 빈도와 급별 중요도를 고려해 가장 먼저 학습해야 할 단어를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용언과의 호응 정보에 의한 의미 설명과 의미 항목별 빈도 조사에 의거한 기본 의미의 제시가 가능하다. 셋째, 목표 어휘에 관한 필수적 호응 정보의 제시와 더불어 수의적 호응을 보이는 연어에 대해서도 빈도와 분산도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가 해당 어휘의 호응 정보를 파악해 자연스런 발화와 작문을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혼동을 야기하는 유의어들도 용례의 대조와 호응 정보를 통해 각 어휘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넷째, 코퍼스의 시대, 출처 분석을 통해, 목표 어휘가 가진 다양한 화용적 정보(격식어/비격식어, 사용자의 나이, 사용 시기, 구어체/문어체, 남성어/여성어 등)를 제공하여 어휘 변별력을 키우게 할 수 있다. 다섯째,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변의 일상 언어 자료와 학습 환경에서 쓰이는 문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용례를 제시하여 목표 어휘를 사용한 쓰기, 말하기 교육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코퍼스 자료를 활용하는 어휘 교육 내용의 제시 원리를 기반으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교육 내용 구성은 부정극어에 대한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인식 및 사용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앞선 설문 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이 부정극어 유의어에 대해 세운 나름의 중간언어 체계를 확인하였으

며 모어 화자와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실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거나 인식 차이 및 오류를 보인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습자의 이해 및 오류 양상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제시할 경우 학습자들이 부정극어들을 변별하여 사용할 때 느낄 어려움과 발생할 오류를 미리 예상하고 방지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구축하는 언어 체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한다.

또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세부적인 교육 내용으로 의미·통사·화용 세 가지 측면의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73] 앞선 논의에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부정극어의 특성을 밝히고 모어 화자의 코퍼스 자료를 분석하여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각각의 특성을 의미·통사·화용의 세 측면에서 확인한 바 있었다. 이들은 어휘 항목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층위에 놓여 있으며(이미혜, 2005:97) 각 층위가 갖는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설계할 때 세 층위를 분리시키기보다는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학습자들이 더 쉽게 목표 어휘를 이해하고 그 인식이 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강현화(2000)에 따르면 코퍼스 분석을 통해 구축한 호응 정보를 유의어 교육에 적극적 활용할 수 있다. 임유종(2007)에서도 어휘별로 결합하는 부정표현들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극어의 교육에서는 어휘 자체보다 그 용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어 부정극어는 부정표현과의 호응에 의해 그 기능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부정표현과의 호응 정보의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Ⅱ장에서 코퍼스 분석을 통해 부정극어 유의어들이 각각 어떤 부정표현과 공기가 가능한지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았고 용례 분석과 함께 각 부정표현과의 호응 빈도를 통계하였으며 부정극어별로 결합하는 부정표현의 범위가 다소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가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혀'는 '없다→지 않다→다르다 ...'와 같은 순서로 나타나는 반면에 '결코'는 '아니다→지 않다→없다...', '별로'는 '없다→지 않다→못

73) 이러한 구분은 라슨-프리먼(Larsen-Freeman 2001/2004)에서 제시한 삼차원 문법 틀을 참고한 것이다.

...'과 같은 빈도 순위를 보여준다. 따라서 부정극어의 용법을 설명할 때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임유종(2007)에서는 부정극어의 부정표현의 빈도 정보를 한국어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부정극어의 결합 정보를 제시할 때 한꺼번에 그 결합 가능한 부정표현을 모두 가르치되 빈도가 높은 부정표현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는 사전에 어휘의 용법을 기술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용법으로 빈도가 높은 부정 표현을 제시하는 것처럼 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전혀'의 결합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전혀'는 '안/못, 아니다, 말다, 없다, 모르다, 다르다' 또는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와 같은 '비-, 불-, 무-'등 부정접두사에 의해 파생된 어휘와 결합이 가능한데, 이중에서 특히 '없다, -지 않다, 다르다'와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없다, -지 않, -다르다'는 다른 부정 표현들보다 '전혀'와의 호응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다. 둘째는 단계를 나누어 빈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빈도가 낮은 부정표현들은 나중에 교육하자는 것이다. 결합할 수 있는 부정 표현을 한꺼번에 제시하면 복잡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누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령 '별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제1단계에서는 '별로 - 없다, -지 않다, 못' 정도로 결합 빈도가 높은 부정 표현만 제시하고, '별로 - -지 못, 아니다, 안, 못' 등은 그 다음 단계에서 차례로 가르치자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직관적으로는 첫째 방식이 사전 기술의 전통적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인 빈도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어떤 부정 표현과 잘 어울리는지를 제시하여 실제 언어 사용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제시 방법에 따라 코퍼스 분석을 통해 정리된 호응 빈도 정보를 활용하여 각 부정극어의 결합 정보를 구안할 때 빈도가 높은 부정표현을 제시하도록 한다.

2.2. 제시 순서의 위계화

유의어를 변별하는 것과 유의어를 가르치는 것은 별문제이다. 교사가 유의관계를 보이는 어휘들을 한꺼번에 다 가르친다면 학습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유의어의 교수 시기는 단어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사용 빈도 정보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많이 사용되는 어휘를 빈도가 낮은 것보다 먼저 가르칠 필요가 있다(임유종, 2007).

강현화(2005:59-60)에서는 유의어의 교수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초급에는 사용 빈도가 높고 사용 범위가 넓은 것들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좋으며, 중급에는 그 다음 단계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휘 표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으며, 고급 단계에 이르러서는 교실 활동이나 읽기 교재 등에서 만나게 되는 저빈도의 어휘를 이미 학습한 어휘들과 변별하여 가르치는 순서가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가 유의어들의 교수 순위를 정하고 위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교재에도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구본관 외(2014:589)에 따르면 어휘 항목의 위계화는 가르치고 배울 어휘들을 등급별로 구체화하여 교수 절차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Nation(2018:628)에서 어휘 항목의 위계화에 있어서 해당 항목이 교수요목에 언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빈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였다. 강현화(2005:61)에서도 빈도 정보는 유의관계에 있는 어휘들의 교수 순서나 난이도 등급을 결정하는 데에 기본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항목의 위계화에 있어서 빈도 정보는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서 교육용 부사 부정극어를 확정할 때와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도출할 때 부정극어들의4가지 교육·학습 어휘 목록에서의 등급화 및 코퍼스에서의 출현 빈도를 수집한 바가 있었는데 이를 다시 모아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Ⅳ-02>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빈도수 및 등급화

빈도수 및	도저	도무	전혀	결코	절대	별로	그다	그리

등급화 자료		히	지			로		지	
코퍼스	SJ-RIKS 코퍼스확장판	969	764	4493	3219	908	2281	815	1796
교육 학습 용 어휘 목록	조남호(2003)	C	-	B	C	B	B	B	B
	김광해(2003)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김중섭 외(2011)	중급	중급	초급	중급	중급	초급	중급	중급
	강현화(2014a,2014b,2015)	중급	중급	초급	중급	중급	초급	중급	고급

<표Ⅳ-02>에서와 같이 코퍼스에서의 부정극어의 빈도수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어휘는 '전혀'이며 그 다음으로 '결코, 별로'의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빈도 정보에 의해 '전혀, 결코, 별로'는 그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래의 4 가지 교육·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제시한 등급화한 결과를 함께 보면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대체로 교육·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전혀, 별로'를 초급 어휘로 보고 있는데, '결코'의 경우, 코퍼스에서의 출현 빈도가 '별로'보다 높지만 초급 어휘로 간주하는 연구도 있고 중급 어휘로 분류하는 연구도 있다. 그것은 이들 연구에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휘 목록을 추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참고 자료와 접근 방법이 다름에 따라 추출한 결과가 다르다는 사정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휘 목록에서 제시한 정보는 교육용 어휘의 확정 및 교수 순서 및 등급화를 논의할 때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임유종(2007)에서는 부정극어 교육에서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고 제시 순서를 정할 때 빈도 정보에만 기대는 것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빈도가 높은 것일수록 모어 화자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므로 빈도가 낮은 것들보다 먼저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본고는 공통점을 취하고 차이점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코

퍼스에서 추출한 빈도 정보와 기존의 교육·학습용 어휘 목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계화 결과를 통합하여 큰 틀에서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은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제시 순서를 다음과 같이 위계화하고자 한다.

<표Ⅳ-03>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위계화 결과

초급	중급
전혀	도저히, 도무지
결코	절대로
별로	그리, 그다지

3. 변별 기제 중심의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교육 내용의 실제

앞선 코퍼스 분석 결과 및 이해 양상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들은 부정의 공통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으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학습자들이 부정이라는 동일한 의미 범주에 속하는 여러 부정극어 중 정확한 부정극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별 기제를 포함하는 명시적인 교육 내용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앞서 살핀 교육 내용의 구성 원리와 제시 순서 위계화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군의 변별적 교육 내용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도저히-도무지-전혀'의 변별적 교육 내용

'전혀'는 앞에서의 코퍼스 분석 및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에서 확인하였듯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만큼 의미적으로 학습자들이 가장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난이도 또한 비교적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혀'는 이 유의어군 중 먼저 교수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다. '도저히'와 '도무지'는 의미와 사용 제약이 보다 복잡해서 중급단계에서 제시하도록 하였다. Ⅱ장의 코퍼스 분석 결과와 Ⅲ장의 이해 양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이 유의어군의 변별적 교수·학습 내용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Ⅳ-04> '전혀'의 교수·학습 내용

의미 정보	• 단순부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음만을 표현하고 그 원인에 대해 함축하지 않음. • 의외성: 화자가 예측하거나 의도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될 경우 쓰임.
통사 정보	• 결합 정보: 단순부정을 나타낼 때 '없다, -지 않다'와 자주 결합함. 또한 의외성의 의미를 나타낼 때 '다르다, 뜻밖이다'와 자주 결합함. • 서법 제약: 명령형, 청유형 서법과 잘 결합하지 않음. • 독용: 대화에서 부정소를 수반하지 않고 문장을 종결할 수 있음.
화용 정보	• 구어체/문어체: 입말과 글말에서 두루 사용됨, • 격식성/비격식성: 강의, 강연, 회의, 발표와 같은 청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인 장면뿐만 아니라 일상대화, 전화 통화와 같은 청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사적인 장면에서도 사용됨. • 공손성: 화자가 사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감정을 드러내는 발화에서 공손성을 표현함. • 체면 위협: 화자가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감정을 드러낼 때 청자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음. • 객관성: 객관적으로 명제 내용을 진술할 때 화자의 중립적 태도를 나타냄.

'전혀'는 부정의 정도를 강조하여 '조금도, 하나도'의 의미로 쓰일 때 '능력, 경험, 상태, 의지' 등 다양한 명제 내용을 부정함으로써 강한 부정성을 안고 있다. 또한 완전 부정의 의미를 바탕으로 의외성/상반성의 변별적 의미 특성을 갖기도 한다. '전혀'는 어떤 부정 표현의 상황에서도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부정극어로서 '전혀'의 의미를 교육할 때에는 다양한 명제와 어울려 나타내는 능력/빈도/상태/경험/의지 부정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인지시키고, 더불어 '전혀'가 갖는 의외성/상반성의 의미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즉 '전혀'는 단순 부정을 의미하는 말로 상반되는 사실이나 행위를 강조하고자 할 때 쓰이어 다양한 부정 표현에 적합하다.

통사적으로 '전혀'는 큰 제약 없이 쓰일 수 있으나 다른 부정극어와 변별되는

정보로는 '전혀'가 부정문이 아닐 경우에 그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표현인 '다르다, 뜻밖이다, 낯설다...'와 호응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선 이해 양상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은 '전혀+다르다'의 결합에 대해 익숙하지만 왜 그러한지 그리고 '전혀'와 다른 부정극어의 변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하며 한정적인 부정표현과 결합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혀'의 제시 단계에서 부정표현과 결합하는 용례를 충분히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전혀'가 부정표현과 결합할 때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자주 결합하는 부정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혀'가 갖는 서법 제약 역시 '전혀'의 통사 정보 중 하나로 제시되어야 한다. 즉 '전혀'는 명령형, 청유형 서법이 결합될 수 없음에 유의하도록 한다.

한편 부정극어의 긍정문 용법과 관련하여 '전혀'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完全 , 全然 , 根本'이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혀'의 긍정문에서의 쓰임에 대해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앞서 사전과 코퍼스 분석을 통해 '전혀'가 긍정문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모어화자까지 '전혀'가 부정문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초급 단계에서 이러한 특수 사용을 학습자에게 제시해 준다면 부담과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극어들의 긍정문에서의 쓰임은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유의어들의 변별 정보를 제시할 때 설명해주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전혀'가 갖는 단순 부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전혀'의 객관성, 공손성, 적극적 체면 위협의 화용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 '전혀'는 명제 내용에 대해 화자가 적극 개입할 수 없는 객관성 특성을 갖고 있다. 즉 화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때 쓰인다. 뿐만 아니라 공손성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전혀'를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혀'는 화자가 사태에 대해 중립적·긍정적·부정적인 인식 및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용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표Ⅳ-05> '도저히'의 교수·학습 내용

의미 정보	·불능부정: 사건의 실현에 대한 주체의 의지가 있지만 다른 원인(주체의 무능력, 외부의 방해, 환경의 부적합 등)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음.
통사 정보	·결합 정보: '-ㄹ 수 없다, 못하다'와 자주 결합함. ·주어 제약: [+animate]을 안고 있는 주어, 즉 유정물 주어를 요구함. ·서술어 제약: 동사와 잘 어울리며 형용사 수식 제약을 나타냄. ·서법 제약: 청유형, 명령형 서법과 잘 결합하지 않음.
화용 정보	·구어체: 글말보다 입말에서 많이 사용됨. ·비격식성: 주로 일상대화, 전화 통화와 같은 청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사적인 장면에서 사용됨. ·체면 위협: 화자가 사태의 불가능함에 대한 실망, 불만 같은 부정적 인식 및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면서 청자의 체면을 손상함.

Ⅱ장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형용사 '도저하다'에서 파생한 부정극어 '도저히'는 사건의 실현에 대한 주체의 의지가 있지만 다른 원인(주체의 무능력 , 외부의 방해, 환경의 부적합 등)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불능부정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

앞선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도저히'의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그리고 어떤 부정표현과 자주 결합하는지 등 통사적 특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저히'의 의미를 가르칠 때 그 통사적 제약도 명시적으로 제시해줘야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불능부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도저히'는 유정물 주어를 요구하는 것과 형용사 서술어 수식 제약을 나타낸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 따라 '도저히'가 '-ㄹ 수 없다'나 '못-' 같은 '가능성'을 부정하는 부정표현과 잘 어울리지만 '안, -지 않다'와 잘 결합하지 않는다는 원인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화용적으로 '도저히'는 주로 화자가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감정을 표현할 때 쓰이어 청자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발화 장면을 설정함으로써 제시할 수 있다. 앞선 중국인 학습자 설문 및 인터뷰 결과 학습자들은 화자 자신이나 청자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어떤 상황을 이루기 위해 이미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의 소극적 체면 위협의 화용적 특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용적 특성에 대해 교육할 때 '도저히'를 사용하여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강조한다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Ⅳ-06> '도무지'의 교수·학습 내용

의미 정보	• 불능부정: 사건의 실현에 대한 주체의 의지가 있지만 다른 원인 (주체의 무능력 , 외부의 방해, 환경의 부적합 등)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음. • 단순부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음만을 표현하고 그 원인에 대해 함축하지 않음. • 노력성: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수행자의 노력이 행해져야 함.
통사 정보	• 결합 정보: '불능부정'을 의미할 때 '-ㄹ 수 없다, 못' 과 자주 결합함. 또한 '단순부정'을 의미할 때 '안, 없다'와 자주 결합함. • 주어 제약: '불능부정'을 의미할 때 [+animate]을 안고 있는 주어, 즉 유정물 주어를 요구함. • 서술어 제약: '불능부정'을 의미할 때 동사와 잘 어울리며 형용사 수식 제약을 나타냄. • 서법 제약: 명령형, 청유형 서법과 잘 결합하지 않음. • 시제 제약: 추측 의미의 미래시제 제약을 받음. • 선어말어미 제약: 추측 의미의 '-겠-'와 잘 결합하지 않음.
화용 정보	• 문어체: 입말보다 글말에서 많이 사용됨. • 격식성: 주로 강의, 강연, 회의, 발표와 같은 청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인 장면에서 사용됨. • 체면 위협: 화자가 사태의 불가능함에 대한 실망, 불만 같은 부정적 인식 및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면서 청자의 체면을 손상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도무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며 각각의 의미로 '도저히', 전혀'와 유의관계를 보인다. 사전에서 '도무지'의 첫 번째 의미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로 제시하고 있듯이 학습자들이 '도무지'를 학습할 때 대체로 이러한 중심의미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된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도무지'의 의미를 불완전 적용하는 오류를 보였다. 이러한 잘못된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다

른 부정극어와의 변별과 함께 '도무지'의 이중적 의미를 비교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표Ⅳ-06>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 학습한 '전혀', '도저히'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도무지'의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우선 의미적으로 '도무지'는 '불능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 '도저히'와 의미적 유사성을 보여 변별이 어렵지만 '단순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 '전혀'와 유의관계를 보여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도무지'는 '도저히', '전혀' 각각의 의미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교육 정보를 제공할 때 변별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서 이해 양상 조사 및 사후 인터뷰에서 '도무지'의 사용 빈도가 낮으며 의미 영역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서 학습자들이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하거나 그 쓰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 사용을 회피하는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 위계화 결과에 따라 '도무지'는 '전혀'와 '도저히'의 이후에 제시되는데, 선행 학습한 '전혀', '도저히'와 의미·통사·화용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도무지'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돕기 위하여 다른 부정극어와의 유의관계를 언급하는 동시에 그 차이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우선 '도무지'가 갖는 '불능부정'의 의미는 수행자의 노력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수행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의미적 특성은 불능부정의 의미를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노력이나 시도를 요구하지 않는 '도저히'와 변별되는 정보이다. 하지만 앞에서 조사를 통해 한국인 모어화자조차 이 두 부사 부정극어를 엄밀히 따져서 변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어 화자가 이 둘을 자연스럽게 대체하거나 변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언어적 직관에 의한 것이지 논리적, 분석적 이해에 의한 것은 아닌 듯하다. 이런 까닭에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이 두 부정극어를 가르칠 때에도 굳이 이 정도까지 엄밀한 분석을 피하고, 일단 능력 한계와 사태의 실패를 강조하려면 '도저히'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이때 '-(으)ㄹ 수 없다'와 공기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오류가 적다고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도무지'는 사전에서 '이러니저러니 할 것 것이 아주'의 뜻으로도 제시하고 있으며 대응하는 중국어는 '根本 , 完全 , 全然'이므로 학습자들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따라 '전혀'와 동일하게 '도무지' 역시 문맥에서 '단순부정'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으로 '전혀'와 변별되는 지점이 존재하므로 무조건 교체되어 사용되는 유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통사적으로 '단순부정'을 의미할 때에는 '도무지'는 명령형, 청유형 서법이 결합될 수 없다는 제약 외에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이와 대비적으로 '불능부정'을 의미할 때 '도저히'와 같이 주어 제약, 서술어 제약 등 통사적 특성을 나타냄에 유의하도록 한다. '도무지'의 제시 단계에서 제약을 받는 용례를 충분히 제공하여 학습자들에게 '도무지'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 별개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화용적으로 '도무지'는 '도저히'와 같이 어휘 자체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반영되어 그러한 태도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때문에 체면 위협을 발현시킬 수 있다. 이와 달리, '전혀'는 발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부정적, 긍정적, 중립적/객관적인 태도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변별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3.2. '결코-절대로'의 변별적 교육 내용

'결코'에 관한 교육 정보를 제시할 때 단순히 사전의 정의와 부정문에 쓰인다는 것을 언급하는 데 그치면 나중에 '절대, 절대로' 또는 다른 적극적 부정극어를 배운 후 이들 어휘들 간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결코'의 의미와 용법을 명확하게 교육한다면 학습자들이 다른 부정극어와의 차이를 내면화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이에 따라 '결코'의 특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변별적 특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코'가 갖는 의미·통사·화용적 특성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표Ⅳ-07> '결코'의 교수·학습 내용

의미 정보	• 확신성: 서술 내용은 화자의 결정적 단언임을 의미함.
통사 정보	• 결합 정보: '-지 않다, 아니다'와 자주 결합함. • 서법 제약: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서법과 잘 결합하지 않음. • 시제 제약: 추측의 미래 시제에 잘 쓰이지 않음.
화용 정보	• 문어체: 입말보다 글말에서 많이 사용됨. • 격식성: 주로 강의, 강연, 회의, 발표와 같은 청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인 장면에서 사용됨. • 공손성: 청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부정하거나 화자가 사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감정을 두드러지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의도를 보여 공손한 태도를 나타냄. • 체면 위협: '반박, 거절' 같은 화행에서 단정적 발화를 통해 청자의 체면을 적극적 위협할 수 있음.

앞에서 밝혔듯이 '결코'는 서술 내용이 화자의 단언임을 강조하는 데 의미 초점이 있으며 '-ㄹ 수 없다', '-지 않다', '-ㄹ 것이다' 같은 부정소와 자주 공기하여 쓰인다. 또한 앞선 조사 결과에서 '결코'의 서법 제약과 관련된 학습자 오류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는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결코'는 주어 제약, 시제 제약, 서술어 제약은 없지만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의 서법 제약을 나타내는 통사 정보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코'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반영되어 발화 내용에 대한 발화자의 확신을 나타낸다. 이러한 확신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의문형, 추측형 서법 제약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결코'를 사용할 때 수식하는 서술 내용은 화자가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결정적 단언인 것을 인지시키고, 의문형, 추측형 그 자체가 화자의 무지나 불확신을 드러내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결코'가 의문형, 추측형 서법과 결합하지 못하는 원인을 이해하도록 한다.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 조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부정극어의 문체/장면에 따른 쓰임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여 모어 화자와 사용 양상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부정극어를 교육할 때 모어 화자가 부정극어를 사용할

때의 중요 기준 중 하나인 문체/격식성 정보에 대한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결코'의 화용적 특성을 제시할 때에는 입말보다 글말에서 주로 사용되고 또는 격식성이 높은 장면일 때 '결코'가 선호적으로 사용된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결코'는 화자가 서술 내용에 대해 결정적 단언을 할 때 쓰이어 특히 청자의 주장이나 관점을 반박할 때 체면 위협의 의미를 전달한다. 이때 '절대로'의 학습 이후 '결코'와 '절대로'를 변별 없이 혼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결코'의 화자 주체 느낌 그리고 격식성이 더 높음을 계속하여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표Ⅳ-08> '절대로'의 교수·학습 내용

의미 정보	• 최고의 부정 정도를 강조함. • 명령, 금지의 의미를 나타냄.
통사 정보	• 결합 정보: '-지 않다, -ㄹ 수 없다, 말다'와 자주 결합함. • 서법 제약: 평서형, 명령형, 청유형과 결합하며 의문형과는 결합하지 않음. • 긍정문 쓰임: '절대적으로'의 축약형으로 긍정문에서 쓰임. • 시제 제약: '추측'을 나타내는 미래시제 제약을 받음.
화용 정보	• 문어체/구어체: 문어에서 '절대로'를 많이 사용되고 구어에서 '절대'를 많이 사용됨. • 격식성/비격식성: 강의, 강연, 회의, 발표와 같은 청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인 장면에서 '절대로'가 많이 사용되고 일상대화, 전화 통화와 같은 청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사적인 장면에서 '절대'가 많이 사용됨. • 공손성: '칭찬, 위로' 같은 화행에서 화자가 청자에 대한 관심, 배려를 적극 보여주는 발화 의도를 보일 때 공손을 드러냄. • 체면 위협: 직접적인 명령/금지 의미를 나타낼 때 적극적으로 청자의 체면을 손상함.

'절대로'의 학습은 '결코'의 학습 이후에 이루어진다. 사전과 교재에서 '결코'의 의미 기술은 '절대로'의 의미 기술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게다가 대응하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선행 학습한 '결코'와 '절대

로'의 의미적 차이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두 단어가 항상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결코'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결코'와 '절대로'가 어떠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두 부정극어가 교체될 수 있는 경우뿐 아니라 교체될 수 없는 지점에 대한 정보 또는 두 부정극어 사이에 어떠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결코'와 '절대로'는 매우 비슷한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가지므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둘을 자유롭게 교체해서 사용하지만 학습자들에게 '두 어휘의 의미는 같거나 비슷하다.'고 가르친다면 오류 문장을 생산해내거나 발화 상황과 맥락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 유의어 쌍을 교육할 때 공통점보다는 일단 두 어휘의 의미 초점 및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정확한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Ⅳ-08>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결코'와의 차이점을 제시하며 '절대로'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의미적으로 '절대로'와 '결코'는 모두 적극적 부정극어로서 부정의 의미와 정도를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직접적인 금지/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때 '절대로'가 더 어울린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통사적 변별 정보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결코'는 화자의 단언을 나타내며 주로 '-ㄹ 수 없다', '-지 않다', '-ㄹ 것이다'와 자주 공기하는데 '절대로'의 결합 정보는 '결코'와 겹치는 경우가 많지만 '말다'와의 공기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학습자들은 이러한 변별 정보를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않는 양상을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이 유의어 쌍의 의미 차이와 관련된 통사적 변별 정보로 명령형, 청유형 서법 결합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의미 층위의 변별적 특성의 설명 등을 통해 학습자들이 명령문, 청유문에서 '결코'와 '절대로'가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고 파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선 중국인 학습자 이해 양상 조사 결과 학습자들은 '절대로'의 긍정문 쓰임에 대해 익숙하고 수용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그것은 학습자들이 '절대로'의 이

중적 의미 특성에 대해 인지하고, 즉 '절대적으로'의 축약형으로 긍정문에서 쓰인다는 원인을 명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에 의해 판단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들은 '절대로'가 부정문뿐만 아니라 긍정문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록 이러한 통사적 특성은 '결코'와 '절대로'의 변별 기제가 되지만 만약 학습자들에게 '절대로'가 긍정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학습자들이 '절대로'의 의미를 확장하여 긍정 의미로 과잉 적용하거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절대로'가 긍정적 맥락에서 쓰일 때 '절대적으로'의 축약형임을 제시함으로써 '절대로'의 긍정 의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또한 조사에서 학습자들이 '절대로'와 '절대'가 같은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였는데 부사로 쓰이는 '절대로'와 '절대'는 의미 차이가 거의 없으나 '절대'가 명사의 의미 기능을 수행할 때 직접 명사를 수식하고 긍정문에 쓰이는 것은 '절대로'에 없는 기능이기에 예문과 같이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절대'가 비격식적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절대로'가 문어와 격식적인 장면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화용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정보이기도 하다.

한편 화용적으로는 조사에서 모어 화자들은 강의, 강연, 회의, 발표와 같은 청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인 장면, 그리고 아주 공손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절대로'보다 '결코'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학습자들은 강한 부정의 '절대로'가 '결코'보다 발화 내용이 강조되어 공손성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유의어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두 부정극어가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는 공손성과 체면 위협의 예시를 통해 해당 맥락에서 '결코'와 '절대로'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면서 화용적 쓰임과 어감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러한 어감 차이가 부정성의 정도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혀 의미와 화용 층위의 관련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돕는다.

3.3. '별로-그다지-그리'의 변별적 교육 내용

'완전부정'을 나타내는 적극적 부정극어와 달리, '별로'는 전형적인 소극적 부정극어로서 '정도, 빈도, 능력, 기호'과 관련한 '부분부정'의 의미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 특성을 가진 어휘는 '별로' 외에 '그리, 그다지'도 있는데 이 중에서 '별로'의 난이도가 가장 낮고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초급 단계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본고의 코퍼스 분석 결과와 이해 양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로'의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Ⅳ-09> '별로'의 교수·학습 내용

의미 정보	• 어떤 사태의 정도가 많거나 크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냄. • 화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냄.
통사 정보	• 결합 정보: '없다, -지 않다'와 자주 결합함. • 서술어 제약: 형용사와 상태동사와 잘 어울리지만 정도나 등급성을 나타내지 않는 동작동사와 잘 어울리지 못함. • 서법 제약: 평서형과 결합하며 명령형, 청유형과는 결합하지 않음.
화용 정보	• 구어체/문어체: 입말과 글말에서 두루 사용됨, • 격식성/비격식성: 강의, 강연, 회의, 발표와 같은 청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인 장면뿐만 아니라 일상대화, 전화 통화와 같은 청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사적인 장면에서도 사용됨. • 공손성: 체면 위협 행위의 인정/직접적인 사과 표현/축소 표현의 겸양/단정적인 발화의 회피 등을 통해 공손성을 드러냄. • 체면 위협: '별로+이다'의 구성으로 '별로 안 좋다'의 의미를 함축하는 맥락에서 청자의 체면을 손상함.

'별로'는 기술하는 상황이 드물게 나타나거나 일어난 정도가 약함을 의미한다. 사전의 해석으로 '그다지 다르게, 이렇게 하게 따로'로 이해되는 '별로'는 주로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점에 이르지 않음을 강조하며 소극적 부정성을 나타내어 부정의 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소극적 부정성이란 화자가 예상했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의 긍정을 내포함을 의미한다. 앞선 조사에

서 '별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에게 사용에 있어 가장 쉬운 어휘로 나타난 바 있다. 위와 같은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교실 상황에 따라 차근차근 제시해주면 이해 및 사용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겠다.

통사적 층위에서 '별로'는 그 의미적 특성에 따라 상태성 동사와 잘 어울리지만 정도나 등급성을 나타내지 않는 동작동사와 잘 결합할 수 없는 통사적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명령법, 청유법 제약을 나타내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별로'의 결합 정보를 보면 '별로+안+용언' 혹은 '별로+용언+보조용언(-지 않다)' 구성으로 쓰거나 '없다, 아니다'와 같은 용언과도 어울려 쓰인다. 그러나 부정표현과의 호응에 의해 부정극어가 되는 다른 부정극어와 달리, '별로'는 '전혀'와 마찬가지로 부정표현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별로+이다'의 구성으로 부정 의미를 나타내며 문장을 종결할 수 있다.

구어에서 '별로+이다'는 주로 '별로 안 좋다'의 의미를 암시하는 맥락에서 쓰이거나, 청자의 의견에 대해 '안 그렇다'라고 반응하는 대화의 답변에 쓰인다. 이러한 화용적 효과와 관련하여 '별로'는 담화 상화에서 체면 위협의 화용적 효과로 확장되어 화자의 불만을 나타내는 데에 쓰인다. 이때에는 화자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실망/불만 같은 부정적 태도를 표현함을 제시하면 '별로'의 내포 의미가 화용적 특성으로 확정된 것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별로'는 소극적 부정성을 나타내므로 체면 위협 행위의 인정, 직접적인 사과 표현, 축소 표현의 겸양, 단정적인 발화의 회피와 같은 발화 전략으로 사용됨으로써 공손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다양한 용례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표Ⅳ-10> '그리'의 교수·학습 내용

의미 정보	•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남. • 부정문에 쓰여 화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냄.
통사 정보	• 결합 정보: '-지 않다'와 자주 결합함. 그리고 다른 술어 성분이 없을 때 직접 '없다, 아니다'와 결합하지 않음. • 서법 제약: 명령형, 청유형 서법과 결합하지 않음.

	• 서술어 제약: 상태동사, 형용사와 잘 어울리지만 동작동사를 수식할 때 '그다지'와 서술어 사이에 '많이, 자주' 같은 빈도, 정도, 등급을 나타내는 부사가 삽입되면 훨씬 자연스러움. • 긍정문 쓰임: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러한 모양'의 의미를 나타낼 때 자주 긍정문에서 쓰임.
화용 정보	• 문어체: 입말보다 글말에서 많이 사용됨. • 격식성: 주로 강의, 강연, 회의, 발표와 같은 청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인 장면에서 사용됨. • 공손성: 체면 위협 행위의 인정/직접적인 사과 표현/축소 표현의 겸양/단정적인 발화의 회피 등을 통해 공손성을 드러냄. • 체면 위협: 긍정문에서 쓰일 때 비난, 질책, 원망 같은 발화 의도에 따라 청자의 체면을 손상함.

'그리'가 그 이중적 의미 특성에 따라 다른 부정극어에 비해 긍정문에서 활발히 나타나는 것은 변별되는 주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소극적 부정극어로서 부정표현과 공기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부정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식할 때 동일한 의미 가능을 수행하는 '별로, 그다지'와는 유의관계를 보이므로 변별이 어렵다. 결국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그리'가 갖는 의미, 통사, 화용적 변별 정보가 모두 담긴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Ⅳ-10>에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학습자들에게 '그리'가 다른 부정극어들과 달리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러한 모양'의 의미로 항상 긍정문에 쓰인다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의 긍정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돕기 위해서는 긍정문에서 '그렇게'의 의미와 같다고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그리'가 긍정 의미를 드러내는 맥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파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가 부정표현과 공기하여 소극적 부정성을 나타내는 쓰임도 보여줘야 한다. 이때에는 의미적으로 '그리'는 '별로'와 같이 소극적 부정의 의미를 갖지만 정도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안에 쓰이는 '그'의 의미적 특성과 관련하여 '그리'는 '별로'보다 척도상에서 가정 기준점에 더 가까우며 내포하는 긍정성이 더 높

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이에 따라 '그리'의 부정 의미를 제시할 때 '별로'와의 차이점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코퍼스 분석 결과를 통해 '그리'의 통사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먼저 '그리'는 부정 의미뿐만 아니라 긍정 의미도 나타내어 부정문이 아닌 문맥에서 활발한 사용 양상을 보인다. 또한 주로 등급성을 지닌 서술어와 어울린다는 점, 명령형, 청유형 서법을 허용하는 점, 그리고 직접 '없다, 아니다'를 수식할 수 없다는 점과 같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통사 정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은 의미 정보와 함께 제시된 예문을 통해 '그리'의 통사 제약에 대해 유추하게 되며, 사용 제약에 대한 인식 양상이 학습자마다 다르고 그 이해가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리'가 갖고 있는 통사 특성에 대한 명시적인 학습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화용적으로 '그리'는 '별로'와 같이 공통으로 불만 표현의 체면 위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겸손이나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체면 손상의 완화 장치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그리'는 긍정 맥락에서 쓰일 때 발화 의도에 따라 더 강한 공손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별로'와 변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용적 쓰임을 제시할 때 두 부정극어의 발화에서 미묘한 어감 차이까지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그리'와 '별로'의 쓰임을 변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그리'의 사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Ⅳ-11> '그다지'의 교수·학습 내용

의미 정보	• 부정문에 쓰여 화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냄. • 놀라움이나 감탄을 나타낼 때 의문문에 쓰여 화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이른다는 의미를 전달함.
통사 정보	• 결합 정보: '-지 않다'와 자주 결합함. 그리고 다른 술어 성분이 없을 때 직접 '없다, 아니다'와 결합하지 않음. • 서법 제약: 명령형, 청유형 서법과 결합하지 않음. • 서술어 제약: 상태동사, 형용사와 잘 어울리지만 동작동사를 수식할 때 '그다지'와 서술어 사이에 '많이, 자주' 같은 빈도, 정도, 등급을 나타내는 부사

	가 삽입되면 훨씬 자연스러움.
화용 정보	• 문어체: 입말보다 글말에서 많이 사용됨. • 비격식성: 주로 일상대화, 전화 통화와 같은 청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사적인 장면에서 사용됨. • 공손성: 체면 위협 행위의 인정/직접적인 사과 표현/축소 표현의 겸양/단정적인 발화의 회피 등을 통해 공손성을 드러냄. • 체면 위협: 긍정문에서 쓰일 때 비난, 질책, 원망 같은 발화 의도에 따라 청자의 체면을 손상함.

사전의 정의에 의해 '별로-그리-그다지'를 유의어군으로 묶었으나 그 차이점을 알 수는 없다. 앞서의 조사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소극적 부정극어 '그다지'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난 바 있었다. 그 원인에 대해 주로 학습 경험이 없거나 의미가 유사한 '별로, 그리'와의 차이점을 몰라서 오류를 범할까 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다지'는 역시 부정 약화 기능을 하는 소극적 부정극어로서 선행 학습한 '별로, 그리'와 유의관계를 보이므로 유의어가 변별되는 정보를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다지'는 '그리'와 동일하게 그 안에 쓰인 지시사 '그-' 때문에 지시성을 띠고 있으며 '그렇게까지, 그러한 정도로'에서 연유한 부정극어로서 어떤 기준 정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부정구문을 만든다. 이에 따라 '그다지'는 '별로, 그리'와 같이 그러한 기준에 이르기까지는 아님을 강조하여 부정의 의미와 정도를 약화시키는 의미 특성을 나타낸다. 앞서의 조사에서 '그다지'가 '별로'와 의미가 같다고 여기는 학습자도 있고, '그다지'를 '그리'의 유의어로 본 학습자도 있었는데, 이에 따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별로'와 '그리'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그다지'의 의미를 부정 의미와 긍정 의미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를 나타낼 때 교체될 수 있는 상황과 교체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정도성의 의미와 관련되어 '그다지' 역시 빈도, 정도, 등급, 상태 같은 성격을 가지지 않는 동작동사 또한 부정소 '없다, 아니다'를 직접 결합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동작동사를 수식할 때 '그다지, 그리, 별로'와 서술어 사이에 '많이, 자주' 같은 빈도, 정도, 등급을 나타내는 부사가 삽입되면 훨씬 자연스럽다는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없다' 직접 수식 가능 여부는 '그다지, 그리

'가 '별로'와 변별되는 지점에 대해 의미 설명과 함께 제시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긍정'의 의미·통사적 특성을 기반으로 '그다지'가 부정문맥에서 '별로'처럼 체면 위협을 완화하거나 겸손을 통해 공손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긍정문맥 특히 의문문에서 '그리'와 동일하게 불만 표현의 체면 위협을 드러낸다는 화용적 특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 및 의미에 따른 정확한 사용을 돕기 위하여 이 세 부정극어가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는 예시를 중심으로 해당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화용적 쓰임과 미묘한 어감 차이를 변별할 수 있도록 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의 의미·통사·화용적 변별 기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이해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부정극어 유의어의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 연구이다.

한국어 부정극어는 부정이라는 의미 범주에 속해 있지만, 특성이 복잡하고 부정극어들 사이에 미묘한 의미 차이를 보이며 통사, 화용 측면의 제약도 다르다. 게다가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극어는 부분적으로 같은 기능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정극어들의 변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부정 의미를 대표하는 개별 부정극어만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극어를 회피적으로 발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부정극어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여 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휘 질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유의관계를 보이는 부정극어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의어의 변별 및 교수·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지금까지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의미 범주 안에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한국어 부정극어들이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의미적 유사성이 높은 만큼 그 변별 기제를 정리하여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정극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부정극어 서로 간 유의관계를 보임을 언급하는 데 그쳐 나아가 부정극어들이 갖는 변별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학습자들이 명확하게 부정극어 유의어를 구별하여 발화 의도에 맞는 것을 골라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정극어 간의 변별 기제가 교육 내용의 핵심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사이에 발견되는 의미·통사·화용적 변별 기제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코퍼스 자료 및 선행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교체 검증

법, 의미성분 분석법, 나열 검증법, 결합제약 검증법 등을 활용함으로써 연구 대상으로 삼은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가 갖는 의미·통사·화용적 변별 기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들 부정극어들은 부정이라는 의미 범주에서 의미적 유사성을 보이지만 그 의미성분이 다름에 따라 주어 제약, 서법 제약, 서술어 제약, 시제 제약 등 각기 다른 통사 제약을 나타냈을 뿐더러 화용적으로 문체, 격식성, 공손성을 나타낼 때에도 미묘한 어감 차이를 나타내므로 변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코퍼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들의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에 대한 이해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와 사후 점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모어 화자를 대조 집단으로 하여 두 집단의 이해 양상을 비교 및 분석하였고, 나아가 앞에서 밝혀낸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더욱 정교화하였다. 조사 결과 중국인 학습자들은 의미, 통사, 화용적 변별 기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서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변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극어 유의어의 이해에 있어서 모어 화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개별 부정극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회피하거나 그 의미 규칙을 불완전 적용하거나 과잉 적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이해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주로 모국어의 간섭, 부정극어가 갖는 특성의 복잡성, 그리고 교육의 한계로 귀결하였고 이를 통해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앞에서 코퍼스 분석을 통해 밝혀낸 변별 기제와 학습자 이해 양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부정극어 유의어의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우선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활용하여 부정극어들을 변별하고, 상황 및 맥락에 따른 부정극어 사용을 정확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빈도 정보 및 선행 연구에 의해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들의 제시 순서를 위계화하였다. 부정극어 유의어의 의미·통사·화용의 세 측면의 변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이해하고 정확하고도 적절하게 부정극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하였다.

본고는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 '도저히-도무지-전혀', '결코-절대로', '별로-그다지-그리'를 대상으로 코퍼스에서의 사용 양상을 살펴 부정극어들이 각각 갖는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특성을 밝혀 그 변별 기제를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부사 부정극어 유의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이해 양상을 살피고 이를 근거하여 명시적인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문어 중심의 SJ-RIKS 코퍼스 확장판을 활용하여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 기제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구어 장르에서의 부정극어의 사용 양상을 수집하고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부정극어 유의어의 선정 및 코퍼스 용례 분석 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한국어 부정극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더 넓은 범주의 부정극어 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 논저>

강림(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극어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강범모·김흥규(2009), 한국어 사용 빈도, 한국문화사.

강현화(2000), 코퍼스를 이용한 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17, 이중언어학회, 57-75쪽.

강현화(2001), 빈도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8쪽.

강현화(2005),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감정 기초형용사의 유의관계 변별 기제 연구, 한국어 의미학 17, 한국어 의미학회, 43-64쪽.

강현화(2014a), 한국어교육용 초급 어휘 선정 연구, 문법교육 21, 한국문법교육학회, 1-26쪽.

강현화(2014b), 한국어교육용 중급 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0,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48쪽.

강현화(2015), 한국어교육용 고급 어휘 선정에 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28쪽.

고영근·구본관(2018), 우리말 문법론(개정판), 집문당.

고영근·남기심(2014), 표준국어문법론(제4판), 탑출판사.

구본관(201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27-59쪽.

구종남(1990), 부정문의 통사 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28, 한국언어문학회, 403-423쪽.

구종남(2007), 화용론적 가정과 부정극어, 한국언어문학 60, 한국언어문학회, 5-36쪽.

구종남(2011), 국어의 부정극어 허가자와 허가 양상,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549-583쪽.

구종남(2012), 국어의 부정극어, 경진.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광해(1998), 유의어의 의미 비교를 통한 뜻풀이 정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선청어문 2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40쪽.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김동식(1981), 否定 아닌 否定, 언어 6(2), 한국언어학회, 99-116쪽
김민수(1973), 국어문법론, 일조각.
김석득(1971), 한국어 부정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3, 국어국문학회, 369-380쪽.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탑출판사.
김선희(2002), 부정 양태 부사의 통사·의미적 특성, 한글 256, 한글학회, 69-98쪽.
김영근(1983), 韓國語 否定의 束縛範圍에 대한 硏究, 啓明大學校 석사학위논문.
김영희(1998), 부정 극성어의 허가 양상, 한글 240,241, 한글학회, 263-297쪽.
김의수(2007), 한국어의 부정 극성 용언을 찾아서,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학회, 7-49쪽.
김정은(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중간언어와 오류 분석,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50쪽.
김중섭·김정숙·강현화·김재욱·김현진·이정희(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김지은(1999), 한국어의 부정극어와 자유선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무(2013), 언어적 공손성 이론에 대한 소고, 프랑스문화연구 26, 한국프랑스문화학회, 121-150쪽.
김태나(2011), 한국어 발화에서의 불손 실현: Brown과 Levinson(1987)의 불손 전략을 바탕으로, Foreign Language Education 18(3), 한국외국어교육학회, 439-477쪽.
김한샘(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원.
마릉연(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말뭉치 기반 한국어 동사 유의어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금현(2004),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5-90쪽.
민현식(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61-334쪽.
박상규(1977), 國語의 否定法에 關한 硏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샤론(2018), 부정극어에 대한 화용론적 접근: 부정극어 any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규(1989), 현대국어의 부정문 연구: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규(2003), 국어 부정문의 체계적 연구, 보고사.
배미연(2018), 긍정문에서 나타나는 부정극어 실현 양상 연구, 泮橋語文硏究 49, 반교

어문학회, 195-224쪽.
봉미경(2005), 국어 형용사 유의관계의 유형, 언어 사실과 관점 14,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99-135쪽.
사범범(2015), 한국어 교재 개선을 위한 부사 부정극어의 결합양상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사범범(2018), 중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부정극어의 교육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정수(1996), 현대 국어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부.
서희정(2010), 한국어교육에서 감정형용사의 제시 방안: '아쉽다', '안타깝다', '아깝다', '섭섭하다', '서운하다'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4, 한국언어문학회, 31-59쪽.
송국경(2014), 한국어 부정극어 부사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소극적 부정극어와 적극적 부정극어를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시정곤(1997a), 국어의 부정극어 허가 조건, 언어 22-3, 한국언어학회, 471-497쪽.
시정곤(1997b), 국어의 부정극어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19, 국어국문학회, 49-78쪽.
여열(201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부정극어 교육 방안: 단어형 부정극어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상언(2015), 한·중 부정극어 대조 연구: 부사 부정극어와 "'하나'류 수량사구+도/(也)"형 부정극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옥순(2004), 국어 부정극어의 유형과 의미 특성에 대하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현경·강현화(2002), 유사관계 어휘정보를 활용한 어휘교육 방안,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2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43-269쪽.
이경선(2020), 비부정적 문맥에 쓰이는 한국어 부정극성 부사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금영(2016), '그러-/그리-'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고찰, 인문학연구 55(2), 215-247쪽.
이기종(1989), 국어 부정구문에 관한 연구 -부정극어를 중심으로-, 한남어문화 15,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63-197쪽.
이미지(2014), 말뭉치 분석을 활용한 감정 표현 어휘 교육 연구: '아쉽다', '섭섭하다', '아깝다'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1(38), 동남어문학회, 383-402쪽.
이선경(2020), 한국어 부사 부정극어 교육 목록 선정 및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현(2003), 국어 부정극어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슬(2020), 한국어 감동 표현 감정형용사의 유의어 교육 연구: 유의어 변별 기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연주 · 한정한(2016), 구어 사용역에 따른 한국어 교육용 부사의 사용 양상: 고빈도 부사 18개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0(32), 7-53쪽.
이영(2013), 한국어 부사성 부정 극어의 통사 · 의미적 특성,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헌(1982), 부정극어의 수식 범위, 외국문화연구 5, 조선대 외국문화연구소, 209-225쪽.
이은섭(1996), 현대 국어 부정문의 통사 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섭 · 이선웅(2013), 의미의 대립 관계와 부정극어의 공기 현상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42, 한국어의미학회, 247-267쪽.
이잠석(1991), 국어 부정문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재현(1997), 부정부사와 이른바 '부정극어'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29,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13-219쪽.
이종은(2005), 구성주의를 적용한 한국어 문법교육 방안: 문제중심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애(2002), 국어 부정극어 연구: 형태론적 유형과 공기제약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주(2021), 한국어 대립 표현 유사 연결어미 교육 내용 연구: '-지만', '-는데', '-으면서', '-더니'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창덕(2014), 현대 국어 부정 의미의 표현 형식과 화용 체계 연구, 국어교육연구 55, 국어교육학회, 265-288쪽.
이한규(2001), 한국어 부정극어의 화용 의미, 담화와 인지 8(1), 담화 · 인지언어학회, 109-121쪽.
이현우(2004), 영어와 한국어의 부정극어: 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진문화사.
이혜용(2011), 의사소통적 특성을 고려한 정표화행의 유형 분류, 한국어 의미학 34, 한국어 의미학회, 319-347쪽.
이환묵(1977), 국어의 극어와 화용상의 가정, 語學硏究 13(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15-127쪽.
임유종(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임유종(2005), 부정소 호응 부사에 의한 연어와 사전 기술, 한국언어문화 27, 한국언어문화학회, 235-256쪽.

임유종(2007), 부정표현과 호응하는 부사의 사용 양상과 한국어 교육, 한민족문화연구 20, 한민족문화학회, 187-214쪽.
임유종 · 이필영(2004), 부정표현과 호응하는 부사의 사용 양상과 언어 발달, 한국어 의미학 15, 한국어 의미학회, 227-248쪽.
임지룡(2010),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임홍빈(1978), 부정법의 논의와 국어의 현실, 국어학 6, 국어학회, 185-206쪽.
임홍빈(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 국어연구소, 72-99쪽.
정영교(2012),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양태부사 유의어 의미 분석과 제시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영애(2010), 국어 부정 극어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혜인 · 이상철(2017a), 공손성과 관련성 이론, 국제언어문학 38, 국제언어문학회, 201-222쪽.
정혜인 · 이상철(2017b), 발화 의미와 외축, 언어연구 32(4), 한국현대언어학회, 837-856쪽.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태학사.
조민정(2010a), 유의어 변별을 위한 검증법과 기술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 한국사전학회, 35-61쪽.
조민정(2010b), 학습자 사전에서의 유의어 선정과 기술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33, 한국어 의미학회, 349-387쪽.
진희릉(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쩡리엔치(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극어 부사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상진(2000), 한국어 부정 극성 부사에 대한 연구, 화법연구 2, 한국 화법학회, 185-242쪽.
최윤(2013), 부정극어 '절대(로)'의 의미 고찰, 우리말교육현장연구 7(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55-279쪽.
하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유의어 교육 연구: 고유어와 한자어의 사용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지경(2009), 한국어 부정 극어와 부정소의 호응 양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향우우(2011), 한 · 중 부정극어에 대한 대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흥영(2013), 한 · 중 부정극어의 대조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Malik, Ekaterina(2012), 부사 '그렇게'의 의미 연구: 지시성, 부정극성, 증거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외 논저>

Austin, J. 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University Press.

Baker, C. L.(1970), *Double Negatives,* Linguistic Inguiry 1(2), The MIT Press, 169-186쪽.

Brown, H. D.(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Brown, P. & Levinson, S. C.(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ulpeper, J.(1996), *Towards an Anatomy of Im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25(3), North-Holland Pub. Co, 349-367쪽.

Fraser, B.(1990), *Perspectives on 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14(2), Elsevier, 219-236쪽.

Goffman, E.(1967), International Ritual: *Essays on face to face behavior,* Doubleday.

Ladusaw, W. A.(1980), *Polarity Sensitivity as Inherent Scope Relations*, Garland.

Lakoff, R.(1971), If's, And's, and But's about Conjunction, In C. J. Fillmore & D. T. Langendoen (Eds.),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s,* Holt, Rinehart and Winston, 114-149쪽.

Leech, G. 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gman,

Limberg, H.(2009), *Impoliteness and Threat Responses,* Journal of Pragmatics 41(7), Elsevier Science, 1376-1394쪽.

Linebarger, M. C.(1987), *Negative Polarity and Grammatical Representation*, Linguistics and Philosopby 10(3), Kluwer Academic Publishers, 325-387쪽.

Nation, P.(2018), 외국어 어휘의 교수와 학습(2판), 김창구 외(역). 소통.

Searle, J. R.(1975), *Indirect Speech Acts,* Academic Press.

<참고 사이트>

(주)낱말, 유의어 대사전 : https://natmal.com
고려대한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연세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yonseidic/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사전류>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광해(2009), 『비슷한 말 반대 말 사전』, 도서출판 낱말.
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2010), 『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낱말.
손남익(2014), 『부사사전』, 서울: 역락.
조선외국문도서출판사 외(1995), 『한중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부 록

【인적 사항】

중국인 고급 학습자
1. 설별
2. 연령
3. TOPIK 등급
4. 한국어 공부시간
5. 전공
6. 소속:_____대학교

한국어 모어 화자
1. 설별
2. 연령
3. 전공
4. 소속:_____대학교

【테스트 내용】

Ⅰ. (유사의미 선택형 테스트) 다음 밑줄 친 단어 대신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고르십시오.

1. 그의 무례한 행동을 <u>도무지</u> 참을 수가 없다.
   A.도저히 B.전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2.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는 <u>도무지</u> 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A.도저히 B.전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3. 이 일은 내 전공이 아니라서 밤을 새워도 <u>도저히</u> 해낼 수 없을 것 같다.
   A.도무지 B.전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4. 그를 어디서 만났는지 <u>도저히</u> 생각이 안 난다.
   A.도무지 B.전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5. 약을 먹어서 이제 배가 <u>전혀</u> 아프지 않다.
   A.도무지 B.도저히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6. 이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A.도무지　　B.도저히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7. 아내가 잔소리를 하여도 **전혀** 소용이 없다.

A.도무지　　B.도저히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8.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겐 **반드시** 비밀로 지켜 주십시오.

A.결코　　B.절대로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9. 박물관에서는 허락 없이 **절대로** 사진을 찍지 마세요.

A.결코　　B.전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10.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A.절대로　　B. 전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11. 추울 줄 알았는데 오늘 **별로** 춥지 않다.

A.그다지　　B.그리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12. 지금 할 말이 **별로** 없다.

A.그다지　　B.그리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13. 민호는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가?

A.별로　　B.그다지도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14. 잘 해결될 테니까 **그리** 걱정하지 말라.

A.별로　　B.그다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15. **그리** 먼 길인 줄은 미처 몰랐다.

A.별로　　B.그다지

C.모두 가능　　D.모두 불가능

Ⅱ. (진위 판단형 테스트)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올바르면 O, 그렇지 않으면 X 를 선택하십시오.

1. 내가 시켰다면, 민호는 그 일을 도무지 안 했을 거야.
2. 그는 피아노를 배우는데 도무지 흥미가 없다.
3. 이 컴퓨터를 도무지 고칠 수 없나요?
4. 날씨가 도저히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5. 나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도저히 예쁘지가 않다.
6. 포유류 이전에 있어서 생명은 전혀 자연에 속해 있었다.
7. 잃어 버렸던 반지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8. 몸이 안 좋아서 술을 전혀 드시지 마세요.
9. 나는 사과를 전혀 싫어한다.
10.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11. 실내에서 결코 담배를 피우지마.
12. 물과 공기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13. 임신부에게 흡연은 절대로 금물이다.
14. 그는 결코 합격할 수 없니?
15. 그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겠지?
16. 나는 결코 이 일을 못 할 것 같다.
17.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도착하지 않을 거예요.
18. 제 생각에 그 영화는 별로입니다.
19. 그는 대학에 별로 합격하지 못했다.
20. 오늘따라 발걸음이 별로 가볍게 느껴진다.
21. 웬 잔소리가 그다지도 많으냐?
22. 서두르는 바람에 아침을 그다지 먹지 못했다.
23. 자네가 그리 생각해 주니 고맙네.
24. 그리 착한 사람 또 만날 수 있겠어?
24. 그리 착한 사람 또 만날 수 있겠어?
25. 나는 이 일에 대해 그리 자신이 없다.

Ⅲ.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 아래의 발화 상황에 따라 {나}의 발화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어휘를 선택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답하시오.

1. [상황] 당신은 친구 민호와 함께 치킨을 먹던 중 배가 불렀습니다, 이때 민호가 당신

에게 왜 먹지 않는지 묻습니다.

민호: 치킨 좀 남았는데 왜 더 안 먹어?
나: 배가 너무 불러서 ( ) 못 먹어.

1). 위 상황에서 {나}의 발화의 괄호 안에 어느 어휘를 사용할까요?

A.도무지 B.도저히 C.전혀 D.절대

2).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어느 정도 공손하게 표현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매우 공손하다 ②약간 공손하다 ③보통 ④별로 공손하지 않다 ⑤전혀 공손하지 않다

3).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상대방의 체면을 어느 정도 위협 혹은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강함)

②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약함)

③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강함)

④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약함)

2. [상황] 당신은 카페에서 우연히 옛 친구 영희를 만났다.

영희: 이게 누구야. 서연아!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 세상에, 영희 맞지? 여기서 만나게 될 거라고 ( ) 생각지도 못했네!

1). 위 상황에서 {나}의 발화의 괄호 안에 어느 어휘를 사용할까요?

A.도무지 B.도저히 C.전혀 D.절대

2).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어느 정도 공손하게 표현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매우 공손하다 ②약간 공손하다 ③보통 ④별로 공손하지 않다 ⑤전혀 공손하지 않다

3).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상대방의 체면을 어느 정도 위협 혹은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강함)

②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약함)

③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강함)

④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약함)

3. [상황] 당신은 지각으로 인해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상태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지각이야? 나: 죄송합니다, 선생님. 내일부터는 ( ) 늦지 않을게요.

1). 위 상황에서 {나}의 발화의 괄호 안에 어느 어휘를 사용할까요?
A.결코 B. 절대 C. 전혀
2).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어느 정도 공손하게 표현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매우 공손하다 ②약간 공손하다 ③보통 ④별로 공손하지 않다 ⑤전혀 공손하지 않다
3).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상대방의 체면을 어느 정도 위협 혹은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강함)
②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약함)
③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강함)
④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약함)

4. [상황] 당신은 지하철에서 실수로 낯선 이의 발을 밟게 되었습니다.

나: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 고의가 아니었어요!

1). 위 상황에서 {나}의 발화의 괄호 안에 어느 어휘를 사용할까요?
A.결코 B.절대 C.전혀
2).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어느 정도 공손하게 표현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매우 공손하다 ②약간 공손하다 ③보통 ④별로 공손하지 않다 ⑤전혀 공손하지 않다
3).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상대방의 체면을 어느 정도 위협 혹은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강함)
②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약함)

③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강함)
④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약함)

5. [상황] 회사에서 과장님이 부하 직원인 당신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내가 한 얘기 못 알아들은 거야? 나: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 )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1). 위 상황에서 {나}의 발화의 괄호 안에 어느 어휘를 사용할까요?
A.도무지 B.도저히 C.전혀 D.결코

2).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어느 정도 공손하게 표현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매우 공손하다 ②약간 공손하다 ③보통 ④별로 공손하지 않다 ⑤전혀 공손하지 않다
3).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상대방의 체면을 어느 정도 위협 혹은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강함)
②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약함)
③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강함)
④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약함)

6. [상황] 아래는 당신과 동생의 대화입니다.

동생: 왜 많은 사람들은 흡연이 몸에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여전히 즐기는 걸까? 나: 나도 모르겠네. 궁금해도 시도는 하지 마. 담배는 한번 맛들이면 ( ) 끊을 수 없어.

1). 위 상황에서 {나}의 발화의 괄호 안에 어느 어휘를 사용할까요?
A.도저히 B.전혀 C.결코 D.절대
2).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어느 정도 공손하게 표현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매우 공손하다 ②약간 공손하다 ③보통 ④별로 공손하지 않다 ⑤전혀 공손하지 않다

3).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상대방의 체면을 어느 정도 위협 혹은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강함)
②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약함)
③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강함)
④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약함)

7. [상황] 변론대회에서 상대 변론자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나 당신은 폐지를 주장한다.

상대방의 변론자: 개인적으로 사형 제도가 폐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저는 이러한 관점에 ( ) 동의할 수 없습니다.

1). 위 상황에서 {나}의 발화의 괄호 안에 어느 어휘를 사용할까요?
A.도저히 B.전혀 C.절대 D.결코
2).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어느 정도 공손하게 표현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매우 공손하다 ②약간 공손하다 ③보통 ④별로 공손하지 않다 ⑤전혀 공손하지 않다
3).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상대방의 체면을 어느 정도 위협 혹은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강함)
②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약함)
③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강함)
④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약함)

8. [상황] 당신은 길거리에서 회사 신제품을 추천하려는 화장품 판매원을 만났습니다.

점원: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나온 신상인데,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나: 죄송해요. 화장품에 대해 ( ) 관심이 없어서요.

1). 위 상황에서 {나}의 발화의 괄호 안에 어느 어휘를 사용할까요?
A.별로 B.전혀 C. 그다지 D. 절대
2).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어느 정도 공손하게 표현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매우 공손하다 ②약간 공손하다 ③보통 ④별로 공손하지 않다 ⑤전혀 공손하지 않다
3).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상대방의 체면을 어느 정도 위협 혹은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강함)
②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약함)
③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강함)
④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약함)

9. [상황] 미나의 생일파티에 초대 된 영희와 당신, 영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에 대해 당신의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영희: 이렇게 입고 가면 좀 이상하지 않아? 나: 아니야, ( ) 이상하지 않아.

1). 위 상황에서 {나}의 발화의 괄호 안에 어느 어휘를 사용할까요?
A. 전혀 B.절대 C.별로 D.그리
2).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발화에 쓰이면 어느 정도 공손하게 표현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매우 공손하다 ②약간 공손하다 ③보통 ④별로 공손하지 않다 ⑤전혀 공손하지 않다
3).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상대방의 체면을 어느 정도 위협 혹은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강함)
②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약함)
③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강함)
④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약함)

10. [상황] 룸메이트가 '야식으로 치킨 어때?' 라고 물었지만 당신은 치킨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룸메이트: 오늘 야식으로 치킨 어때? 나: 미안, 난 치킨을 ( ) 좋아하지 않아서.

1). 위 상황에서 {나}의 발화의 괄호 안에 어느 어휘를 사용할까요?

A. 전혀 B.절대 C.별로 D.그리

2).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발화에 쓰이면 어느 정도 공손하게 표현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매우 공손하다 ②약간 공손하다 ③보통 ④별로 공손하지 않다 ⑤전혀 공손하지 않다

3). 위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부정극어가 발화에 쓰이면 상대방의 체면을 어느 정도 위협 혹은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①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강함)

②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위협(체면 손상 정도는 약함)

③ 상대방의 체면을 적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강함)

④ 상대방의 체면을 소극적 지킴(체면 보호 정도는 약함)

Ⅳ. 학습 정보

1. '도저히, 도무지, 전혀, 결코, 절대로, 별로, 그다지, 그리' 등의 어휘를 배운 적이 있어요? 언제 배웠어요?

학습 시기	도저히	도무지	전혀	결코	절대로	별로	그다지	그리
초급(1학년)								
중급(2학년)								
고급(3,4학년)								
배운 적이 없음								
기억이 나지 않음								

2. 수업에서 '도저히-도무지-전혀', '결코ㅡ절대로', '별로-그다지-그리'와 같이 유의관계를 보인 부정극어들의 차이점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요?

A.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B.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조금 언급하였다.

C. 자세하게 예시로 이들 유의어들을 어떻게 변별하는지를 설명해주었다.

D. 기타

3. 학교에서 사용했던 교재에는 부정극어에 관한 학습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전혀 그렇지 않다　B.그렇지 않다　C.보통이다　D.그렇다　E.매우 그렇다

4. 괄호(도무지, 도저히, 전혀, 결코, 절대로, 별로, 그다지, 그리) 안에 있는 부정극어 중에서 본인이 가장 많이 쓰는 어휘와 가정 적게 쓰는 것들을 우선순위대로 적어 주세요.

가장 많이:

가장 적게:

5. 현재 당신은 부정극어 유의어(도무지-도저히, 결코-절대로, 별로-그다지-그리 등)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A.의미 차이를 잘 아는 동시에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B.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잘 모르면서 대충 사용하고 있다.

C.정확성을 중시하지 않고 언어적 직관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6. 부정극어 유의어의 변별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A.전혀 그렇지 않다　B.그렇지 않다　C.보통이다　D.그렇다　E.매우 그렇다

7. 수업 시간에는 부정극어에 대한 교사의 설명에 만족하십니까?

A.전혀 그렇지 않다　B.그렇지 않다　C.보통이다　D.그렇다　E.매우 그렇다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of Korean Synonymous Negative Polarity Items for Chinese Learners

ZHAO FANGFA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there is a type of adverb called 'negative polarity item' used in negative sentence with negatives such as '안', '못', '못하다', '않다' or '아니다'. These adverbs show meaningful proximity so that it is difficult for foreigners Korean learners to distinguish and use these synonymous negative polarity items correctly. Negative polarity item are all belong to the category of 'negative', but each word has subtle meaning difference and different syntactic and pragmatic constraints. Therefore, Korean learners may feel burdened and show limited use of only representative negatives or not using them evasively.

Education on the discriminative characteristics of negative polarity items is essential to help Korean language learners have accurate and diverse vocabulary skills according to the context and utterance

intentions. However, so far prior studies had only mentioned that negative polarity items in Korean show synonymous relation, but it has failed to systematically discuss differences in synonymous negative polarity items and raise educational pla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to help Chinese Korean learners have the ability to discriminate and use synonymous negative polarity items correctly.

In Chapter Ⅱ, this study reviewed the scope of negative sentences and negatives which are controversial in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negative polarity item, and summarized the concept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egative polarity items based on such discussion. Then, according to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declared in this paper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negative polarity item were identified, and the list of educational negative polarity items were also extracted based on prior researches and SJ-RIKS corpus. Based on the thesaurus and korean dictionary the subject of this study, '도저히-도무지-전혀', '결코-절대로', '별로-그다지-그리' were determined. Next SJ-RIKS corpus were used to derive the difference of the three set Korean synonyms of negative polarity items in terms of syntax, semantics, and pragmatics.

Based on Chapter II, Chapter III conducted a survey and post interview to examine and compar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Chinese learn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on how to understand and use synonymous negative polarity items. As a result, i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groups. And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re was a lack of education i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among synonymous negative polarity items makes it difficult for students to distinguish negative polarity items

accurately.

In Chapter IV, the teaching contents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results SJ-RIKS corpus analysis results and the analysis of the Korean native speakers' and Chinese Korean learners' perception about the synonymous negative polarity items. After revealing the educational principles and educational goals of synonymous negative polarity items the teaching sequence was also hierarchized for effective training. Then this chapter summarized and discussed the educational contents of the individual and the discriminatory education stages of the synonymous negative polarity items as the educational information that should be provided when educating each negative polarity item was established.

Chapter V summarized the contents discussed above and describ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Chinese learners, Synonymous negative polarity items, Negative sentence, Negator, Mechanism of Distinguishing Synonyms, Collocation, Semantic componential analysis

* Student number: 2019-27020